

2017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2017 경기건축문화제

목차

Contents

대회사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위원장	006
격려사	경기도지사	007
축사	시흥시장	008
행사개요		009
<hr/>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부문	본상수상작	012
	입선	048
	사용승인부문 심사평	049
<hr/>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부문	본상수상작	052
	입선	088
	계획부문 심사평	090
<hr/>		
제5회 도시·건축 사진공모전	일반부	094
	일반부 입선	112
	학생부	114
	학생부 입선	129
	심사평	131
<hr/>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소개 및 내용	134
<hr/>		
제11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소개 및 내용	166
<hr/>		
제5회 경기 으뜸옥외광고물 공모전	소개 및 내용	174

수원공업고등학교 졸업작품 전시	소개 및 내용	186
친환경 건축 축제	소개 및 내용	192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그리기대회	유치부 본상 수상작	198
	초등부 저학년 본상 수상작	204
	초등부 고학년 본상 수상작	210
	중등부 본상 수상작	216
	특선 수상작	222
	가작 수상작	226
	입선 수상작	230
	심사평	234
Enjoy 전통건축	소개 및 내용	238
	내홍보	24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개 및 내용	242
건축문화답사	소개 및 내용	246
	도시공사홍보	248
시흥건축아카데미	소개 및 내용	250
편집후기 및 행사사진		260

대회사



올해로 5회째인 건축문화제는 1996년 건축문화상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축문화제로 자리매김하고 건축 및 도시환경의 질적 제고를 위한 문화운동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건축이 역사 속에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해 가도록 열정과 능력을 갖춘 후진들이 건축분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대중들이 건축을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시군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지난해 용인시에 이어 올해는 두 번째 실시하는 행사로 “시흥시와 함께하는 2017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어, 한층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김윤식 시흥시장님과, 김영철 시흥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경기건축문화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추진위원회를 이끌어주시는 남경필도지사님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단체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년내내 행사준비로 고생하신 신만석 집행위원장님과, 여러 주요행사의 분과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시흥지역건축사회 김은철 회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건축사회회원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협조를 해주신 경기도건축디자인과 시흥시 관계공무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학생들을 지도한 교수님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하신 모든 수상자와 가족 분들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전통과 맥락이 살아있는 경기도 대표문화축제로 계승 발전되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7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위원장

황정복

격려사



1996년 '경기도건축문화상'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경기건축문화제'라는 축제로 확대되어 건축을 주제로 한 경기도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시흥에서 열린 '2017 경기건축문화제'가 큰 결실을 맺게 돼 무척 기쁩니다. 알찬 행사를 꾸리기 위해 애써주신 경기도 건축사회 황정복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위원장님과 시흥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기건축문화제의 가장 큰 성과는 많은 도민이 경기도의 건축문화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셨다는 점입니다.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을 비롯해 전시와 참여, 학술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22개 행사에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총 방문객은 6천여 명으로 지난해 행사 관람객에 비해 1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행사의 성공비결은 폭넓은 노력에 있습니다. 먼저, 참여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즐길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과자집 만들기, VR/AR체험, 녹색건축모형 만들기 행사장에는 어린이 관람객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아울러 녹색건축·도시건축 세미나와 같은 학술프로그램을 마련한 덕분에 건축관계자들이 행사를 내실있게 이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이 경기건축문화제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건축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가 한층 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배우고, 즐기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건축은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야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시흥시와 함께한 경기건축문화제의 성공이 내년 안산에서 열릴 예정인 행사에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도민이 건축문화의 깊은 맛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
남 경 필

축사



2017 경기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시흥시는 도시와 농촌, 다양한 생태환경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도시로서 그에 따른 다양한 건축문화와 건축형태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을 가진 시흥시에서 2017 경기건축문화제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그 밖에 본 행사를 준비하는데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은 단지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아닌, 인간의 희노애락이 펼쳐지는 삶의 바탕입니다. 단순히 건물의 기본적 기능과 겉모양에만 치중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변 환경과 함께하는, 조화로우면서도 사용자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건물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7경기건축문화제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건축양상과 역사를 고스란히 눈에 담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일반 시민들도 건축문화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경기건축문화제로 시흥시민의 건축문화를 한 층 높이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시흥시는 앞으로 시흥건축문화상을 비롯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건축문화가 도시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를 찾아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이번 행사가 많은 분들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리가 되었길 바라며, 건축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흥시장
김윤식

전시프로그램

>>일시 2017.10.13(금)~15(일)

>>장소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일원

-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수상작 전시
- 친환경 건축축제 전시(녹색건축 정책, 시공 사례 등)
-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작품 전시
-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
- 경기오피스 옥외광고물 공모전 수상작 전시
- 시흥시건축문화상
- 경기건축역사전
- 제5회 도시·건축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 Enjoy 전통건축 전시
- 아름다운 아파트 사진전

상시프로그램

>>일시 2017.10.13(금)~14(토)

>>장소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일원

- 푸드트럭, 카라반
-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비어로
- 버스킹 공연
- 영상상영
- 유명건축물 크로마키 포토존
- 4D영화관, 전기자동차
- 시흥시 버스투어



프로그램 참여방법

>>제5회 경기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

- 접수 수 : 9월 25일(월) ~ 10월 13일(금)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 또는 10월14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운동장
- 참가대상 : 도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행복을 담은 건축학교(3기))

- 접수 수 : 네이버 카페(꿈다락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 접수 <http://cafe.naver.com/toyoarchschool>
- 참가대상 : 초등 4학년생 ~ 고등학생까지
- 교육기간 : 9월 16일 ~ 11월 18일(매주 토요일)

>>건축문화답사

- 접수 수 : 9월 20일(수) ~ (선착순)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
- 참가대상 : 누구나, 90인내외(45인X2회)
- 답사장소 : 경기도건축문화상 수상작 투어
- 집결지 :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3D 프린팅, 건축 모의체험 아키텍 및 과자집만들기

- 접수 수 : 9월 25일(월) ~ 10월 11일(수)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
- 참가대상 : 유치원생, 초등생 등

>>에너지투머로우(에너지관련 진로체험), 에너지학교 에코롱롱

- 사전접수 : 9월 20일(수) ~ (선착순)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참가대상 및 장소 : 초등학생, 중학생 /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일원

>>친환경 집짓기 체험

- 사전접수 : 9월 20일(수) ~ (선착순)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 시흥시 건축과
- 참가대상 및 장소 : 고등학생 이상(1일 참여인원 30명 내외) /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3층 체험장
* 사진 접수참여자의 경우 봉사점수 부여 예정

>>친환경 녹색건축 종이모형 만들기

- 참가대상 및 장소 : 축제에 참여하는 도민누구나 현장접수 /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일원

시상식 및 개막식

>>일시 2017.10.13(금) 오후2시

>>장소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참여프로그램

>>일시 2017.10.13(금) ~14(토)

>>장소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일원

- 3D프린팅 체험
- 건축 모의체험 아키텍
- 과자집만들기
- 건축문화답사
- 메탈투어
- Enjoy 전통건축 체험
- VR/AR 체험

>>일시 2017.10.14(토) 오후1시

>>장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운동장

-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대회

>>일시 2017.10.14(토) 오후2시

>>장소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 시흥시 도시건축 특강
특강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서현 교수
주제 : 도시에는 누가 사는가?

>>일시 2017.9.16(토) ~ 11.18(토)

>>장소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일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행복을 담은 건축학교)

>>일시 2017.10.13(금) ~14(토)

>>장소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일원

- 녹색건축 세미나
- 친환경 집짓기 체험 (10.12 ~ 10.21)
- 진로체험 및 에너지학교, 종이모형 만들기

2017 경기건축문화제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비주거 부문

대상	여주박물관
금상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은상	시화조력문화관
동상	SECRET-K
동상	영화사집 파주 사옥
시흥시장상	소다미술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상	천주교 수원교구 매탄동 성당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사회장상	이천시 환경학습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수원 한옥 어린이집

주거 부문

금상	빛담집
은상	루시드에비뉴
동상	가평 금대리 단독주택
동상	아미재
동상	EVENT HOUSE
시흥시장상	써니힐 이스테이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상	화성 푸르미르호텔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POP House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하안돌집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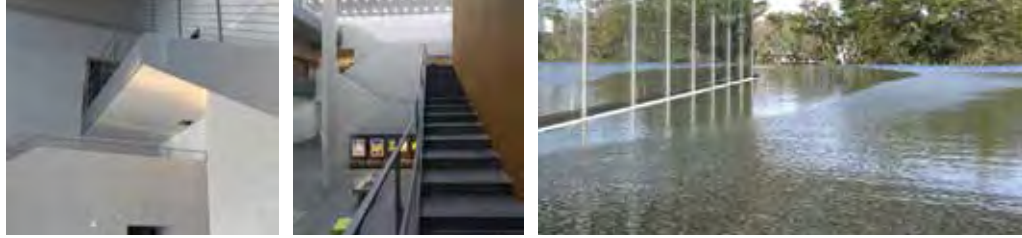
심사평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

- 사용승인 부문
- 비주거 부문

여주박물관 Yeoju Museum



마암과 남한강, 여주역사의 근원

여주는 과거에 황려현으로 불렸는데, 이는 남한강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솟아오르는 모습이 누런 말(황마), 검은 말(여마) 과 닮았다하는 고전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그 바위를 마암이라 불렀다. 대지 앞을 흐르는 남한강과 그 건너에 있는 마암은 여주역사와 정체성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축으로 주변과 관계맺기

기존 박물관은 남한강을 향해서 배치돼 있고, 전면이 남한강으로 트여있다. 신축 박물관은 이를 해치지 않기 위해 축에서 비껴나 있고, 강 건너편 마암과의 연결축을 형성하면서 배치되어있다.

풍경 속 조형물로서의 박물관

확 트인 경관 속에서 건물이기보다 풍경 속 조형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여주, 남한강 이곳, 유유한 시간의 누적을 퇴적층으로 보고 건물은 퇴적층 수면 위로 드러난 검은상자로 은유시켰다.

시민의 쉼터, 일상 속의 문화공간

건물 로비와 홀에 접한 메인 공간에 카페를 배치함으로써 일상에서 휴식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경 경계를 개방해서 박물관이 열린쉼터가 되도록 하였다.

남한강 전경 끌어들이기

수공간에 접한 카페의 상부는 캔틸레버로 들려있어서 가로로 긴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 남한강과 여주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여주의 존재와 역사를 되새기도록 하였다.

박스 속 역동적 공간

카페에 접해서 3개층으로 뚫린 메인홀이 있다. 홀 내 관람동선을 입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자칫 정적일 수 있는 입방체공간 속에서 관람자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느껴지도록 하였다.

물과 하늘, 유리의 반사

검은 유리면은 하늘을 반사시켜 여주의 현재와 미래를 드러내려 했고, 남서쪽 모서리의 잘려나간 삼각면은 여주의 근원인 남한강 상류를 비추어 여주의 과거 시간을 유감시키려 하였다.

위치
여주시 신록사길 6-12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성관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송성욱

시공자
주식회사 연우
조용호

건축주
여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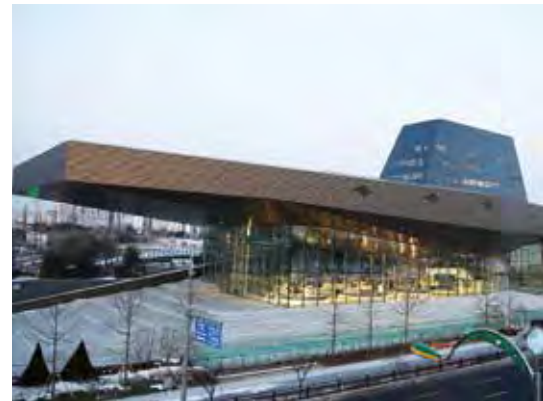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금상

- 사용승인 부문
- 비주거 부문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hyundai motorstudio goyang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

용도
전시장, 자동차관련시설

설계자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엄필현, 김연수

시공자
현대건설㈜
정수현

건축주
현대자동차㈜

독특한 외관 형태의 건물은, 동양적인 천(天),지(地),림(林)이라는 요소를 메인 컨셉으로 디자인 되었다. 떠있는 하늘 지붕과 땅 사이에 친환경적인 조경을 계획하여, 방문자들에게 자동차(기술)와 나무(자연) 사이를 자유롭게 거니는 경험을 제공한다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은상

- 사용승인 부문
- 비주거 부문

시화조력문화관



위치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1927
시화방조제 일원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설계자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미

시공자
삼공종합건설㈜
홍익표

건축주
한국수자원공사

본 계획안은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와 지역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통합문화관 건립계획으로 시화방조제 중간에 있는 작은가리섬을 중심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평탄한 대지가 제시되었다. 계획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서의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역동적인 형태와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다채롭게 바다를 경험하러 수 있는 공간시나리오 형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우선 조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라이 형상을 전망대의 모티브로 삼아 시화호를 밝히는 달(전망대)에서 비롯하는 조력의 무한한 에너지(조력문화관)라는 스토리로 형태를 구성했다. 전망대는 원형으로 구성되어 전방향으로의 전망을 확보했으며, 조력문화관은 무한대의 형상으로 교차하는 판으로 구성하여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 사용승인 부문
- 비주거 부문

SECRET-K




 위치
시흥시 군자동 402-3외 1필지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한들
최인영, 김종구, 김진

 시공자
김효진

 건축주
김효진 외1인

건축주가 구조학을 교육하시는 교수님입니다.

장스판의 캔틸레버 구조를 원하면서 대지 주변 환경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다보니 역설적으로 '배'의 형태를 가진 건물을 위하여 전체적인 컨셉을 '배'로 잡고 진행하였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매스가 배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 사용승인 부문
- 비주거 부문


영화사집 파주 사옥 ZIP Cinema Office





집 씨네마는 15미터 최고 높이 제한에 전체 4층 규모의 건물이다. 1층은 카페와 다목적 공간이 있어 주로 방문객들과 교류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카페는 주 통로를 제외하고 레벨이 1미터 다운되어 약간 반 지하 같은 느낌이다. 결과적으로 카페에서 시나리오 작가들을 만나거나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며 테이블에 앉았을 때 외부로의 시선을 낮춰 좀 더 아늑한 분위기가 된다. 그만큼 높아진 천정고는 덤으로 얻은 부수적인 효과다. 카페와 바로 이어지는 다목적홀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각종 이벤트 및 시사회, 인터뷰 등 외부인과 교류하기 위한 홀이다. 반면 2층부터 4층은 사무실 직원과 시나리오 작가 등 내부 사람들 용이다. 한편 매주 월요일 정기 회의에 모두 모여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소기도 하다. 한편 동서남북 측 모두에 면한 사무 공간의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향마다 다른 입면 계획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서측은 오후 늦게까지 쏟아지는 햇빛을 고려해 입면의 절반 이상을 높고 좁은 벽들로 분절하고 평면에서 틀어 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적절하게 유지했다. 북측과 동측은 서쪽과 디자인을 일관되게 유지하되 단순히 처리했다. 남측 입면엔 집 씨네마에서 가장 특징적인 공간 장치를 더했다.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의 스케일에 맞는 공간을 선호한다

 위치
파주시 회동길 508

 용도
공장

 설계자
폴리머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김홍식, 김호민

 시공자
㈜두영건설
고석준

 건축주
㈜영화사집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시흥시장상

- 사용승인 부문
- 비주거 부문

소다미술관 SPACE OF DESIGN AND ARCHITECTURE

재생건축, 그리고 도시

소다미술관은 수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찜질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미술관으로 재해석한 디자인·건축 미술관이다. 기존의 고답적인 미술관의 형태에서 벗어나 '지붕없는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미술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골조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찜질방의 구조를 살린 콘크리트 박스는 컨테이너 박스들과 함께 해체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내외부 전시공간들을 만들어 내며 공간적인 '캔버스'를 형성한다.



- 위치
화성시 안녕동 138-109
- 용도
문화및집화시설(미술관)
- 설계자
㈜중합건축사사무소 금정건축
전재형
- 시공자
스튜디오테크
최석원
- 건축주
㈜원동방
장동선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상

- 사용승인 부문
- 비주거 부문

천주교 수원교구 매탄동 성당



- 위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08
- 용도
종교시설
- 설계자
㈜포에이그림 건축사사무소
도대수
- 시공자
㈜명품건설산업
고인섭
- 건축주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대상지는 수원 영통구의 일반주거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부역이며, 남측, 서측으로는 6m도로와 동측으로 8m도로에 접한 대지이다. 동측은 매화근린공원이 있으며 근린공원을 따라 걷다가 보면 종교적 언어들을 통한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느님의 성전을 만날 수 있다. 3면의 도로에서 보여지는 매스의 볼륨은 웅장하면서도 외벽의 점토벽돌과 화강석의 조화로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연출된다.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장상

- 사용승인 부문
- 비주거 부문

이천시 환경학습관



- 위치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684-4
- 용도
문화및집화시설(식물원)
- 설계자
㈜혜원까지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진철
- 시공자
올두건설
한정아
- 건축주
이천시장

이천시의 대규모 소각장이 있는 인근에 주민들을 위한 식물원과 수족관을 인접해 있는 체육관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접근하였다.

경사지 땅에 상이한 용도의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하여 1층에는 수족관을 두고 2층에는 자연채광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유입가능한 식물원을 배치하였다.

또한, 3차원 곡선의 온실 곡면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ETFE이중막을 설치하여 공조 및 온실내에서의 공기흐름, 자연채광을 최대한 유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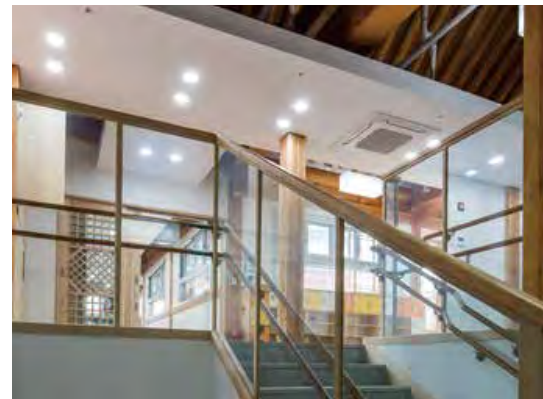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사용승인 부문
- 비주거 부문

수원 한옥 어린이집 SUWON HANOK CHILDREN DAY CARE CENTER

일반적인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 중에 하나이고 교육시설인 유치원과 구분되는 보육 시설이다. 수원한옥축진지구에 건립된 이 집은 보육실 중심의 어린이집은 아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인 아이러브맘카페이다. 1층에 중심시설인 '아이러브맘'카페는 영유아를 부모가 직접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유 놀이실과 전문상담실, 수유실 등을 운영하여 육아를 지원하는 복합놀이공간이다.



- 위치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92-2
- 용도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 설계자
췌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이관직
- 시공자
엠투종합건설(주)
- 건축주
수원시청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금상


- 사용승인 부문
- 주거 부문

빛담집(빛을 담은 집) A HOUSE IN LIGHT



 위치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151번길 7-8

 용도
단독주택

 설계자
㈜이순예천 종합건축사사무소
천근우, 양원모

 시공자
전세준

 건축주
전세준

빛 · 시간

건조한 일상의 삶에게
생기있는 원초적 자연을 빛의 밀도로 선물한다.
하루의 다름, 계절의 다름을 빛의 변화와 차이로...
초청된 빛을 향유하는 집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은상

- 사용승인 부문
- 주거 부문

루시드 에비뉴 LUCID AVENUE



위치
용인시 보정동 1232번지 와1필지

용도
단독주택

설계자
㈜건축사사무소바이페이스케이프
이영조, 권혁기, 황준원

시공자
㈜상지건설
한중희

건축주
대림디앤아이㈜

New high standards for social housing

벽돌벽과 박공기와지붕은 오랫동안 고전 주택건축의 전형적인 모티브이다. 그만큼 친근하고 익숙하지만 Lucid Avenue에서 현대주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하나 박공의 반복과 겹침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붕의 수평적 이미지, 섬세한 비율로 재단한 벽돌벽과 스테코벽의 대비에서 오는 수직적 이미지, 이 두 이미지로 형성되는 단지는 독특하면서 편안하고, 매시브하고 강한 디자인 요소를 가지게 된다. 또한 백년이 지나도 처음 그대로의 물성과 형태의 변함없는 영속성의 이미지를 건축에 투영한다.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 사용승인 부문
- 주거 부문

가평 금대리 단독주택 THE FADE

본 프로젝트는 뮤지션과 문화기획자 부부를 위한 주택이다. 사이트는 북한강을 따라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매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가평에 위치하여 있다. 주 활동지역이 가평인 남편과 잦은 해외공연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은 아내는 그들의 보금자리로서 가평군 금대리 내에서도 비교적 산세가 훌륭하며 한적하되, 접근성이 용이한 물안산 자락을 택하였다.

우리는 해외 무대를 위주로 활동하는 아내에게는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만큼은 조용하고 쾌적한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였고, 요리와 정원 가꾸기를 즐겨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주위 산세를 깊이 품은 집을 계획해 주고자 하였다. 대지는 동측으로는 북한강을 향해 시야가 열려있고, 나머지 세면은 산세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서측으로는 물안산 자락과 이어진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의 배치는 대지의 레벨 차를 이용하면서도 대지의 형상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다. ㄷ자 형태의 매스를 수직으로 중첩함으로써, 단면적으로 서측 산 자락의 경사를 지하 1층 거실 공간까지 연장하여 자연을 최대한 깊숙이 들이고자 하였으며 그리하여 사면에 인접한 공간의 컨디션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 또한, 두 개의 매스를 각각 동서, 남북 방향으로 어긋나게 함으로써 기능과 성격이 서로 다른 다양한 처마 및 테라스 공간을 생성해주며 자연스럽게 지형과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치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415
- 용도
단독주택
-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오비비에이
곽상준, 이소정
- 시공자
인재진
- 건축주
인재진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 사용승인 부문
- 비주거 부문

아미재 마당통하는집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

대지는 남서울CC 내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로 9필지가 오랜시간을 두고 지어지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명당자리에, 잘 관리되어진 방법등의 혜택을 받으며, 전 가구가 호화주택의 범위를 넘는... 수치상으로 그야말로 고급주택단지이다.

집주인은 여기에 조용한 집짓기를 원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단지를 돌아보는 내내 이단어가 떠올랐다.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


‘검이불루 화이불치’는 말 그대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뜻으로 고구려와 신라를 견주어 백제문화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다. 또한 이는 한국 전통 미학을 관통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종묘의 태실과 열주 사이 좁은 퇴칸에는 화려한 단청과 조각도 없지만 엄숙하고도 신성한 공기가 머문다. 해인사의 지붕들은 주변산세와 어울려 그 단아함은 극치를 이룬다. 우리 옛 건물은 애써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검박한 아름다움으로 그 가치를 더하고자 했다.



 위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1-6번지

 용도
단독주택

 설계자
건축동인건축사사무소
최홍중

 시공자
㈜제효
이백화

 건축주
인호진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 사용승인 부문
- 주거 부문

EVENT HOUSE

이 주택은 미대교수인 남편과 부인을 위해 설계되었다. 대지는 북서쪽으로 넓은 경사면과 광대한 조망을 가진 언덕에 위치하며, 남쪽에 인접한 산을 면하고 있어 주택의 향과 조망을 동일한 방향으로 계획할 수 없는 특수한 조건을 가졌다. 부부는 남편은 은퇴 이후, 주택이 단순히 그들의 거주 목적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활동의 공간적 기반으로 활용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부부가 거주하는 본채와 완전히 독립된 별채, 남편을 위한 독립된 서재 및 이틀리에, 20명 수용규모의 다목적 공간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대지조건과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대지의 경사를 활용한 단면 계획을 통하여 북서쪽 조망을 극대화했고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를 소화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 계획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다.



위치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62-6

용도
단독주택

설계자
UAARL
이우형
선원건축사사무소
서진현

시공자
한국건축
홍귀표

건축주
윤홍열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시흥시장상


- 사용승인 부문
- 주거 부문

써니힐 이스테이츠




 위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79-15

 용도
단독주택

 설계자
남호건축사사무소
김중기

 시공자
전스티브용

 건축주
전스티브용

Su Misura '수미즈라' (당신의 사이즈에 맞춘다)

이탈리어로 당신의 사이즈에 맞춘다는 의미의 수미즈라의 개념을 반영하여, 입주할 건축주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방식, 구성원 등에 맞추었으며 설계자와 입주자가 함께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건물의 외관 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된다.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상

- 사용승인 부문
- 주거 부문

화성 푸르미르호텔 PRUMIR HOTEL



- 위치
화성시 안녕동 188-2
- 용도
숙박시설(관광호텔)
- 설계자
췌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이관직
- 시공자
췌석진건설
하용환
- 건축주
하용환

푸르미르 호텔은 입지에서부터 쉽지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까이에 용릉과 건릉, 즉 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의 능이 가까이 있는 것이다. 문화재 인근 지역으로 건물의 높이가 일부 3층, 일부4층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넓은 대지의 반정도의 진입부에 주차영역과 녹지 영역을 배치하여 진입 공간 외부를 여유 있게 계획했다. 정면의 2, 3층은 객실을 배치했다. 수평적인 이미지를 갖는 긴 수평의 경사 지붕을 가진 건물이 고 동일한 이미지의 경사 지붕을 가진 입구 케노피가 정면에 형태적인 변화를 준다.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사용승인 부문
- 주거 부문

POP House



위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11-10

용도
단독주택

설계자
에이앤엘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신민재, 안기현, 최성식

시공자
이주한

건축주
이주한

30대 초반인 젊은 부부가 듀플렉스 하우스를 의뢰하였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단독주택 택지개발지 중 남측과 동측에 도로를 접한 모서리 땅이다. 대지는 약2m의 높이차가 있는 경사지이고 남쪽과 동쪽은 고속도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위치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인접하고 경사가 있어서 분양이 늦어진 땅이지만, 단점을 이용해 중점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대지였다.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사용승인 부문
- 주거 부문

하안돌집 WHITE STONE



위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11-14

용도
단독주택

설계자
조성욱 건축사사무소
조성욱, 김연희

시공자
박연경

건축주
박연경

집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대지 건너편에 펼쳐진 녹지를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고, 주출입구와 테라스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다. 중정마당을 부드럽게 둘러싸며 각 공간들을 배치시킨 후, 집안 곳곳에서 중정과 건너편 녹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내부로 스며든 푸른공간에서 가족들은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건물 내외부의 푸른 공간은 집안 곳곳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필요한 공간은 확보하면서, 주변건물과의 경관을 고려하여 지붕경사를 조절하였다



입선

- 사용승인 부문
- 비주거/주거 부문

수상구분	건물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비주거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	이상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안택진, 강승현, 김나운	(주)태영종합건설 고광용	수원시
	예인미술	(주)건축사사무소 O.C.A 임재용,전혜림	두영건설 고석준	(주)예인미술
	인자인 케어센터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장윤규,신창훈	코렘시스 홍명희	(주)인자인
	고양시 대화 노인 종합 복지관	건축그룹 건축사사무소 최인석, 이오 건축사사무소 오주현	소사별종합건설(주) 김현란	고양시
	(주)아리온테크놀로지 사옥	(주)푸름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영우,이용순	(주)웰크론한텍 이영규	(주)아리온테크놀로지
	광진교회	(주)야긴 건축사사무소 최두길	설우건설(주) 조영상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오이도호텔	동윤 건축사사무소 임지환	유진종합건설(주) 최영호	안중균
	(주)씨엠에스 사옥	(주)플래너스 건축사사무소 김장식, 오진	주식회사 트래콘건설 김종필	(주)씨엠에스 김애란
	섬복시 사옥	(주)건축사사무소 메타 우의정	(주)에스건설 장형욱	조선경
	광적도서관	다함 건축사사무소 전형식	주식회사 건우건설 박현충	양주시
	송내어울마당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박명협	신동아종합건설(주) 김중구	부천시
	시흥시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박성환	중앙건설 주식회사 유광일	시흥시
	한화미래기술연구소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태집, 한기영, 신명선	(주)한화건설 이근포	주식회사 한화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미	KR산업 박종화	고양시
	가능1동 주민센터	관동 건축사사무소 윤정혁	더본종합건설(주) 신정빈	의정부시
주거	주택 SPACE35	SPACE35 건축사사무소 신환봉	신환봉	신환봉
	GP house	에이치제이피 건축사사무소 김민석, 박현진	효상건설 원재선	신성재
	제가원	(주)아키마루 종합건축사사무소 최호정	보경건설 조충현	최호정
	선여재	(주)노바 건축사사무소 강승희	남광순	남광순
	POLY HOUSE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농장 조선애, 최장원	(주)더바른건설 조문철	박주연, 이연주
	동백 허그 하우스	(주)생각나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강주형	이중원	이중원
	하안동 두마당집 "버들네"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 김시원, 이웅재	유성미	유성미
	코알라하우스	유하우스 건축사사무소 정승이	유하우스 주식회사 정승이	이범주

심사평

- 사용승인 부문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비 주거 부문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자원 개발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를 창의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물계획을 실현함으로써 대지의 환경적 조건과, 공공성의 기능을 충실히 적용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이용자,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등 좋은 건축물 완성에 기여 한 작품을 선정하였음.

주거 부문은 건축물배치 계획부터 지형을 고려한 주거생활에 편리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등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구성을 우수하게 계획,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주택을 설계, 시공, 건축주의 좋은 재료 사용 등 우수작품으로 선정하였음.

심사위원장 **최용화**

2017 경기건축문화제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제22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 부문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

- 계획부문

행촌동 성곽마을, 사람이 흐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그에 맞게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4개 항목 중 하나로 '노후 주거지역' 도시재생이 있고, 그 일환으로 '성곽마을 보전 및 관리 9개 권역'을 선정했다. 한양성곽이 지나가는 마을 중 9개 지역을 선정해 테마별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현재 선도지역으로 인왕산자락에 위치한 '행촌권'이 있다. 행촌동은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소개되어 타지역의 답사지가 되고있다. 무엇보다 행촌동은 '도시농업'을 테마로 마을텃밭, 마을온실을 만들어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행촌동은 '성곽마을'과 '도시농업' 이 두가지를 테마로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Site Context
 The site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village, surrounded by traditional Korean houses (Hanok). The area has a long history and is rich in cultural heritage. The project aims to revitalize the village by preserving its traditional character while introducing modern amenities and infrastructure.

Site Analysis
 The site analysis includes topography, existing buildings, and surrounding context. Key findings include the need for improved circulation, preservation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integration of green spaces.

Concept
 The concept is to create a vibrant, walkable community that honors its heritage. The design focuses on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al elements like tiled roofs and wooden structures, combined with modern materials and techniques.

Design Process
 The design process involves multiple iterations of site plans, building footprints, and material selections. It emphas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Material and Structure
 The project uses traditional materials like brick and wood, alongside modern materials like concrete and metal. The structure is designed to be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ally pleasing, reflecting the traditional Korean style.



Architecture Diagram
 The architecture diagram shows various floor plans and sections for different building types, including residential units, commercial spaces, and public buildings. It details the layout, circulation, and integration of green spaces.

Plan
 The plan shows the overall layout of the village, including the main street, courtyards, and the placement of various buildings. It illu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new structures.

행촌동 성곽마을, 사람이 흐른다
 성곽마을 기존 형식을 보존하며 진행되는 개별 건축물 Renovation을 통한 점진적 환경 정비



Section Program



The section program details the internal layout and functional zones of the buildings. It highlights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al elements like courtyards (jeogjuk) and the use of natural light and ventilation.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금상

- 계획부문

N.C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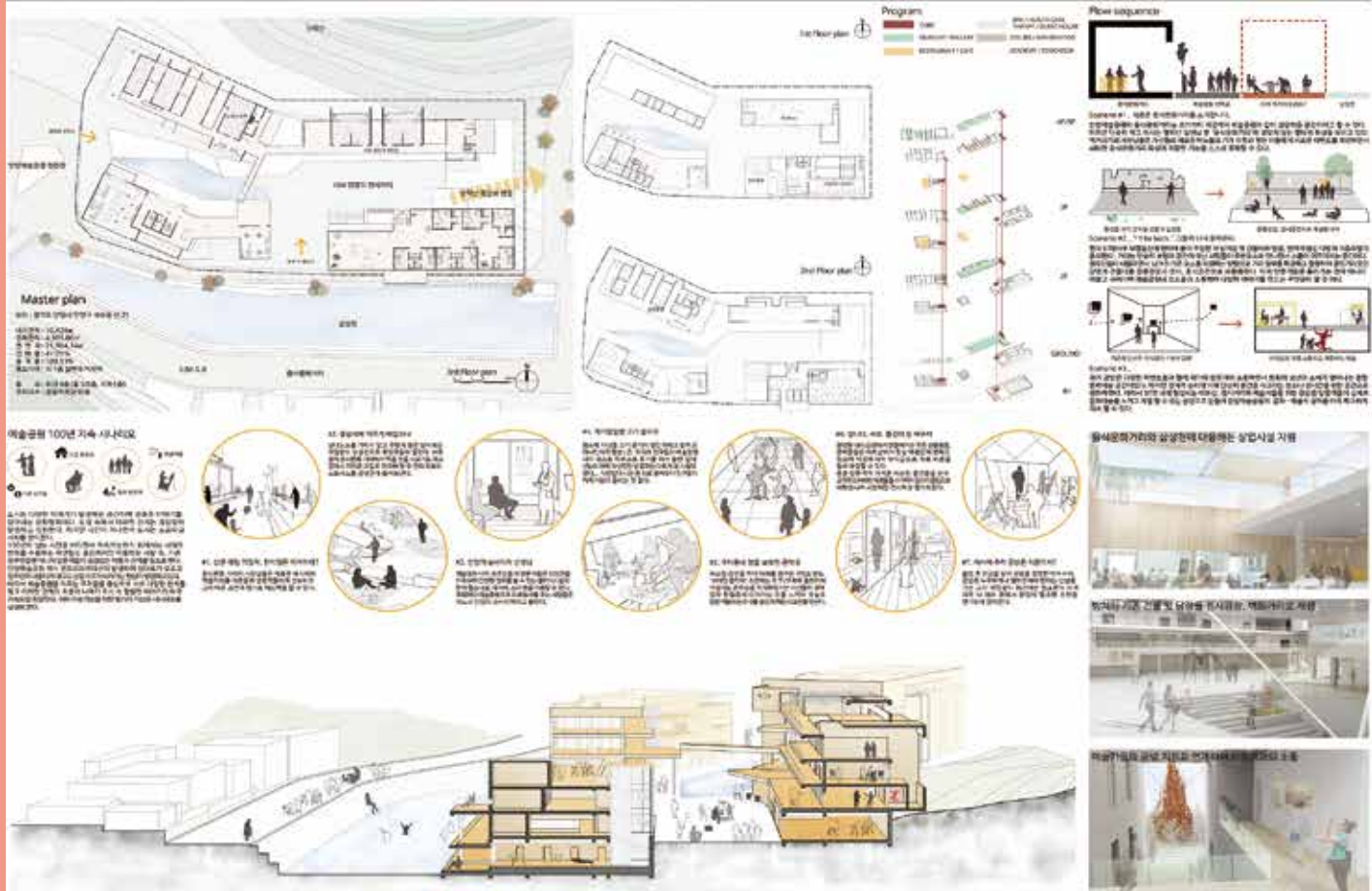
젠트리피케이션 해소를 위한 안양 도심속 예술문화 플랫폼 계획

‘NC(Nature & Culture) FLOW’는 안양시 도심 속 예술문화, 상업거리로서 중심역할을 맡는다. 또한 김종업 박물관, 예술공원, 관악산, 삼성천과 같은 요소들은 원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일상을 연결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아낸다. 더불어 인근 원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문화, 자연 속의 휴식, 테마거리를 제공하고 기존 음식문화거리 상인들의 상권보장과 재건을 지원함과 동시에 예술가들에게는 작업공방과 전시공간을 제공해준다.

이처럼 도심속에서 자연과 만나는 NC FLOW의 영향력은 안양예술공원 내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고 주변으로 흘러갈 것이다.



인하대학교
이학주, 정찬우, 구동현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은상

- 계획부문

'기억'을 담은 경암동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마을

군산 경암동은 근대화를 겪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부에 다양한 시간의 공간들이 적층되게 되었고, 지금의 경암동은 현재의 공간 안에 과거의 공간들이 남아있다. 도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맞지만, 건축물이 변하더라도 많은 세월 동안 그 장소에 새겨졌던 삶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을 유지시켜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암동은 근대화에 맞추어 변화하였지만, 그 안의 철길마을은 과거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어떻게 과거와 현재가 잘 공존하며 어울릴 수 있을까?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어, 어떻게 기존의 장소성 구현(과거)으로 주변(현재)과 소통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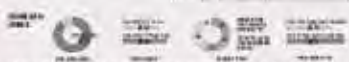


CONCEPT 015 016 017

CONCEPT 015 016 017



015 016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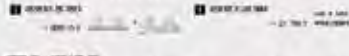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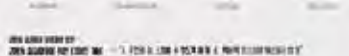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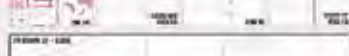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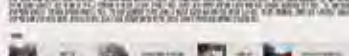
015 016 017



015 016 017



015 016 017



RAILWAY - VILLAGE
GONSAN CYENAMDONG

PROGRAM

PROGRAM



MORNING PLATFORM
INTO RAILWAY VILLAGE



DESIGN PROCESS



DESIGN APPLICATION



ACCESS PATH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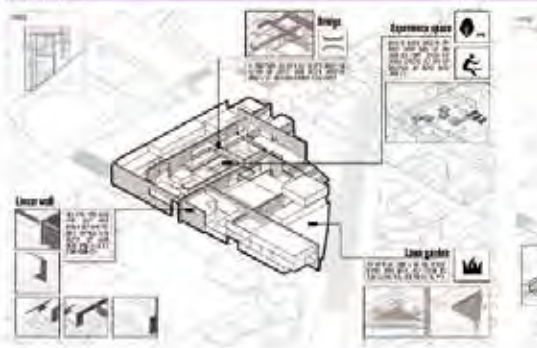


DIAGRAM SITE - B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은상

- 계획부문

Culture Incubator

남산아래 화려한 근대 건축물에 가려진 우리의 성곽

서울은 한양도성 성곽 길을 통해 역사성을 보존하고 문화적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중 장충동은 근현대적 의미에서 역사성이 짙은 곳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많은 이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가려져 있다.

현대의 화려함으로 현 장충동의 모습에서 옛 것을 가려야만 했는가? 라는 의문을 남긴다. 지역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과거 역시 안고 가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려져 있었던 역사를 드러내고 더불어 나아가기 위해 보존을 통해 이곳을 기억하고 장충동의 미래의 방향의 한 틀을 제시한다.



Site Location

History Preservation

Issue

How to preserve the historical site while creating a modern building? How to create a public space that is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ally pleasing? How to create a building that is both sustainable and culturally sensitive?

Idea Gram

Concept

Reorganizing Context

How to reorganize the context around the building? How to create a public space that is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ally pleasing? How to create a building that is both sustainable and culturally sensitive?

Redefining Outdoor Space

How to redefine the outdoor space around the building? How to create a public space that is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ally pleasing? How to create a building that is both sustainable and culturally sensitive?

Maximizing Green Surface

How to maximize the green surface around the building? How to create a public space that is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ally pleasing? How to create a building that is both sustainable and culturally sensitive?

Frame The View

How to frame the view around the building? How to create a public space that is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ally pleasing? How to create a building that is both sustainable and culturally sensitive?

Culture Incubator

남산 아래 화려한 근대 건축물에 가려진 우리의 성과

과거 전통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의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건축물이 등장한 것은 1920년대 이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근대 건축물들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화려하고 장식적인 양식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갔고, 남산 아래에 세워진 근대 건축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화려한 근대 건축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현대적인 건축 양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ite Plan

Circulation

Valley Level Exhibition

Floor Plan

Master Plan

How to create a master plan for the building and its surrounding context? How to create a public space that is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ally pleasing? How to create a building that is both sustainable and culturally sensitive?

Propose

How to propose a new building and its surrounding context? How to create a public space that is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ally pleasing? How to create a building that is both sustainable and culturally sensitive?

Future Direction

How to create a future direction for the building and its surrounding context? How to create a public space that is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ally pleasing? How to create a building that is both sustainable and culturally sensitive?

Isometric

3F Plan

4F Plan

Section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은상

- 계획부문

지역 및 도시의 기억

계속거주가 가능한 공생주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일부가 아닌 주요계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도시 공간 속에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혼재하며,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점점 사회적 구조에 따라 도시공간이 관계를 달아가며,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및 시설대응에 있어 사회적 고립의 문제점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거주가 갖는 의미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관계형성의 '공생:공유'라는 측면을 통해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여 노인주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노인복지에 대한 변질된 의미를 관계를 통한 공유, 공간을 통한 공유를 통해 미래적 공간을 제안 및 형성하려 한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지해

SITE CONDITION

1.1 주변현황
 1.2 건축물 분포 분포
 1.3 건축물 용이
 1.4 계획된 지역 중심지의 면적

PROBLEM & ISSUE

1.5 인구증가세로 인한 문제
 1.6 노년인구 비중의 지역별 편차
 1.7 지역특성에 따른 생활환경

SOLUTION

지역 계속거주 네트워크 구축

PROCESS

1.8 계획과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1.9 도시계획의 단계별 접근
 1.10 주민참여와 소통

GREEN SPREAD

1.11 녹지확산의 필요성과 목적
 1.12 녹지확산의 유형
 1.13 녹지확산의 효과

NEW POSSIBILITY

1.14 다양한 주거형태의 도입
 1.15 세대별 주거환경의 차별화
 1.16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AGING IN PLACE CYCLE MODULE IN CITY

1.17 도시 내 고령자의 생활권 조성
 1.18 고령친화 시설의 도입
 1.19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FLOOR PLAN

E BLOCK
 1.20 1층 평면도
 1.21 2층 평면도
 1.22 3층 평면도

D BLOCK
 1.23 1층 평면도
 1.24 2층 평면도
 1.25 3층 평면도

C BLOCK
 1.26 1층 평면도
 1.27 2층 평면도
 1.28 3층 평면도

UNIT PLAN
 1.29 1인 가구 34㎡
 1.30 1인 가구 48㎡
 1.31 2인 가구 64㎡
 1.32 3인 가구 78㎡
 1.33 그룹용 주거 121㎡

MASTER PLAN

A BLOCK
 1.34 커뮤니티 센터
 1.35 커뮤니티 정원

B BLOCK
 1.36 커뮤니티 정원
 1.37 커뮤니티 센터

C BLOCK
 1.38 커뮤니티 정원
 1.39 커뮤니티 센터

D BLOCK
 1.40 커뮤니티 센터
 1.41 커뮤니티 정원

E BLOCK
 1.42 커뮤니티 정원
 1.43 커뮤니티 센터



지역 및 도시의 기역 : 계속거주가 가능한 공동주택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 계획부문

Something about us

일터, 쉼터, 배움터 구축을 통한 도시 흐름 재생에 대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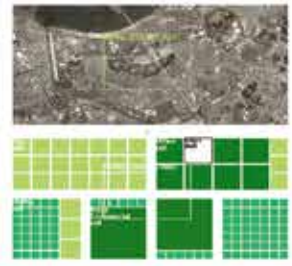
도시는 흐름을 잃고 방향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흩날리는 낙엽 마냥 떨어지고야 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도시는 사회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 사회의 모습은 고스란히 도시에 반영된다. 지속적으로 관찰한 우리의 도시는 산재하는 맥락 속에 어쩔 줄 모르는 아이마냥 고립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가 작은 점들의 집합으로 변혁을 이루어 낸 것처럼, 우리의 도시 또한 산재하는 맥락의 집합과 정돈으로 끊어진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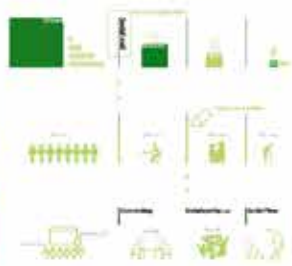
맥스트랫건축사사무소
이건엽
HJP건축사사무소
하경훈
경희대학교
최진영



#1. Microscopic SOCIETY | *social life*



#2. REGENERATION FLOW | *connecting relationship*



#3. SCENARIO for regen | *found eye urban flow*



#4. URBAN COMPOUND | *urban flow market*



#5. SCAPE CONVERTING | *strategy*



#6. Sharing boundary | *social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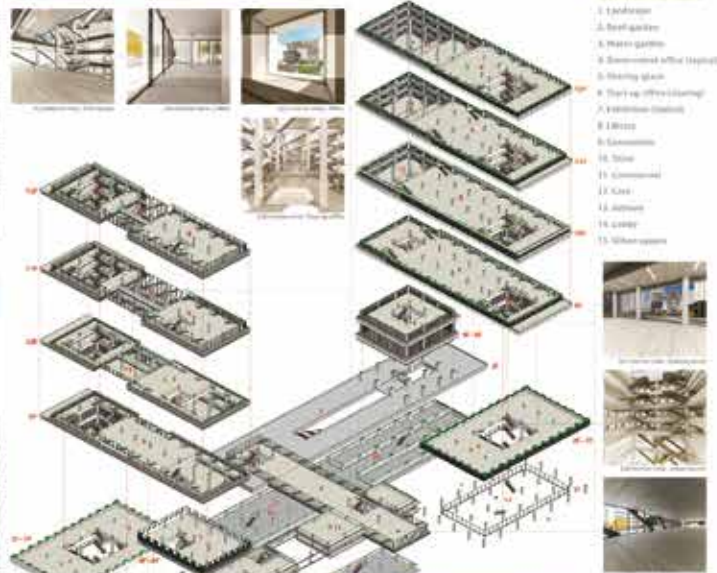
#7. DISTRIBUTE | *something about us*



#9. LOOKING AROUND | *social planning*



#10. PLACE CONSTRUCTION | *the new habitat*



#10. WALK AROUND | *social life*



#DAILY SCENARIO OF US | *urban life and work*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 계획부문

ON-DEMAND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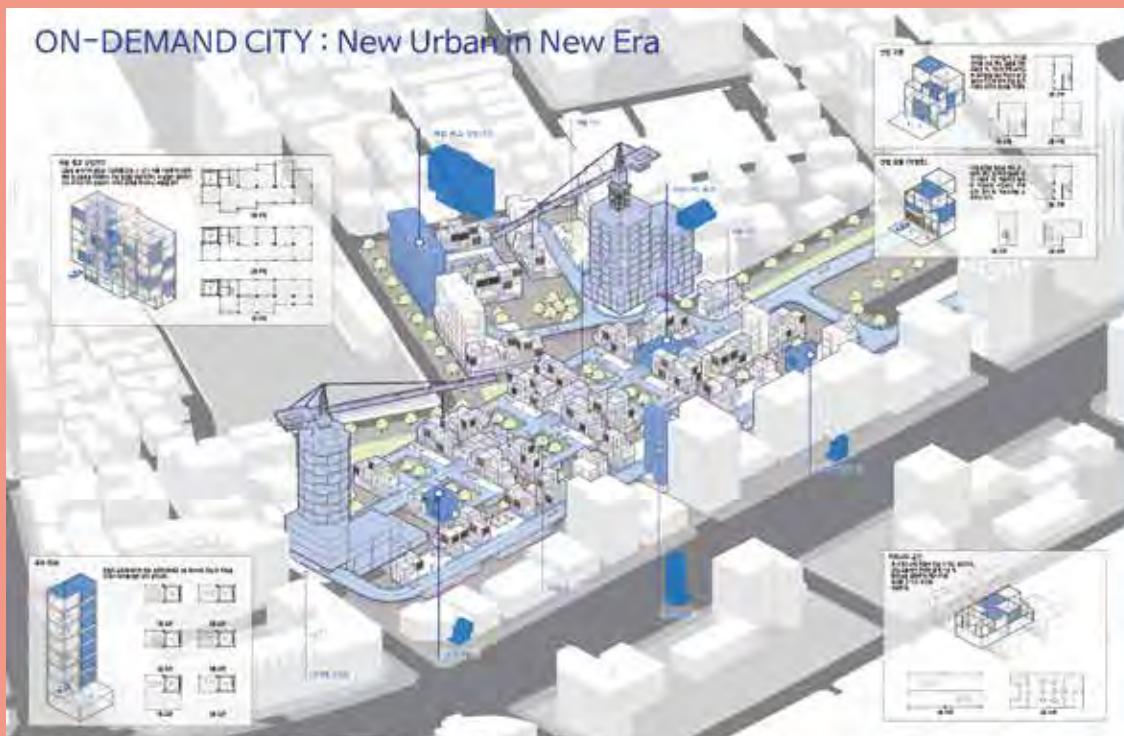
NEW URBANISM IN NEW ERA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어바니즘)

우리는 현재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마주하고 있다. 과연 이 시대와 사람들의 생각과 그에 따른 도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코르뷔지에의 300만을 위한 도시', '세르다의 바르셀로나 그리드'와 같은 과거의 선례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필요한 어바니즘이 제시되었던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코르뷔지에는 산업혁명의 변화하는 산업 속에서 변화한 가치와 새로운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된 도시를 생각하였고, 세르다 또한 변화한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어반블록을 설계하였다. 바로 변화한 '생각'을 담을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시대에 필요한 '어바니즘'인 것이다.



한양대학교
김준호, 김신구, 정수환

ON-DEMAND CITY : New Urban in New Era



도시의 품격
 도시의 품격은 도시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본 프로젝트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건축 형태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PROJECT GOAL : ON-DEMAND CITY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건축 형태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시도 의의
 본 프로젝트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건축 형태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시도 의의
 본 프로젝트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건축 형태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시도 의의
 본 프로젝트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건축 형태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시도 의의
 본 프로젝트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건축 형태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시도 의의
 본 프로젝트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건축 형태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시도 의의
 본 프로젝트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건축 형태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시도 의의
 본 프로젝트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건축 형태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시도 의의
 본 프로젝트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건축 형태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사이트 배치도

모빌 시스템
 모빌 시스템은 도시의 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ON-DEMAND TOWER
 ON-DEMAND TOWER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ON-DEMAND CITY IN 강한점



수거-상업간 물리적 공해 차단
 수거-상업간 물리적 공해 차단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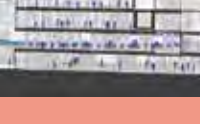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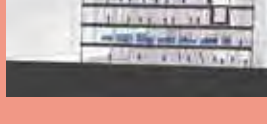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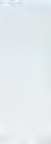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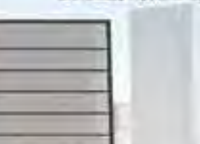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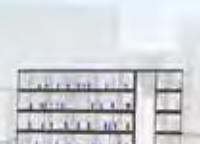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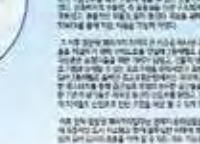
기본 자여문제 해결 및 이해 대원
 기본 자여문제 해결 및 이해 대원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새로운 진입로로 인한 가능성
 새로운 진입로로 인한 가능성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ON-DEMAND CITY
 ON-DEMAND CITY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ON-DEMAND CITY
 ON-DEMAND CITY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 계획부문

IMBUE THE PALETTE

서로의 색으로 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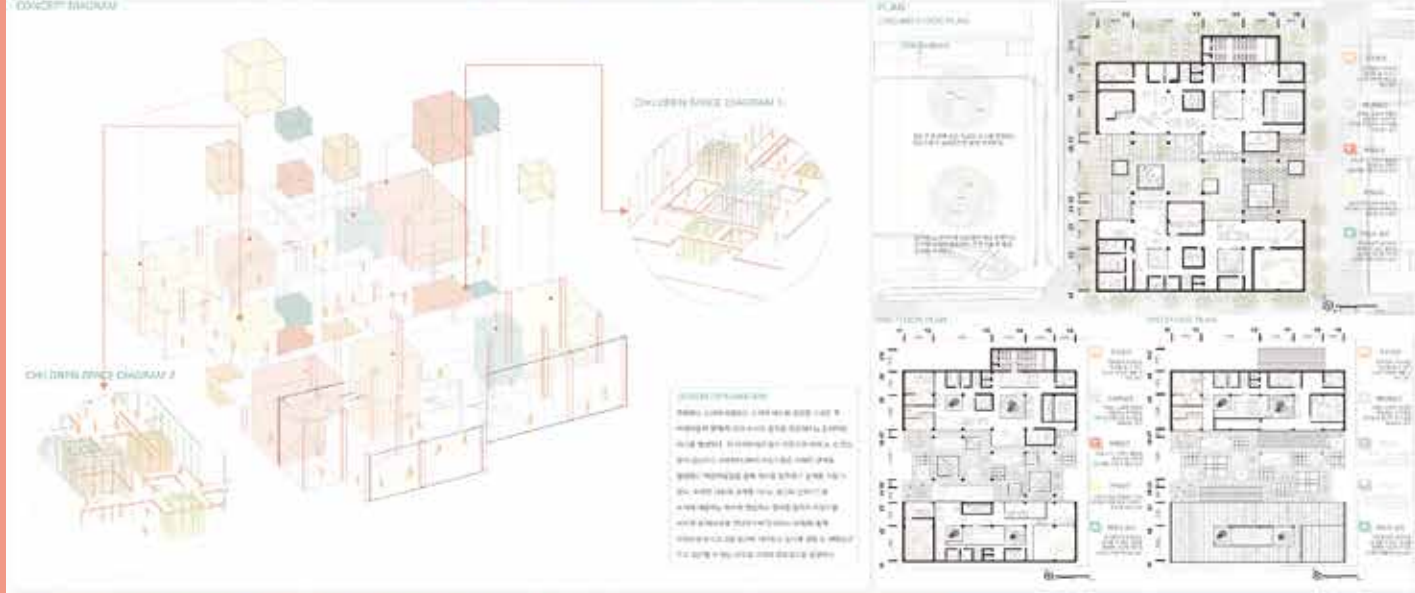
도시라는 사회적 영역은 기계화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 도래하였다. 기계화, 산업화로 많은 분야의 영역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람들은 편리함을 느끼고 더 효율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린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들의 공간마저도 도시 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다.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유로운 사고의 행위와 생활이 아닌 억압적인 생각과 행동의 성장기를 보내며 사회라는 틀에 갇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개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틀 안에 갇혀버림으로써 서로서로의 사회적 교류와 만남은 단절이 되어가고 사회의 모습조차 이 다양함이라는 가치를 담을 수 없는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삭막해져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강요하는 억압적인 태도가 아닌 어린이들의 다양한 색깔을 표출하고 사고할 수 있는 유연한 사회의 흐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대학교
김윤영, 이자윤, 강재렬

IMBUE THE PALETTE

: 서로의 색으로 물들어지다
NEW GENERATION - CHILDRUN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 계획부문

The Six Nests- The Future Responsiveness

서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혹은 가까운 미래의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미래의 변화는 복잡하고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의 변화로부터 안전할까? 미래의 서울은 인구의 감소와 유출로 도심은 축소되고 낙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래의 무더운 여름 날씨는 매년 최고온도를 갱신하며, 극심한 가뭄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불러왔다. 우리나라는 아열대화 되어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기후 변화에 우리나라의 생태계는 변화하고 이는 식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온난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환경문제들이 심화되면서 도시 속의 녹지 공간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쇠퇴하고 있는 서울을 한강의 중심으로 삼아 재조명 할 수 있는, 변화하는 미래를 예상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제안한다.



순천향대학교
전광우, 박승만, 신경훈

The SIX NESTS

The Future Responsiveness

서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혹은 가까운 미래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미래의 변화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봅시다.
 그중 가장 우려는 미래의 변화로부터 안전할까요?

미래의 서울은 인간의 삶속의 유용함으로 인간 도시의 속도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부채로 인해 우리는 자연 도시의 가치를 인식하며,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이 기후 회복을 위한
 일과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후변화에 따라 기후 변화는 불가피하고 이는 서울의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러한 접근 속에서 다양한 도시를 서울을 인간의 삶속으로 변화 시키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 회복을 구축해야 합니다.

PROBLEM OF ISSUE

1. # ENVIRONMENT



2. # SOCIAL ISSUE



CONCEPT

1. # PLAN CONCEPT



2. # DESIGN CONCEPT



SYNTHESIS OF SPACE



THE CRITICAL POINT



Address : 014, Dongsu-ro, Gangseo-gu, Seoul

Area : 12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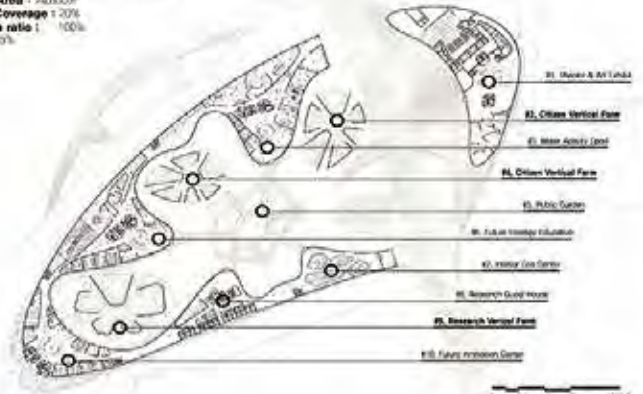
Building Purpose : Culture & Recreation Center

Building Area : 74,000㎡

Building Coverage : 20%

Floor area ratio : 100%

Level : 2.5%



FRIST FLOOR SITE PLAN

ELEVATION CHARACTER

RESEARCH Vertical Orchard	EDUCATION Creative Activity	EXPERIENCE Creating Curiosity	ACTIVITY Connect Interchange	CULTURE Special Interchange
---------------------------	-----------------------------	-------------------------------	------------------------------	-----------------------------

VERTICALITY ECOLOGY FARM

TYPE A #274 Urban Vertical Farm	TYPE B #6 Research Vertical Farm
---------------------------------	----------------------------------

VERTICALITY PUBLIC GARDEN

TYPE A #8 Public Entry Deck	TYPE B #5 Public Entry Deck
-----------------------------	-----------------------------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 계획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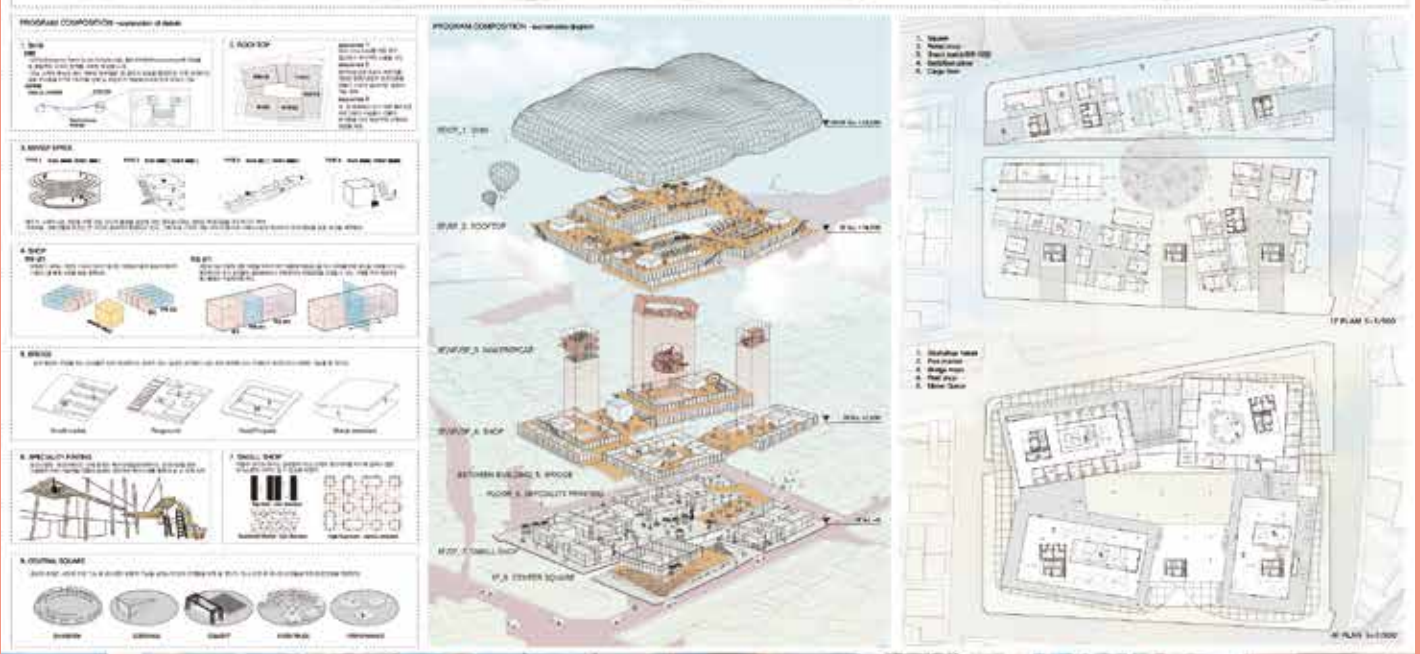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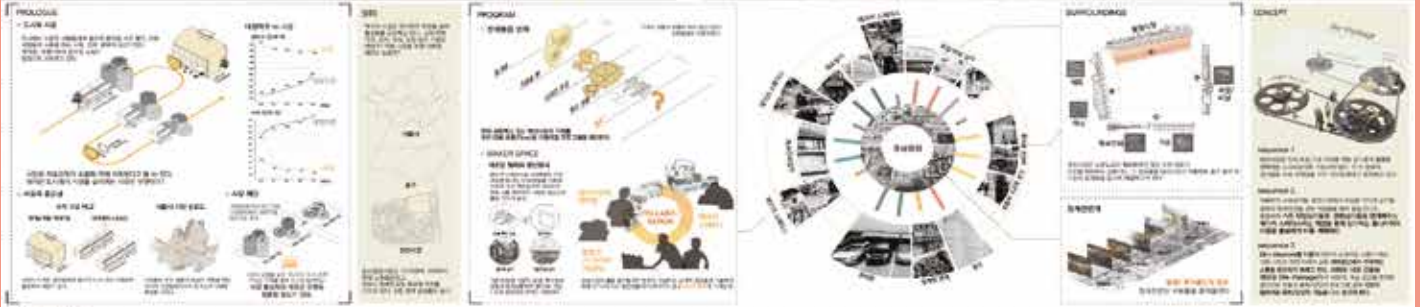
Re-package

특수인쇄밀집지역 방산시장활성화 제안

도시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과거에 사람들이 농경생활하게 되면서 한 곳에 정착해 모여 살면서 도시가 생겨났다.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걸 만들기 힘들었고, 필요에 의해 서로 물건을 사고 팔아왔다. 그렇게 사람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났던 곳이 시장이다. 그래서 도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온 시장에 대해서 주목했다. 시장은 도시와 역사를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시장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도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해 유통의 과정이 바뀌었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등장으로 시장의 기능은 쇠퇴하고 있다. 아니,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새로운 시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시와 역사를 함께해온 시장의 쇠퇴를 자유경쟁의 흐름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까? 도시와 함께 해온 시장을 미래의 흐름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RE] PACKAGING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시흥시장상

- 계획부문

RAIL-CROSSING PLAYGROUND

작품은 도시 속 철로 주변 공간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도시 속 철로 주변 공간 건축은 철로의 특성과 조화되는 프로그램이나 형태의 반영이 부족했다. 철로의 선형적인 특성과 과거에 운송을 담당했던 기능을 고려했을 때, 스트리트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이 철로 주변 공간에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철로 양쪽에 스트리트 마켓을 배치했을 때, 철로 공간을 건널목처럼 지나다니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차가 지나가지 않는 폐철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기존 평택국제중앙시장에서는 상점에서의 일방향적인 판매 행위가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RAIL-CROSSING PLAYGROUND의 마켓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플라마켓, 예술가들이 공방에서 작업하여 판매할 수 있는 1인 공방 마켓 등 조금 다른 형태의 마켓을 통해 '시장'이라는 이 지역의 특색을 더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폐철로를 따라서 스트리트 마켓을 배치하고 주변에 어른을 위한 놀이 공간을 배치하여 시장이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시장에서 크면서 자랐던 어린 시절의 공간을 재현하였다. 1인 공방 마켓 등 조금 다른 형태의 마켓을 통해 '시장'이라는 이 지역의 특색을 더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폐철로를 따라서 스트리트 마켓을 배치하고 주변에 어른을 위한 놀이 공간을 배치하여 시장이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시장에서 크면서 자랐던 어린 시절의 공간을 재현하였다.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시흥시장상

- 계획부문

Happy Ending: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삶과 죽음의 공존공간 -호스피스 계획

호스피스라는 다소 묵직한 주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죽음관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결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Back to the Born'이라는 그라운드 컨셉 (Ground Concept)이 생겼다. Back to the Born은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되게 땅으로 돌아가자.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그곳으로' 라는 생각의 결과이며, 이는 다소 신성적이거나 묵직하게 고려되어야 할 주제로 내딛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는 곧 배치 개념에서도 적용되어, 사이사이 Born space라고 명명한 움푹 패인 외부 공간이 호스피스 생활공간 이외에 산책과 동시에 휴식의 공간이 된다. 건물 크기 만큼 파져있는 공간에서 땅으로 돌아가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죽음에 대한 해석을 나타내었다.



충북대학교
도예린, 박철수, 정지현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상

- 계획부문

URBAN FLOW

동대문 미군기지 이전 지역 교육 문화 계획안

동대문은 오랜 기간 의류디자인이라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상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멍가게부터 DDP 라는 매시브한 랜드 마크까지 다양한 크기의 매스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획한 부지는 군사시설로 주변과 무관한 프로그램과 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담벼락과 북쪽으로 길게 들어선 평화시장이 사이트를 주변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의 건물은 오랜 시간을 지나서 많이 낙후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이선행, 이지혜, 김혜림

URBAN FLOW_ 동대문 미군기지 이전 지역 교육문화계획안



PROLOGUE

동대문은 오랜기간 외류디자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삼강이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구명가계부터 다다미라는 매시보통 텐드마크까지 다양한 크기의 테스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사이프는 주변과 무관한 군사시설로 이용되어 왔고, 미군기지의 이전계획으로 인해 거대한 부지가 재개발이 되었을 때 주변과 조화로운 테스디자인과 이 지역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인 하류디자인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계획이 필요하다. 이미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업시설보다는 동대문의 아이덴티티의 유류 디자인과 관련한 교육시설을 선행하여 디자인에카라는 지역의 상업, 교육, 문화가 아우러지도록 계획하였다.

SITE PLAN



SITE ANALYSIS



SITE PROBLEM



PLAN



CONCEPT_ URBAN SCALE & SKYLINE PLAN



MARKET DESIGN



GREEN CONNECTION



SKYLIGHT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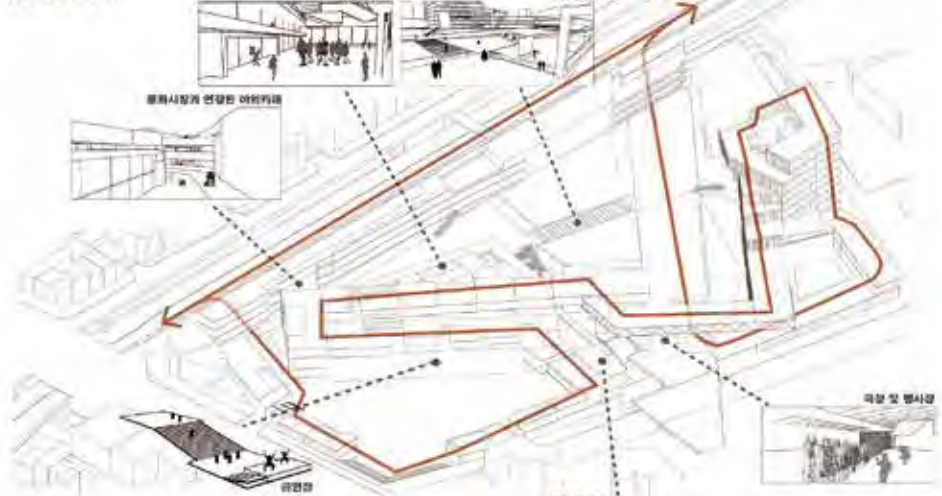
STRUCTURAL



MASS PROCESS



ISOMETRIC



SECTION



ELEVATION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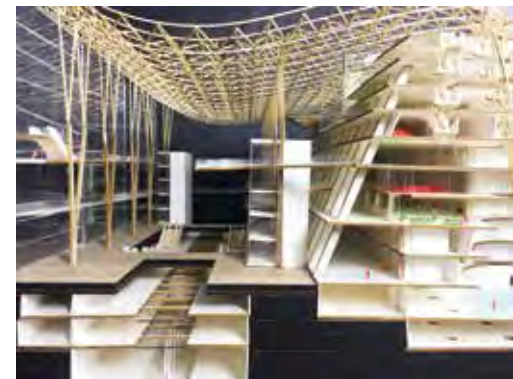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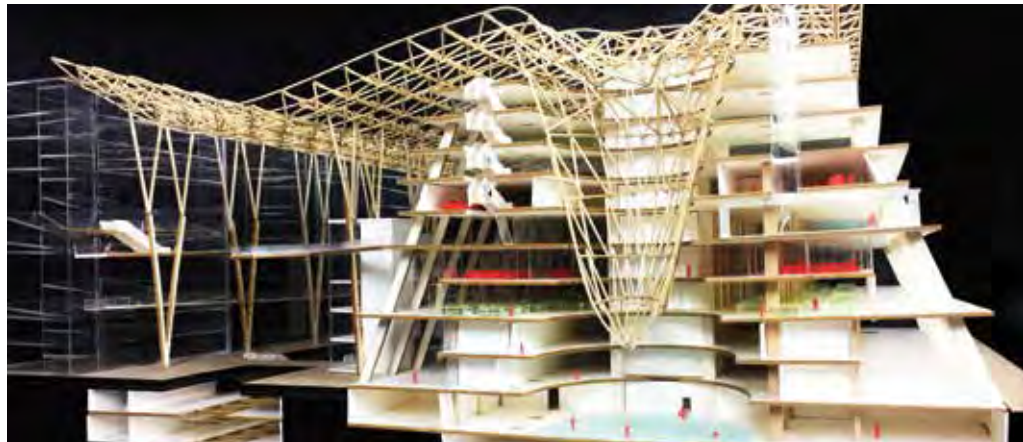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장상

- 계획부문

NEXT-STOP, HIGH SQUARE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사이공간 재계획으로 기존 도시흐름으로 재편입

작업의 시작은 현대 도시의 맥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현대의 도시는 과거의 건축이 주로 다루던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영역이 도시의 핵심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 때문에 현대 도시는 이중적인 흐름의 구조로 구성되는데, 이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정보의 흐름'과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의한 흐름'이다. 특히, 인프라스트럭처는 도시민의 다층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복합화를 통해 사람들의 흐름을 유동적으로 구축한다. 그렇기에 도시적 스케일에서 흐름의 중요한 결절점이 되는 교통 공간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면서 흐름의 중요한 노드 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동성의 중심이 되는 교통 공간과 그 것이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서 'FLOW-도시와 건축'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존 도시 '흐름'과 깊숙이 호흡할 수 있는 '확장의 흐름'개념을 제안함으로써 본 공모전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성균관대학교
나용훈, 김지원

NEXT STOP HIGH SQU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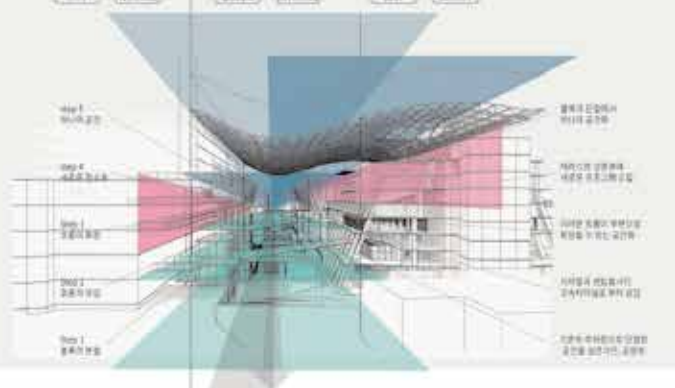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사이공간 체계적으로 기존 도시환경으로 재편입



TOTAL VIEW



DESIGN CONCEPT



이 프로젝트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사이공간 체계적으로 기존 도시환경으로 재편입을 위한 것으로, 기존 도시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사이공간 체계적으로 기존 도시환경으로 재편입을 위한 것으로, 기존 도시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사이공간 체계적으로 기존 도시환경으로 재편입을 위한 것으로, 기존 도시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사이공간 체계적으로 기존 도시환경으로 재편입을 위한 것으로, 기존 도시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사이공간 체계적으로 기존 도시환경으로 재편입을 위한 것으로, 기존 도시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LAN STRATEGY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경기도시공사장상

- 계획부문

함께이길

거주자와 외국인의 복합 공원 조성 프로젝트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은 많은 물리적 환경요소와 사회적 환경 요소의 문제점이 있다. 그 중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둔포면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타 지역 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 또한, 계속해서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대두되는 문제이며, 전반적으로 둔포면 자체의 공원 부지의 비율과 주차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의 문제점은 곧 둔포면의 기회 조건의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외국인과 현 거주자를 위한 공원 녹지 및 길거리 조성 활성화 계획을 진행하였다. “길을 걷다”는 의미와 “영원히 함께이길”이라는 중의적 표현의 함께이길 계획은 둔포면 둔포리 중심지의 대상지이며 둔포면 중심으로써, 공공 시설 및 한국인이 이용하는 하나로 마트와 외국인이 이용하는 마트가 존재 대상지내의 많은 유동인구 와 싸전거리로부터 확산되어 질수 있는 강점을 이용하여 외국인-거주자를 엮어주는 공원을 활성화하고 길을 연결하여 둔포면 전체에 “생기”를 불어 넣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이다.



남서울대학교
이종철, 정선우, 박동규

URAN RECOMBINATION

거주자와 외국인의 복합 공동 조성 프로젝트

본 시안은 배후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유출된 부유층을 유치하고, 중산층이 중심이 되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존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고 새로운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고 새로운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함께이길



MASTER CONCEPT

본 시안은 배후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유출된 부유층을 유치하고, 중산층이 중심이 되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존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고 새로운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고 새로운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ANALYSIS

VISIT KOREA A CRIME RATE

THE YEAR BEFORE LAST THE PRESENT

DUNPO PROBLEM

PROBLEM

HANARO MART	EXPERIENCE CENTER	FOOD MALL	GARDEN PLAN
<p>BEFORE</p> <p>AFTER</p>	<p>BEFORE</p> <p>AFTER</p>	<p>BEFORE</p> <p>AFTER</p>	<p>BEFORE</p> <p>AFTER</p>



PLAN

* FOOD MALL FLOOR PLAN
 * CAFE FLOOR PLAN
 * EXPERIENCE CENTER FLOOR PLAN
 * HANARO MART FLOOR PLAN

AXONOMETRIC

MASTER PLAN - SITE 1ST FLOOR

SECTION - MAIN BRIDGE

SECTION - SUB BRIDGE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계획부문

을지로, 르네상스를 맞다

오래된 을지로의 산업가로를 활용 및
지원하는 산업문화플랫폼 제안

과거 도시재건을 위해 시작한 을지로 거리는 시간의 켜를 가진 채 각 거리별마다 자재들이 열기설기 모여있다. 이러한 을지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공구·타일·도기·조명·금형·미싱·가구 등은 특화거리를 이루고 있을 만큼 집중되어 분포해 있다. 이른 오후부터 암전되는 을지로이지만 최근 을지로는 산업화의 땅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새 예술가의 동지로, 청년창업가의 실험실로 다양한 재탄생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모든 곳을 구할 수 있는 을지로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을지로의 어려운 제조업을 살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과 문화를 접목시킴으로써 을지로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계획부문

Dream box

내부공간의 외부화를 통한 새로운 교육 활성화

Prologue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딱딱한 학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탈규격화 된 공간을 통하여 아이들의 말랑말랑한 사고를 더욱 열어주고 장래희망이 탄생할 수 있는 Dream Box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홍익대학교
김은주, 배소정, 문인지

DREAM BOX FOR ENCOURAGING MOVEMENT

내부공간의 외부화를 통한 새로운 교육공간 활성화 & 외부공간의 내부화를 통한 놀이공간 활성화

NEW PLAYGROUND - DIFFERENCE IN SCHOOL SPACES DENSITY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NECESSITY NEW SCHOOL SPACES FOR COLLECTIVE INTELLIGENCE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EMERGENCE OF NEW CLASSROOM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CHANGE IN SCHOOL SPACES BY SMART EDUCATION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PLUG PROCEED FOR SPACE AND SPACES EXPANSION

PLAN TRANSITION FOR SPACE TO BE OPENED UP

SECTION TRANSITION FOR SPACE TO BE OPENED UP

COLLAPSE TRANSITION FOR SPACE TO BE OPENED UP

NEW PROGRAM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NAME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AREA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DATE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CLIENT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DESIGNER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LOCATION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STATUS	1000-1500 / 1000-1500 / 1000-1500

SECTION TRANSITION FOR SPACE TO BE OPENED UP

COLOR PALETTE FOR SPACE TO BE OPENED UP

FLYING TRANSITION FOR SPACE TO BE OPENED UP

STRUCTURE TRANSITION FOR SPACE TO BE OPENED UP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계획부문

영동시장 속 시장 이야기

새로운 시장 플랫폼 제안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슷한 질의 품질이 대량생산하여 분배가 가능해졌다. 이를 모두가 비슷한 선에서 사용하는 공평성을 위해 근 몇 년간 우리는 복제와도 같은 대량생산을 진행했다. 하지만 기술뿐만 아닌 경제의 성장으로 현재는 개인과 공공성의 의미가 확대되고 중요시 되었다. 이는 건축에서 더 이상 양을 추구하기 보단 공간의 질을 추구하는 추세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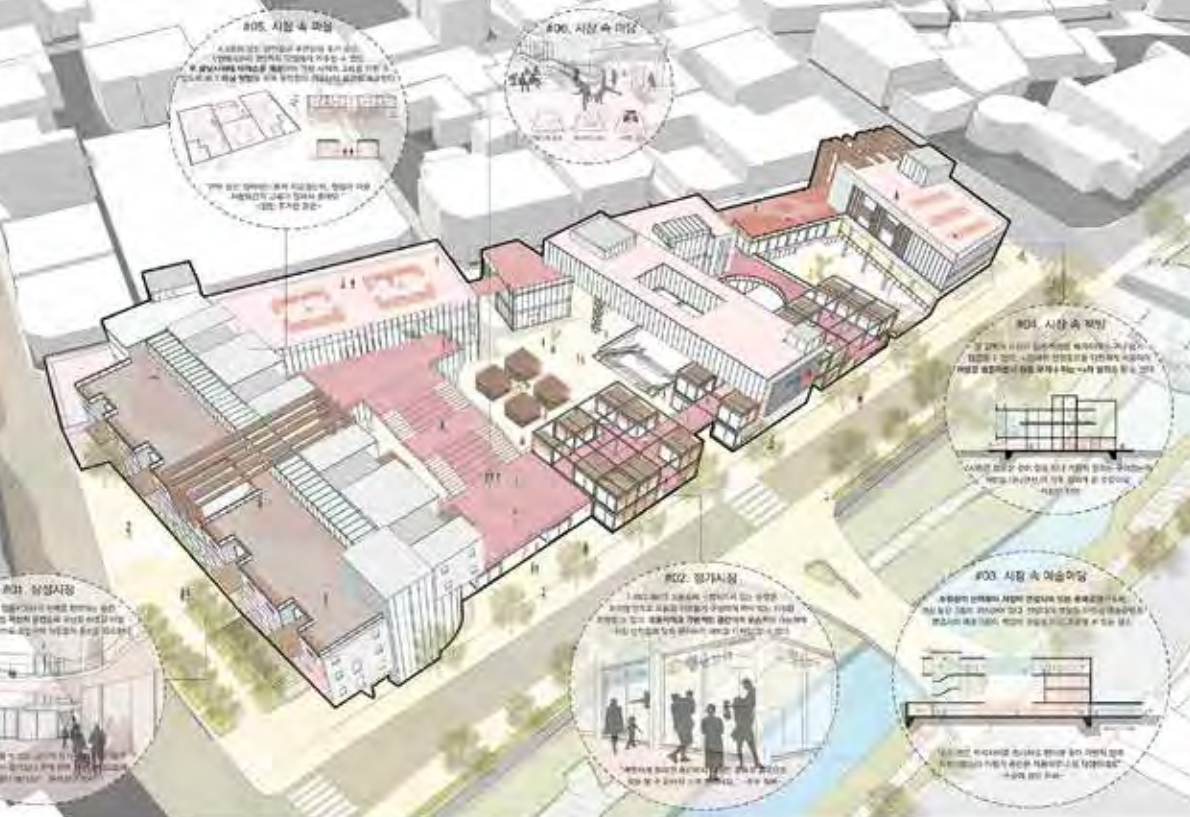
가천대학교
곽주영, 신현지, 김희정

영동시장속 시장 플랫폼 제안

새로운 시장 플랫폼 제안

영동시장속 시장 이야기

영동시장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새로운 시장 플랫폼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텍스트입니다.



MASS PROCESS



SITE



CONDITION & PROBLEM



PLAN



SUGGESTION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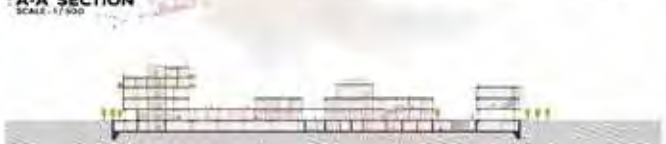
ISOMETRIC



PERSPECTIVE



A-A SECTION



입선

소속 및 성명		주제
선문대학교	전승아	Molten play in NATURE
두원공과대학교	한진희	Give and take
경기대학교	김민서, 김민철, 배민경	네번째집
이화여자대학교	김수진	URBAN SPRING
고려대학교	조호진, 박수지	Memory Scape
남서울대학교	변재웅	URBANISM UNITE HOUSING(둔포면 상업지역 재생계획안)
명지대학교	오현찬, 우종성, 박동한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
남서울대학교	정희수, 박지수	뿔루이러지는 길
성균관대학교	김민규, 김지수, 이가치	경작(서울을 지배하다, 쌀을짓다)
명지대학교	이지원	CITY OASIS Connect the urban landscape
충북대학교	정대웅, 배규민, 이현수	오늘의 운동장
중부대학교	김영우	소통: 작은 학교로 통하다
신구대학교	정나연, 김성훈	Time Capture
신구대학교	정승철, 임정현	Sociality
신구대학교	김윤기, 유성우	Happy Integration Active Life
신구대학교	박경식, 유지나	SOCIALIZE: 어울리다
경희대학교	이한빛	Revival of Memory_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
성균관대학교	지서연	도자기, 역사를 담다 자연을 닦다
명지대학교	김유나	Blur-경계를 흐리다
성균관대학교	이지민	머무름을 생각하다-회현동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공간 만들기
한경대학교	김정효	사라진 땅의 이야기를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건축언어로 복원하다
건축사사무소 시건	이승훈	시장위에, 시장뒤에
동서울대학교	권주현, 박찬희	Flow of time:세월호 폐선박 재생을 통한 추모관 계획
성균관대학교	정세림, 홍정한	명동을 오르다:UPTURN
남서울대학교	신유나, 정수빈, 김준현	다시 한번의 부흥
명지대학교	지수현, 배승한, 민경찬	Commom sense is not common
공주대학교	박준서, 최지은, 이진일	비선형적 기억
신구대학교	김혜정, 선소혜	GREENERY
명지대학교	박상천, 한규선	Urban knotelinie
선문대학교	박용희, 우준용, 옥승아	교류:문화의 흐름을 잇다.(화성시 다문화센터 계획안)
선문대학교	김윤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공간(틀을 넓히다)
선문대학교	김대겸, 신초롱	내몰린그들이 쌓아갈 커-성곽길로 인해 낙후되는 지역 재생 프로젝트
인천대학교	유하연, 노영현, 홍은기	노리;터
공주대학교	차소정, 이건희	아름다움을 이랑에 물대(농사하며 만드는 우리마을 정원)
공주대학교	전나해, 김성현, 정근웅	문래예술역
신구대학교	조성진, 문예준	CITY IN ALLEY
신구대학교	이지환	광나루한강문화시설 및 풍납토성 박물관
공주대학교	조민규, 성재호	소소한 마을의 據; 일상의 흐름으로 주민과 소통하다
홍익대학교	서성민	YANGON CULTURAL CENTER
남서울대학교	김승규, 이수연, 전현진	닦다, 담다

소속 및 성명		주제
성균관대학교	진보라	서촌 실험적 문화공간
인하대학교	공성욱	다시새로이RE:NEW
계원예술대학교	김다슬, 이다희, 김정민	The tail of sandbank
경기대학교	이다슬	지동으로 만나다
홍익대학교	유태호, 장수영, 고영빈	회기;돌아가다
가천대학교	송가영, 남희주, 박봉상	BEYOND GREEN
명지대학교	김종환	X,S,M,L
명지대학교	공은호, 이학성	광하문과 공생하는 콘서트홀:VOID와 SOLID를 통한 새로운 문화, 상업 공간 제안
가톨릭관동대학교	권근애	쇠퇴한 도심 철도변 배후지역, '잃어버린 공간'을 통한 활성화
명지대학교	김봄, 이준태	Green Flow Village
충북대학교	이상구, 김준호, 장혜원	노후화 된 소규모아파트 지속가능성 제안
충북대학교	김성희	북촌9경, 문화이정표(모두가 공존하는 정독도서관 앞 활용방안)
충북대학교	정현영, 최근웅, 최광선	그곳에 반하여 그리고 그곳에 반하여
충북대학교	단성훈, 손대열, 금재현	미완의 완성
중앙대학교	김진관, 장광민, 송영진	Plan V; Geometry of Alter-natives
중앙대학교	장재원, 홍현준, 오민석	The Tentative Area in urban flow
중앙대학교	김동훈	Black Gate
중앙대학교	임충호	사유(思維/私有)의 여행
한양대학교	김민지	기웃 도서관: 기웃거림의 골목 도서관
서울대학교	이주선, 오종기	HH Market Hall
한경대학교	홍은지	영단주택 셋방 커뮤니티
인하대학교	홍민지	더불어 사는 삶, 공유
인하대학교	서창석	CONNECT: Past, Present, Future
인하대학교	김현준	도시 생장의 탈주선(脫走線):주체의 부재
한양대학교	김현오, 이화성, 강민우	URBAN PRISM
홍익대학교	성주엽, 박준우, 유주예	이접적 누적을 통한 행동하는 도서관
홍익대학교	정승은, 김동현, 김대운	E-Scape도심 탈출 자동화 스케이프
홍익대학교	천윤필, 유현우, 이경준	이질적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시설 제안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강메아리, 신수진, 정의진	수원화성 CULTURESCAPE
경희대학교	이승우, 김도형	수원여성문화원 리노베이션:Flow down
성균관대학교	권혁준, 송이새	순성(巡成):한양 도심 박물관
중앙대학교	김태양, 김태관	The Basement-예배당의 소멸
중앙대학교	기민지	이화美路
중앙대학교	윤정원, 김준호	버려진씨앗 피어난꽃;자생적 시스템의 고아원
중앙대학교	추성일, 박진희	UNION ARCADE
중앙대학교	최형규	Book Valley
공주대학교	김성윤	Interactive data ground(소외된 커뮤니티 약자들의 수평적 관계회복)
한경대학교	김한주, 장교은, 김성수	고미술로 길에서 만나다
이화여자대학교	이미성	서소문 워크숍
이화여자대학교	이지윤	공감
이화여자대학교	홍희원	Democratic City
건국대학교	김명준	Independent Movie Gallery

심사평

- 계획 부문



매년 양과 질적 성장을 해 가는 건축문화대상행사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올해 접수된 작품들은 수적인 면에서나 그 작품의 수준에서나 예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었습니다. 제출된 작품 중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작품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0개의 작품은 발표 및 토의로 최종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모두 일정한 수준에 달한 우수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종에 오른 2작품은 열띤 토론을 벌일 정도로 경합을 벌였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행촌동 성곽마을”작품은 서울성곽에 면한 도심 속 마을로, 현재 도로로 인해 성곽과 마을이 단절된 경관이 단조로운 마을입니다. 설계자는 이 마을을 비움, 확장을 통해 입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멋진 도심 마을로 재생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정부가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현 수단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작품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서 더욱 높이 평가합니다. 비움을 통한 공공공간과 녹지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 채움을 통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 도로에서의 입체적인 진입, 이동과 머무를 통해 소통하는 공간의 창출하는 과정이 현실적이어서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이디어가 향후 우리나라 도시재생계획의 과정에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대상과 경합을 벌인 금상 작품도 매우 우수한 작품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해소를 위한 안양 도심속 예술문화 플랫폼 계획”은 안양예술공원 주변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원개발에 대한 주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관악산과 삼성천과의 소통을 매개로 한 예술문화 플랫폼 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이 좋은 계획안이 좀 더 세련된 건축표현으로 이루어졌다면 더욱 돋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심사위원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

본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학생들과 지도하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상을 구분하지 않고 수상한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상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그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더욱 정진해서 향후에는 더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모든 과정을 주관한 준비위원회와 같이 심사한 심사위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위원장 이규인

2017 경기건축문화제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일반부

대 상 이용규
최우수상 오춘교
우수상 박비오
우수상 정동화
우수상 이남수
장려상 이연정
장려상 임지환
장려상 김 욱
장려상 김지수
장려상 김소연
시흥시장상 김 욱
특별상 이건엽
특별상 이성우
특별상 이유신
특별상 김 욱
특별상 김종구
특별상 김희수
특별상 박비오
입 선

학생부

대 상 최 건
최우수상 권서인
우수상 박은기
우수상 김문주
장려상 박현우
장려상 권지영
시흥시장상 임채민
시흥시장상 배서윤
특별상 박은기
특별상 염성채
특별상 권승영
특별상 최 건
특별상 이재영
특별상 이서영
특별상 임동재
입 선

심사평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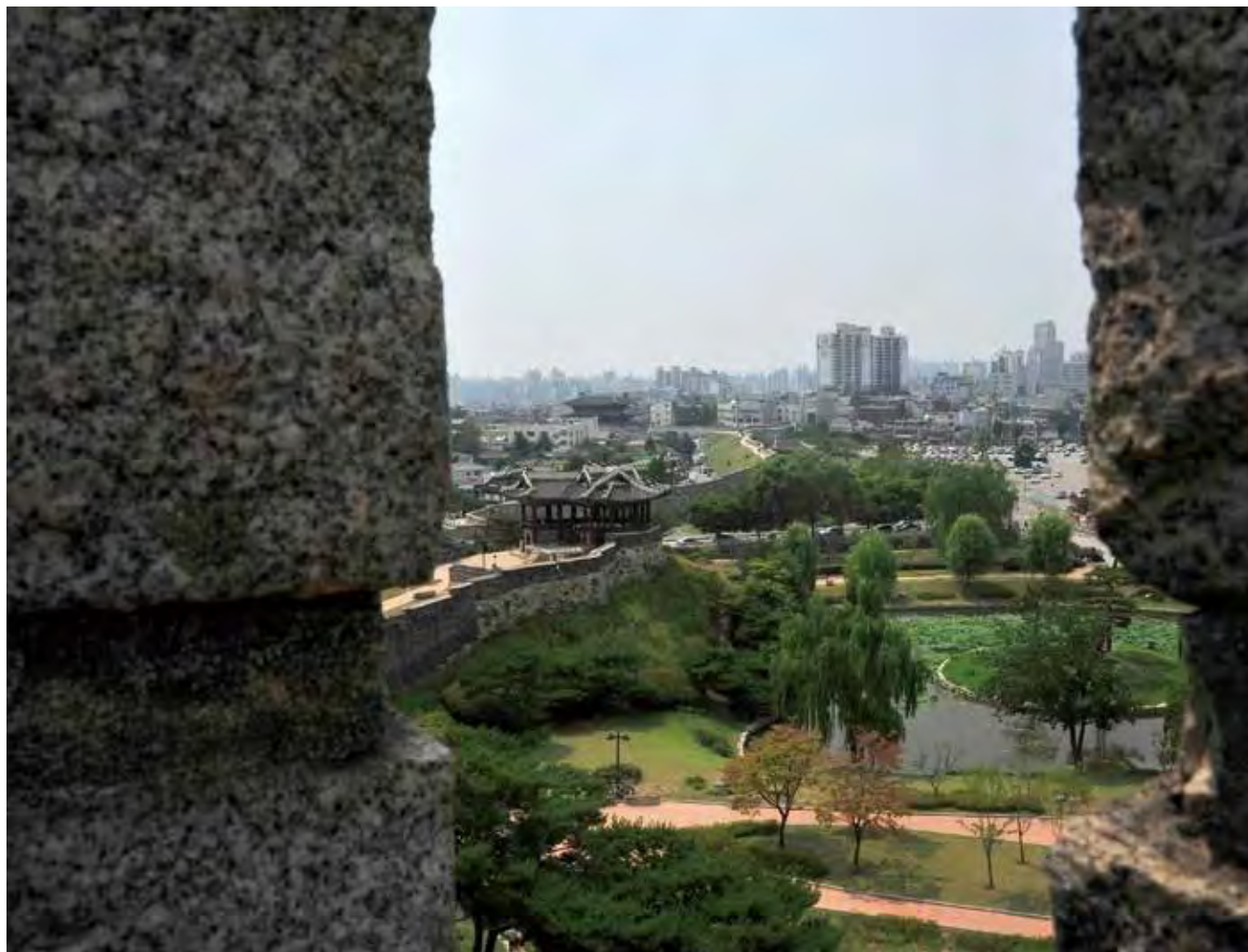
— 일반부



이용규
수원월화원

최우수상

— 일반부



오촌교
수원화성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우수상

— 일반부



박비오
수원영통

우수상

— 일반부



정동화
하늘스타필드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우수상

— 일반부



이남수
시흥갯골

장려상

— 일반부



이연정
부천만화박물관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장려상

— 일반부

100



임지환
수원화성

장려상

— 일반부



김욱
파주출판단지

장려상

— 일반부



김지수
백남준아트센터

장려상

— 일반부



김소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시흥시장상

— 일반부



김 욱
광고이브뉴프랑

특별상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상

— 일반부



이건엽
용인경희대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특별상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사회장상

— 일반부



이성우

파주롯데프리미엄아울렛

특별상
경기도시공사장상

— 일반부



이유신
수원장안문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특별상

내경기지역
본부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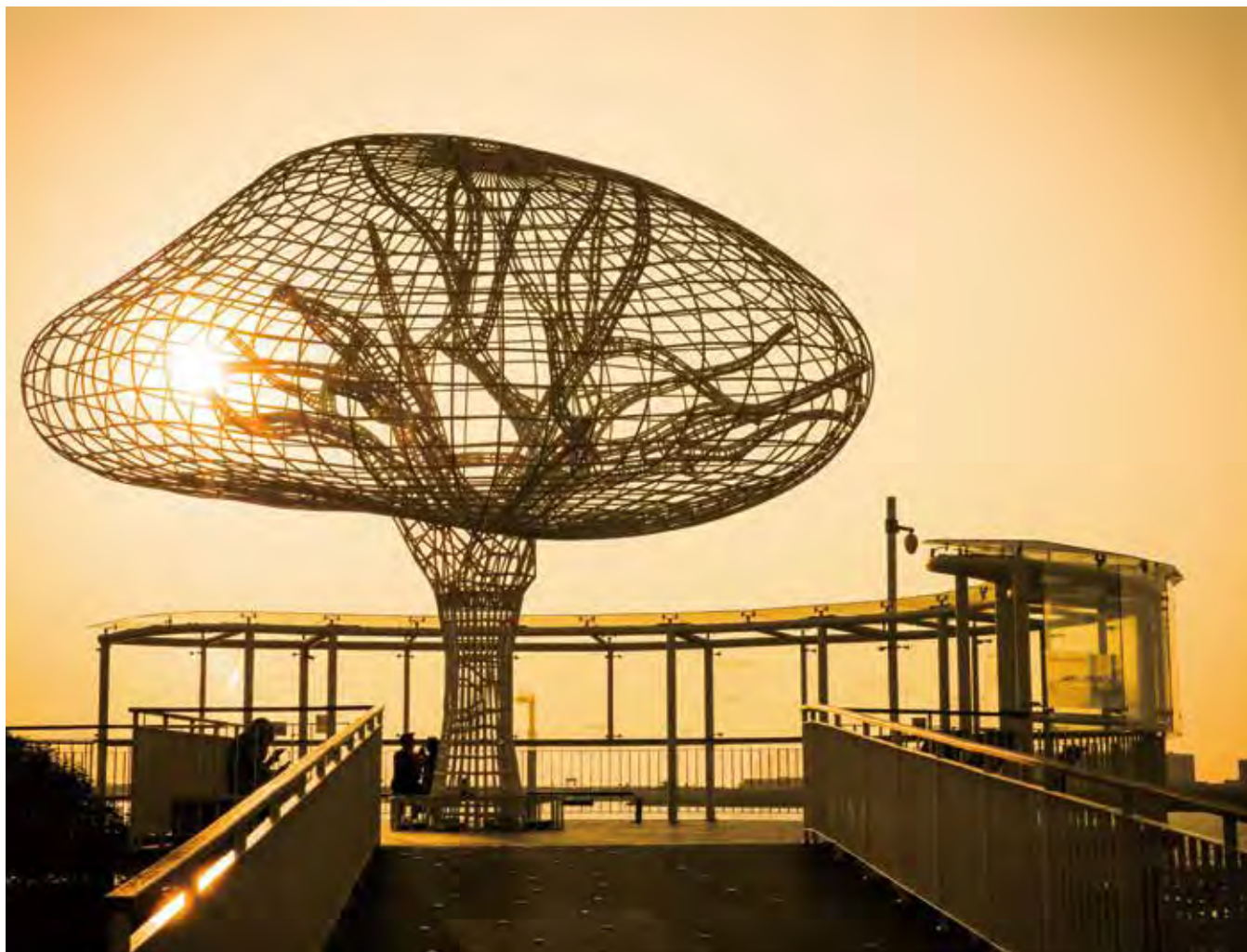
— 일반부



김욱
광교아브뉴프랑

특별상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일반부



김종구
시흥오이도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특별상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일반부



김희수

가평아침고요수목원

특별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일반부



박비오
성남은중동

입 선

— 일반부



거주지역	성명	작품주제 촬영지
안산	서동호	한양대애리카앰퍼스
대구	임윤아	한양대애리카앰퍼스
수원	박비오	연천전곡선사박물관
수원	이용규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서울	백준호	일산킨텍스
안양	구영규	시흥시청
군포	김선길	화성소마갤러리
군포	김선길	쁘띠프랑스
용인	민혜경	시흥갯골생태공원
시흥	조태현	용인지앤아트갤러리
시흥	이진용	수원광고
군포	김솔희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수원	서상덕	화성행궁
부천	최인영	시흥영모재
군포	문덕수	일산
부산	박재용	판교테크노밸리
부산	이지환	이천세계도자기박물관
구리	신미식	수원방화수류정앞
안양	양승훈	수원가족여성회관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대상

— 학생부



수원공업고 2학년4반
최건
광고아브뉴프랑

최우수상

— 학생부



대경중 3학년1반
권서인
수원화성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우수상

- 학생부

116



분당중 2학년5반
박은기
수원화성

우수상

— 학생부



안양예술고 1학년3반
김문주
안양평촌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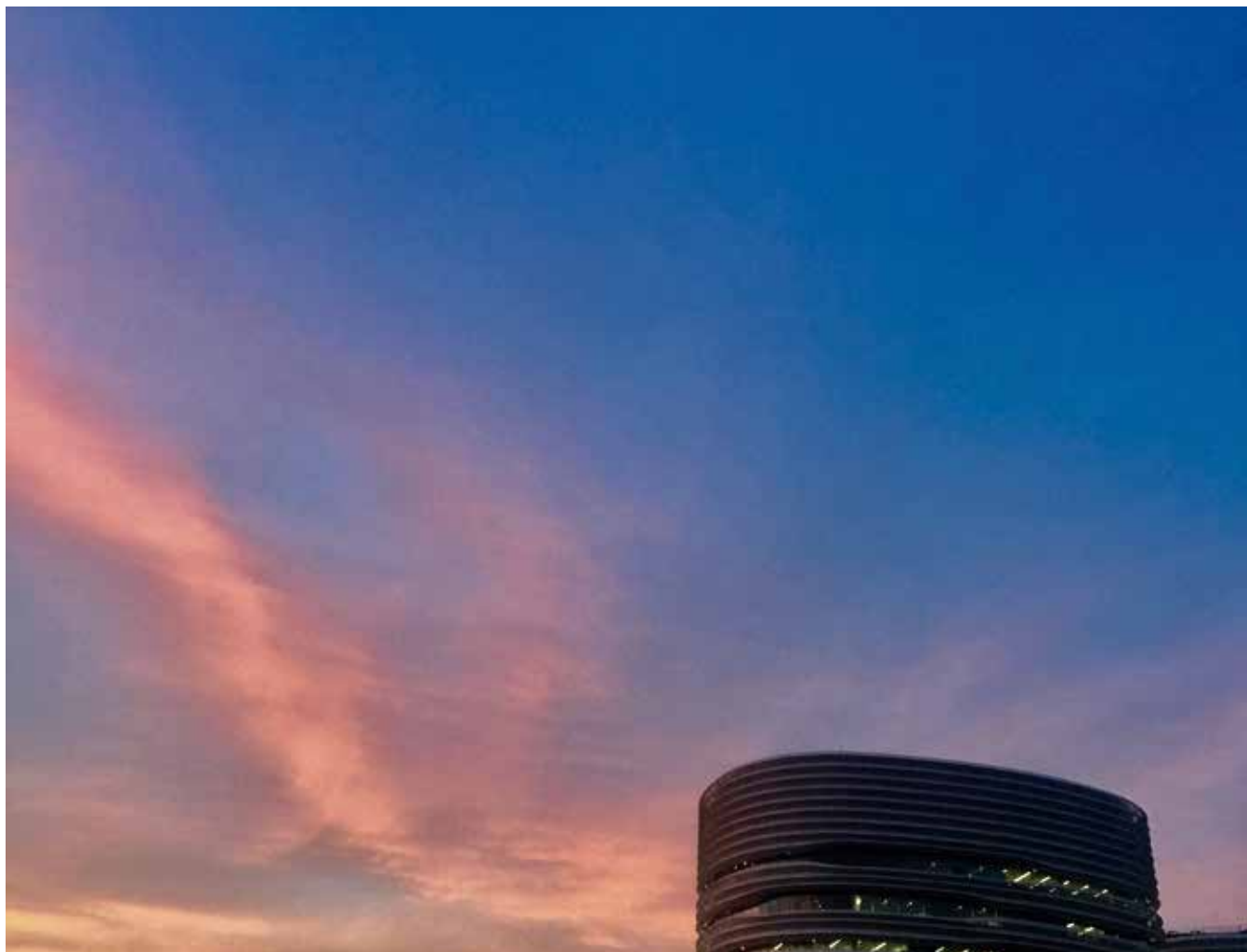
- 학생부



안양예술고 2학년3반
박현우
메타폴리스

장려상

— 학생부



창현고 1학년12반
권지영
창현고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시흥시장상

- 학생부

120



창현고 2학년7반
임채민
수원영통

시흥시장상

— 학생부



풍덕고 2학년6반
배서윤
파주영어마을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특별상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상

- 학생부



분당중학교 2학년5반
박은기
수원화성

특별상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장상

— 학생부



수원공업고 3학년1반
염성채
수원광고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특별상
경기도시공사장상

- 학생부



수원공업고 1학년2반
권승영
광고아브뉴프랑

특별상
내경기지역
본부장상

- 학생부



수원공업고 2학년4반
최건
광고아브뉴프랑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특별상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학생부



수원공업고 1학년4반
이재영
광명역



특별상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학생부

창현고 1학년11반
이서영
롯데아울렛광고점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특별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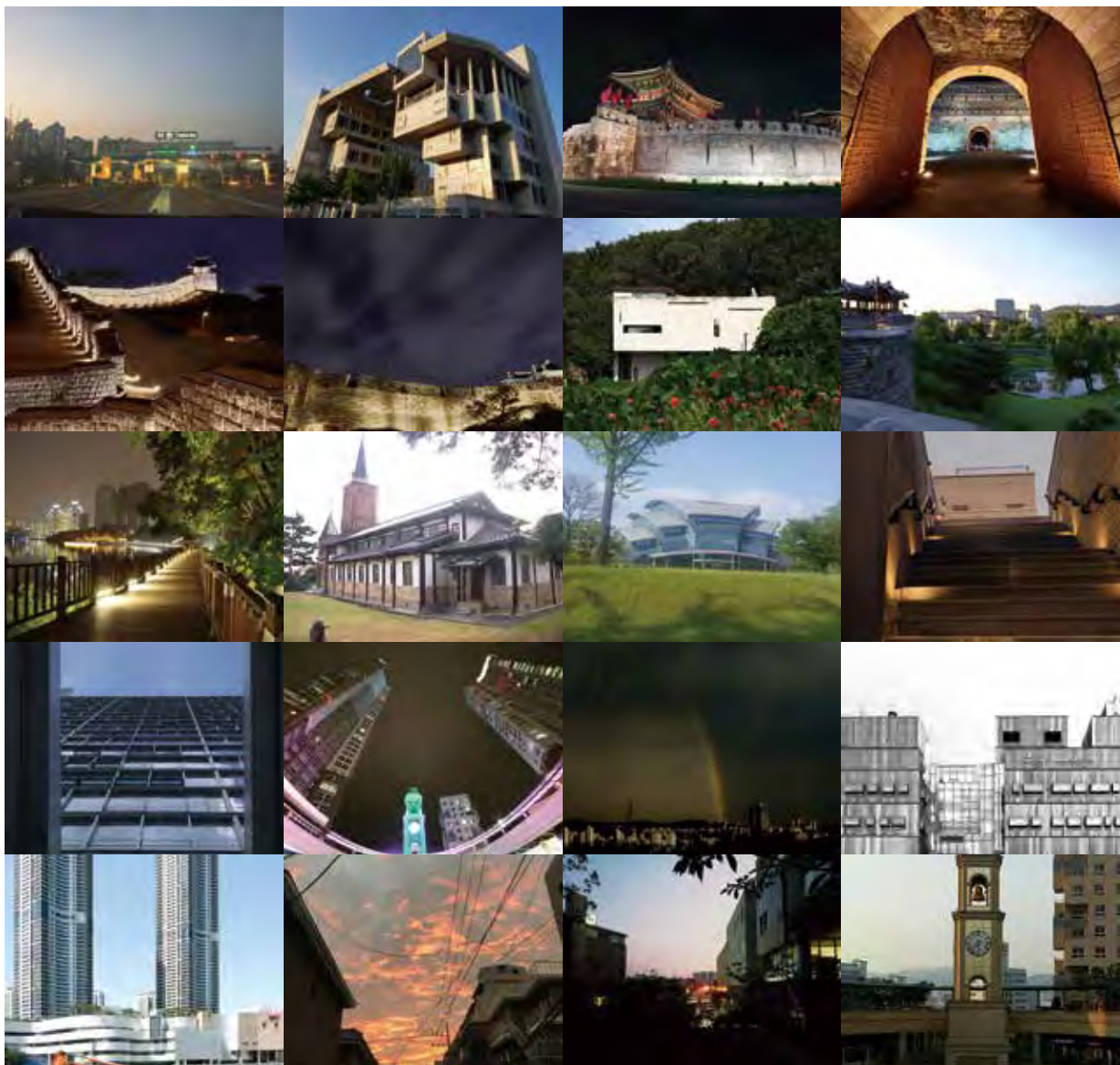
— 학생부



동백고 1학년4반
임동재
파주헤이리

입 선

— 학생부



입 선

- 학생부

거주지역	소속	성명	작품주제 촬영지
화성	안양예술고 2학년3반	박현우	동탄제일병원
화성	안양예술고 2학년3반	박현우	메타폴리스
수원	수원공업고 2학년3반	김예진	수원구운동
화성	수원공업고 2학년1반	김범훈	화성복지관
수원	수원공업고 1학년2반	윤건호	광고아브뉴프랑
이천	수원공업고 1학년2반	석지희	이천틀게이트
화성	수원공업고 1학년1반	이종명	화성플라리온스퀘어
화성	수원공업고 1학년1반	이종명	수원팔달문
수원	수원공업고 1학년2반	이찬혁	수원장안문
수원	수원공업고 1학년2반	이찬혁	수원화성
수원	수원공업고 1학년2반	이찬혁	수원화성
용인	동백고 1학년4반	임동재	파주헤이리
용인	초당중 2학년6반	임윤재	수원화성
화성	수원공업고 1학년2반	박지원	광고호수공원
수원	수원공업고 2학년1반	이해원	안성성당
수원	수원공업고 2학년1반	진우준	수원성균관대
수원	수원공업고 3학년1반	염성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서울	안양예술고 1학년3반	김문주	안양평촌
수원	창현고 1학년11반	이서영	광고월드마크
수원	창현고 1학년11반	이서영	광고호수공원

심사평

- 일반부/학생부

현대 건축은 주거,사회,경제,정치...등 모든 분야에서 일상의 문화공간뿐 아니라 편리성, 디자인, 환경, 예술, 모양새, IT에 무게를 두는 것, 즉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발전되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건축사진공모전은 “시간을 담은 도시, 건축”을 주제로 학생부 106점, 일반부 199점등 총 305점이 출품되어 사진작가협회 2명, 건축사진가 2명, 건축사 1명등 5명이 심사를 하여 학생부 36점, 일반부 39점등 총 75점을 선정 하였습니다

학생부 대상작인 “광고아브뉴프랑”은 외부의 빛을 최대한 받아 들이는 건축물로 유려한 곡선과 빛에 의한 그림자 처리등 건축물의 특징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인 “수원화성” 역시 고건축물의 특징인 능선, 나무, 사람을 고려한 특징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일반부 대상작인 “수원월화원”은 호행공원에 있는 한옥건물과 인접해 있는 현대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자칫 밋밋하게 표현될 수 있는 장면을 연못에 반영시키며 따뜻한 노을을 포착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수상 “수원화성”은 원근법을 이용하여 성곽의 틈을 통해 화성과 일부 시가지 모습을 조화롭게 표현한 작품으로 대상작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작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부의 수준이 학생부 수준보다 많이 높아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번의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은 일반부의 수준이 학생부보다 현저하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부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상금등 부상을 줄수 없기 때문에 우수한 작품이 출품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어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건축사진 공모전을 통해 현대건축의 발전과 사진인구 저변 확대에 노력해 주시는 경기도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리며 많은 작품을 모두 선정할 수 없어 애석하게 낙선된 모든 출품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 김 준 기

2017 경기건축문화제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역사건축

근대건축

현대건축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역사건축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격조 높은 집

김영구 가옥

A noble house with a history of hundreds of years
House of Kim Yeong-gu



주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1길 98(보통리)
 분류 역사·유적, 주거·숙박 시설
 연도 1753년
 건립자 미상
 관리자 김영구
 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지정일: 1984. 01. 14)

Location 98, Botong 1-gil, Daesin-myeon, Yeosu-si, Gyeonggi-do
 Division History & Relics, Residential & Accommodation Facility
 Year 1753
 Builder Unknown
 Management Kim Yeong-gu
 Designation Important folklore cultural heritage No.126(Date of designation: 1984. 01. 14)

한강이 멀리 내다보이는 터전에 자리하고 있는 주택이다. 안채, 사랑채, 작은 사랑채, 곳간채가 모여 'ㅁ'자를 이루고 있다. 원래 대문은 바깥행랑채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바깥행랑채가 헐려 남아 있지 않다. 안마당으로 통하는 중대문의 오른쪽에 'ㅡ'자형의 사랑채가 있고, 대문을 통해 안마당에 들어서면 안방과 대청을 중심으로 하는 'ㄷ'자형의 안채가 자리한다. 대청의 오른쪽에는 마루방·건넌방·부엌이 있는데, 부엌 옆에는 방 2칸과 마루가 있는 작은 사랑채가 돌출되어 있다. 작은 사랑채는 더러 있기는 하지만 아주 드문 것이 이 집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집의 뒤뜰에는 'ㅡ'자형의 광채가 길게 놓여 있다. 안방과 대청, 사랑방과 사랑대청에는 각각 분합문을 달아서 여름에는 열어 놓아 시원하게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마당의 중앙에는 화단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사랑채와 안채와의 직접적인 시선은 막고 있다. 집 앞으로 있던 'ㅡ'자형의 행랑채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이는 사대부의 개인 취향적인 우수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집을 지은 시기가 비교적 분명하고, 훈련된 목수가 기법에 따라 정성껏 지은 격조 높은 집이다.



The House of Kim Yeong-gu is situated at a site overlooking the Han River and faces south with mountains in the background. An Anchael(Main house), a detached house, a small detached house and a warehouse are gathered and form 'ㅁ'. Originally its main gate was in the servants' quarters, but it doesn't exist because the servants' quarters disappeared. On the right side of the inner gate leading to the inner courtyard, there is 'ㅡ'-shaped detached house. In the inner courtyard, there is 'ㄷ'-shaped Anchael(main house) including Anbang(main room) and Daechong(main floored room). On the right side of the Daechong, there are a floored room, the opposite room and a kitchen. Next to the kitchen, a small detached house including two rooms and the floor protrudes. Especially, small detached houses rarely exist in this house.

In the detached house, a large detached room, a large detached floored room, a detached room, and a floored room are disposed like 'ㅡ', and a Toenmaru(Veranda porch) narrowly lies in front. In the back yard, there is 'ㅡ'-shaped Gwangchae shed house. And there are Bunhap doors between Anbang(Main room) and Daechong(Main floored room), and a detached room and a detached floored room, which were conveniently used especially for the summer season. Flower garden and trees in the middle of the inner courtyard blocks a direct view between Sarangchae and Anchael. Although 'ㅡ'-shaped servants' quarters do not exist now, this house is thought to be an excellent building showing a personal taste of a noble man. This is a noble house that was elaborately built by a skilled carpenter according to an architectural technique and its construction time is comparatively clear.

새로 지은 명륜당의 독특한 구성

남양향교

A unique design of a Myeongryundang lecture hall
Namyanghyanggyo Confucian School



주소 경기도 화성시 글판동길15번길 18-3(남양동)
 분류 향교·서원·사찰
 연도 1397년
 건립자 조선 태조
 관리자 향교재단
 지정 문화재자료 제34호(지정일: 1983. 09. 19)

Location 18-3, Geulpandong-gil 15beon-gil, Hwaseong-si, Gyeonggi-do
 Division Hyanggyo-Seowon-Temple
 Year 1397
 Builder King Taejo of the Joseon Dynasty
 Management Foundation of local schools belonging to a Confucian shrine
 Designation Cultural heritage material No.34(Date of designation: 1983. 09. 19)

향교는 공자와 성현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남양향교는 조선 태조 6년(1397)에 음덕리 면역곡동에 처음 세웠다고 하며, 고종 10년(1873)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 옮겨 지을 당시에는 모든 건물들이 있었다고 하나, 동무·서무·명륜당이 없어졌다가 후에 명륜당만 새로 지었다.

건물 배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로 앞쪽에는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동재·서재가 있고, 뒤쪽으로 제사 공간인 대성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출입구 구실을 하는 내삼문·외삼문, 제사를 준비하는 수복실 등이 있다. 명륜당은 객사처럼 좌우에 날개를 붙인 평면으로 구성되어 독특하다. 대성전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Hyanggyo w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established by government, aiming to educate and reform local people and to hold Confucian services to honor Confucius and distinguished scholars. The original Namyanghyanggyo Confucian School was built in Myeonyeokgok-dong, Eumdeok-ri in 1397(the 6th year of King Taejo of the Joseon Dynasty) and relocated to its present location in 1873(the 10th year of King Gojong). When it was relocated, all of its buildings existed. After that, however Dongmu and Seomu dormitories and Myeongryundang lecture hall disappeared. Only Myeongryundang lecture hall then was newly built.

As for its disposition, there are an education space i.e., Myeongryundang lecture hall, Dongjae and Seojae in front and a service space i.e., Daeseongjeon shrine at the rear. In addition, Naesammun(inner three gates), Oesammun(outer three gates) and Suboksil that is a room for service preparation lie. Myeongryundang features a unique plan composition that wings are attached to the main building like Gaeksa(guesthouse) building. In Daeseongjeon shrine, there are the spirit tablets of Confucius and Chinese and Korean noted Confucianists enshrined.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역사건축

쓰디쓴 치욕의 역사 현장에서 시민을 위한 쉼터로

남한산성

A historical site full of bitterness and grief transformed into a rest area for the citizen
Namhansanseong Fortress

현재 남아 있는 산성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된 건축물로 손꼽힌다. 북한산성과 함께 수도 한양을 지키던 조선시대의 산성으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세자와 함께 성문을 열고 청나라에 항복한 '삼전도의 굴욕'으로도 유명하다.

처음 건립된 것은 신라 문무왕 13년(673) 때로 알려져 있다. 한산주에 주장성(일명 일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둘레가 4,360보로 현재의 남한산성을 이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후금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괄의 난을 겪고 난 조선시대 인조 2년(1624)이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성곽의 길이만 해도 11.7km에 달한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시설은 동·서·남·북문루와 서장대·돈대·보 등의 방어시설, 비밀 통로인 암문, 우물, 관아, 군사훈련 시설 등이 있다.

남한산성 주변에는 백제 전기의 유적이 많이 있어 일찍부터 백제 온조왕 때의 성으로도 알려져 왔다. 삼국시대 때부터 한강유역 및 수도 방어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곳이며, 조선시대 다양한 축성기법의 표본이 잘 남아 있다.

Namhansanseong Fortress stands out as the best-preserved structure of the remaining mountain fortresses, which protected the capital Hanyang in company with Bukhansanseong fortress in the Joseon Dynasty. When the second Manju invasion of the Joseon Dynasty occurred, King Injo opened this fortress gate with the crown prince and surrendered at Samjeon-do.

This fortress is known to be built first in 673(the 13th year of King Munmu of Silla Dynasty). According to an ancient record, people built a fortress called Jujangseong fortress(or Ijangseong fortress) in Hansanju and it was 4,360 Bo in circumference. Judging from its circumference, that fortress is considered Namhansanseong fortress. The fortress took its present shape in 1624(the 2nd year of King Injo of the Joseon Dynasty) right after the Lee Gwal's revolt, meanwhile, Manju was highly threatening the Joseon Dynasty. The remaining length of this fortress is as many as 11.7km. Currently east, west, south and north gatehouses, the defense facilities such as Seojangdae(podium), Dondae(watchtower) and Bol(fort), Ammun(secret paths), wells, a government office, military training facilities, etc., remain. Since there are lots of remains of the early Baekje Dynasty around the fortress, this fortress was also thought to be a castle in the time of King Onjo of the Baekje Dynasty. This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fending the Han River areas and the capital since the Three Kingdom Period. A variety of examples of the fortress construction methods in the Joseon Dynasty are well preserved.



주소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31(산성리)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
 홈페이지 <http://nhss.ggcf.kr>
 분류 역사·유적, 군사·교정 시설
 연도 673년
 건립자 신라 문무왕
 관리자 광주시
 지정 사적 제57호(지정일: 1963. 01. 21)

Location 731, Namhansanseong-ro, Jungbu-myeon, Gwangju-si, Gyeonggi-do
 Homepage <http://nhss.ggcf.kr>
 Division History & Relics, Military & Correction Facility
 Year 673
 Builder King Munmu of Silla Dynasty
 Management Gwangju City Office
 Designation Historic site No.57(Date of designation: 1963. 01. 21)



비운의 국모가 어릴 적 뛰놀던 곳 명성황후 생가

A place where a queen of misfortune was running around as a child
Birthplace of Empress Myeongseong

조선 고종의 비 명성황후가 태어나서 어덯살 때까지 살던 집이다. 명성황후는 민치록의 딸로 철종 2년(1851)에 태어나 열여섯 살에 고종의 왕비가 되었다. 그 후 정치에 참여하여 개화정책을 주도해 나갔으나, 고종 32년(1895) 을미사변 때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해 비운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능은 청량리에 있었다가 1919년 고종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홍릉으로 함께 합장되었다. 명성황후 생가는 숙종 13년(1687)에 처음 지어진 집으로, 건립 당시에 있었던 이 집의 행랑채는 없어졌고 현재 남아 있는 안채는 1975년과 1976년에 중수한 것이다. 1996년에 안채는 수리되었고 행랑채와 사랑채, 별당채 등이 함께 지어져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안채는 14칸 짜리 민도리집이고 8칸짜리 팔작지붕인 본채 한쪽에 6칸짜리 맞배지붕 날개채가 붙어 ㄱ자형을 이룬다. 본채는 전면에 뒷간이 있는 5량 구조로 안방, 대청, 건넌방, 부엌이 일자로 배치되어 있고 날개채는 3량 구조로 안방 앞쪽에서 꺾어져 방, 부엌, 광으로 이루어졌다. 그리 크지 않은 조선 중기 살림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집이다.

The Birthplace of Empress Myeongseong(1851-1895) who was a wife of King Gojong(Reign, 1863-1907) of the Joseon Dynasty. She was born in this house and lived here until she was eight. Empress Myeongseong, a daughter of Min Chi-rok, was born in 1851(the 2nd year of King Cheoljong) and became a queen at the age of sixteen. She took part in politics and led the policies for enlightenment. During the Eulmi incident in 1895(the 32nd year of King Gojong), she was killed by a Japanese and disappeared from a sad history.

Empress Myeongseong's tomb originally lay at Cheongryang-ri. When King Gojong passed away in 1919, her tomb was relocated to Hongreung and she was buried together with King Gojong. This house was built in 1687(the 13th year of King Sukjong) first. Servants' quarters disappeared and the remaining Anchae(main house) was remodeled in 1975 and 1976. In 1996, Anchae was repaired and servants' quarters, a detached house and an annex were built, so it regained its original appearance. Anchae is a 14-room house with square beam. Bonchae with 8 rooms and half-hipped roof and its wing building with 6 rooms and gambrel roof adjoin each other, forming ㄱ-shape. Bonchae has a hatch in front and 5-Ryang structure, and a main room(2-roomed), a main floored room(4-roomed), the opposite room(1.5-roomed), and a kitchen(2-roomed) are arranged in a straight line. The wing to the main house is 3-Ryang structure and composed of a room(1.5-roomed), a kitchen(3-roomed) and a shed(1.5-roomed). This house well shows the features of dwelling house in the mid-Joseon Dynasty period.



주소 경기도 여주시 명성로 71 (능현동)
분류 역사·유적, 주거·숙박 시설
연도 1687년
건립자 미상
관리자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지정 시도유형문화재 제46호(지정일: 1973. 07. 10)

Location 71, Myeongseong-ro, Yeosu-si, Gyeonggi-do
Division History & Relics, Residential & Accommodation Facility
Year 1687
Builder Unknown
Management Yeosu County Office
Designation City-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46(Date of designation: 1973. 07. 10)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역사건축

농사짓던 괴짜 선비의 자취를 더듬다

서계 박세당 사랑채

Follow trace of an eccentric farming scholar
Sarangchae of Seogy Park Se-dang's House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128번길 36(장암동)
 분류 역사·유적, 주거·숙박 시설
 연도 조선 중기
 건립자 미상
 관리자 박찬호
 지정 문화재자료 제93호(지정일: 2000. 04. 17)

Location 36, Dongil-ro 128beon-gil, Uijeongbu-si, Gyeonggi-do
 Division History & Relics, Residential & Accommodation Facility
 Year Mid Joseon Dynasty
 Builder Unknown
 Management Park Chan-ho
 Designation Cultural heritage material No.93(Date of designation: 2000. 04. 17)

조선 후기 실학자 서계 박세당 선생이 저술 활동을 하던 건물이다. 선생은 조선 현종 1년(1660)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자리에 올랐으나 40세에 관직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학문 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썼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한 것을 토대로 그의 대표적인 농학서 《색경》을 저술했다.

처음에는 안채와 안사랑, 바깥사랑, 행랑채를 갖춘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규모였으나, 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고 현재는 바깥사랑채만 남아 있다. 사랑채는 남향이 아닌 서향으로 지었는데 이는 동쪽의 수락산을 뒤에 두기 위한 것으로 향보다는 배산임수의 자연지세를 더욱 중요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 반의 평면규모로서 남측으로 날갯집 형식의 누마루가 덧붙여져 있는 '乙'자형의 평면구조를 하고 있다.



Seogy Park Se-dang(1629-1703) who was a scholar of the Realistic School of Confucianism in the late Joseon Dynasty did writing activity at this building. He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in 1660(the first year of King hyunjong of the Joseon Dynasty), and started his official career. He then retired from government post at the age of 40 and here he devoted himself to scholastic research and training younger students. Based on his agricultural experience, he wrote his representative agricultural book, 《Saekgyung》.

This house was originally a typical gentry family's house that was equipped with Anchae(main house), inner Sarangchae(detached house), outer Sarangchae(detached house) and servants' headquarters. Most of them were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and currently the outer Sarangchae(detached house) only remain. Sarangchae(detached house) faces west not south so that the house can be located before Surak Mountain. From this, it is thought that he put geographical feature(a mountain at the back of the house) before direction. Sarangchae is composed of 5 rooms in the front and 2.5 rooms on the side, and '乙'-shaped plane structure attaching an upper floor.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건축물

수원화성

A scientific and practical structure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Suwon Hwaseong Fortress

수원화성은 서쪽으로는 팔달산을 끼고 동쪽으로는 낮은 구릉의 평지를 따라 쌓은 평산성이다. 정조는 그의 아버지 장헌세자에 대한 효심에서 화성으로 수도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정조 18년(1794)에 성을 쌓기 시작하여 2년 뒤인 1796년에 완성하였다. 성곽의 둘레가 약 5.7km, 성벽의 높이가 4~6m로 규모가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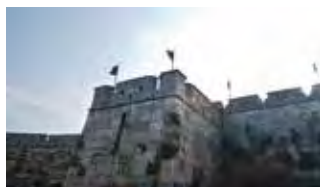
실학자인 유흥원과 정약용이 성을 설계하고, 거중기 등의 신기재 등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기법을 선보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성벽은 서쪽의 팔달산 정상에서 길게 이어져 내려와 산세를 살려가며 쌓았는데 크게 타원을 그리면서 도시 중심부를 감싸는 형태를 띠고 있다. 성안의 부속시설물로는 화성행궁, 종포사, 내포사, 사직단들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행궁의 일부인 낙남헌만 남아 있다.

특히 다른 성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창룡문·장안문·화서문·팔달문의 4대문을 비롯한 각종 방어시설들과 돌과 벽돌을 섞어서 쌓은 점 또한 화성의 특징이다. 화성은 쌓은 후 약 200여년이 흐르는 동안 성곽과 시설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특히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파손되었는데, 1975년부터 보수,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효심에서 근분이 되어 당파정치 근절과 왕도정치의 실현 그리고 국방의 요새로 활용하기 위해 쌓은 화성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Suwon Hwaseong Fortress was built along a low line of hills to the east and along Paldal Mountain to the west. King Jeongjo planning to move the capital to Hwaseong started to build this Hwaseong fortress in 1794(in the 18th year of his reign) and completed it two years later in 1796. The fortress was quite extensive approx. 5.7km in circumference and 4-6m in h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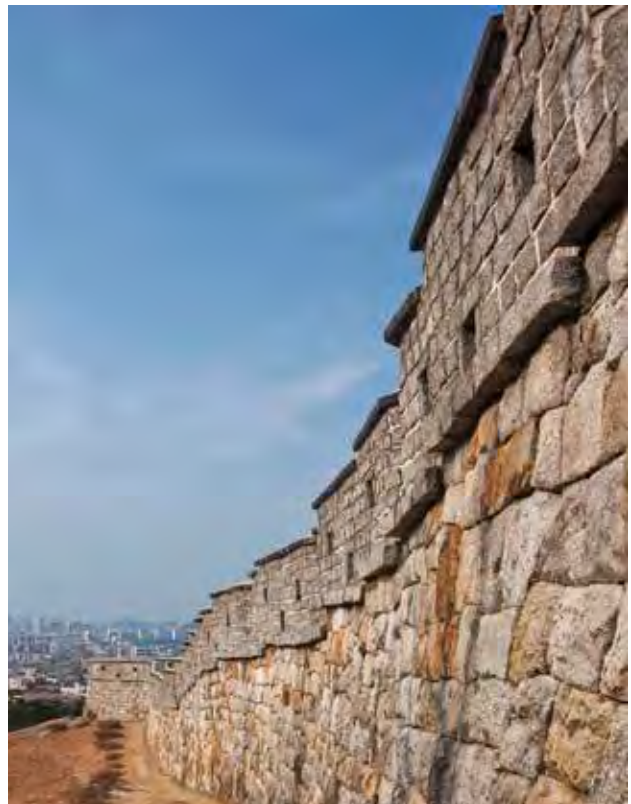
Yu Hyeong-won and Jeong Yak-yong who were scholars of Realistic School of Confucianism designed the fortress, and showed scientific and practical methods of using new instruments such as Geojunggil(cable driving system). Beginning from the summit of Paldal Mountain, the ramparts continue to go down following the shape of the mountain, greatly forming an oval, protecting the central part of the city. There were attached Facility such Hwaseong Haenggung(temporary palace), Jungposa, Naeposa, Sajikdan(Altar to the deities), etc, in the ramparts, but now Naknamheon which is a part of Haenggung only remains.

Hwaseong fortress features four gates i.e., Changryongmun, Janganmun, Hwaseomun and Paldalmun and various defense Facility, and especially it was built with brick and stone, which is also a unique feature of this fortress. For 200 years since Hwaseong was built, some of ramparts and Facility broke, and especially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greatly destroyed. From 1975, it has been repaired and restored, and it has taken its present shape now. Beginning as love for his father, in order to end party strife, realize royal politics and use as a fortress for the national defense, King Jeongjo built this Hwaseong fortress. Due to its scientific and practical structure, it was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1997.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룡대로 21(매항동)
 홈페이지 www.swcf.or.kr
 분류 역사·유적, 군사·교정 시설
 연도 1796년
 건립자 조선 정조
 관리자 수원문화재단(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지정 사적 제3호(지정일: 1963. 01. 21)

Location 21, Changryongdae-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Homepage www.swcf.or.kr
 Division History & Relics, Military & Correction Facility
 Year 1796
 Builder King Jeongjo of the Joseon Dynasty
 Management Suwon Cultural Foundation
 Designation Historic site No.3(Date of designation: 1963. 01. 21)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역사건축

고려 충신들의 충심이 머물다

연주대

Goryeo Dynasty's faithful subjects' loyalties remain
Yeonjudae



주소 경기도 과천시 자하동길 62(중앙동)
분류 황교·서원·사찰
연도 677년(조선 초 '연주대'로 명명)
건립자 의상대사
관리자 연주암
지정 시도기념물 제20호(지정일: 1973. 07. 10)

Location 62, Jahadong-gil, Gwacheon-si, Gyeonggi-do
Division Hyanggyo-Seowon-Temple
Year 677(Named 'Yeonjuda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uilder Monk Uisang
Management Yeonjuam Hermitage
Designation City & Province monument No.20(Date of designation: 1973. 07. 10)

관악산의 봉우리 중에 죽순이 솟아오른 듯한 모양을 한 기암절벽이 있는데, 그 위에 석축을 쌓고 자리 잡은 암자를 연주대라 한다. 원래는 의상대사가 문무왕 17년(677)에 암자를 세우면서 '의상대'라 이름 지었는데, 고려 멸망 후 조선을 반대하며 고려에 충성을 다하던 유신들이 이곳에 모여, 멀리 개경 쪽을 바라보며 고려를 그리워하여 연주대(戀主臺)로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연주대 주변은 매우 뛰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멀리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상념에 잠기기 좋다. 그 때문인지 연주대에 얽힌 역사 속 이야기가 많다. 조선 태종(재위 1400~1418)이 셋째왕자 충녕대군을 장차 태자로 책봉하려 하자 이를 눈치 챈 첫째 양녕과 둘째 효령대군이 궁을 나와 관악산에 입산수도하면서, 이 연주대에 올라 왕궁을 바라보며 왕좌를 그리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There are a cliff with a curious rock looking like a bamboo shoot springs up in the peak of Mt. Gwanak, and a small hermitage named Yeonjudae situated on that cliff. When Monk Uisang built this temple in 677(the 17th year of King Munmu), he named it Uisangdae. After the fall of the Goryeo Dynasty, loyal subjects of the Goryeo Dynasty who were opposed to the Joseon Dynasty gathered here and longed for Goryeo, looking toward the direction of Gaegyeong(Capital of Goryeo). They renamed it Yeonjudae. It has outstanding scenery around. People would be lost in thought seeing far in the distance. For that reason, there are a lot of historical stories about Yeonjudae. When King Taejong(Reign, 1400~1418) intended to invest his third son Chungnyung as crown prince, his first son Yangnyung and second son Hyoryung read their father's mind and left palace. They then entered into Mt. Gwanak and cultivated themselves, while they would go up Yeonjudae to see toward the royal palace, longing for the throne, they say.

The present building is a little over 10m² in area with a gambrel roof shaped like '人' viewed from the side. It was built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has Eungjinjeon Hall in which Buddha and Buddha's disciples were enshrined.



충신을 귀하게 여긴 임금의 마음 오리 이원의 종택 및 관감당

A king's heart that treasured a loyal subject
Head House of Yi Won-ik and Gwangamdang House

관감당(觀感堂)은 인조 8년(1630), 인조가 경기감사에게 명하여 이원익에게 지어준 집이다. 이원익은 태종의 12번째 아들 익녕군(益寧君)의 4세손으로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냈으며 '오리 정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630년 오랫동안 재상을 지냈으나 여전히 가난했던 이원익의 집이 2칸 초가인데다 비가 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인조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새 집을 하사하고, 관감당이라 이름을 붙여주었다.

안채와 문간채가 뜰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사랑채는 그 옆에 따로 떨어져 자리 잡고 있다. 안채는 13칸 반 규모에 ㄱ자형 구조를 이루어 건넌방 2칸·대청마루 3칸·안방 2칸을 배치하였고, 안방 앞쪽에서 꺾여 부엌 3칸·온돌방 1칸이 놓여 있다. 문간채는 13칸 규모로, 대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부엌·광이 있다. 건물은 모두 남향으로 현대식으로 고친 부분도 있으나, 20세기에 세운 경기지역 살림집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Gwangamdang House is the house given to Lee Won-ik from King Injo in 1630(the 8th year of King Injo). King Injo ordered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or to build that house for him. Lee Won-ik was the 4th descendant of Iknryungun who was the 12th son of King Taejong. He served as a prime minister in the time of King Seonjo, King Gwanghaegun and King Injo, and was widely known as 'Ori minister'. Although he served as a minister for a long time, he was still poor and lived at a small 2-room house with a straw-thatched and even leaky roof. Knowing this, King Injo gave him this house and named it Gwangamdang.

Anchae(main house) and Munganchae(house inside the gate) are arranged and form an open 'ㄱ', and Sarangchae(detached house) is separately situated next to them. In a 13.5-room sized and 'ㄱ'-shaped Anchae(main building), a 2-room sized opposite room, a 3-room sized floored room and a 2-room sized Anbang(main room) are arranged in a straight line. And there is a 1.5-room sized kitchen and a 1.5-room sized Ondol room at the corner of Anbang. A 13-room sized Munganchae is composed of an Ondol room, a kitchen and a shed on both sides of the front gate. The whole buildings face south. Although this house was somewhat repaired in modern style, it still well shows a typical dwelling house in Gyeonggi area.



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6(소하동)
분류 역사·유적, 주거·숙박 시설
연도 1630년
건립자 조선 인조
관리자 충헌문화재단
지정 문화재자료 제90호(지정일: 1996. 12. 24)

Location 5-6, Ori-ro 347beon-gil, Gwangmyeong-si, Gyeonggi-do
Division History & Relics, Residential & Accommodation Facility
Year 1630
Builder King Injo of the Joseon Dynasty
Management Chunghyun Cultural Foundation
Designation Cultural heritage material No.90(Date of designation: 1996. 12. 24)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역사건축

어지러운 시대 은거하던 지식인의 보금자리

용인 전(傳) 음애 이자 고택

A nest of a retired intellectual in the time of chaos
House of Eumae Yi Ja in Yongin

조선 중종 때의 명현인 음애 이자(陰崖 李紱)선생의 후손이 살던 집이다. 기묘사회에 연루되어 조광조 선생과 함께 옥에 갇혔다가 12월에 벼슬을 빼앗긴 후 음성에 은신하고 스스로 호를 음애라 하였다.

본래 'ㄷ'자형 본채 앞에 'ㄷ'자형 행랑채가 놓여 있던 'ㄹ'자형 가옥이었으나 행랑채가 불에 타 없어지고 지금은 본채만 남아 남쪽이 트인 'ㄷ'자형 배치를 이루게 되었다. 이 집은 'ㄱ'자형 안채와 'ㄷ'자형 사랑채가 연결되어 있다. 안채는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안방과 벽장, 왼쪽에 건넌방이 있다. 대청 뒷벽으로 쌓여달이문 두 개를 달았다. 사랑채는 마루방·사랑방·벽장·다락 등이 한 줄로 배열되어 있다. 별도로 사당을 짓는 사대부가와 달리 이 집에는 사당을 따로 두지 않고 본채 북서쪽에 청방을 두고 단청을 하여 제사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민도리집으로 사랑채와 안채가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으나 내외가 사용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경기지역의 중류주택이다.

House of Eumae Yi Ja in Yongin is the house where descendants of Eumae Yi Ja (陰崖 李紱), who was a noted sage in the time of King Jungjong of the Joseon Dynasty, lived. He was implicated in Gimyo Sahwal (the calamity of scholars), and sent to prison with Jo Gwang-jo.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he was removed from office, and hid in Eumseong, naming himself Eumae.

Originally 'ㄷ'-shaped Haengrangchae (servants' quarters) was arranged in front of 'ㄷ'-shaped Bonchae (main house) so they formed 'ㄹ'-shape. However, because Haerangchae was burned, only Bonchae remains, so the house has a south-open 'ㄷ'-shaped arrangement now. 'ㄱ'-shaped Anchae (main building) and 'ㄷ'-shaped Sarangchae (detached house) are connected to each other. In Anchae, with a 2-room sized main floored room as the center, there are a main room and a closet on the right and an opposite room on the left. In the back wall of the main floored room, there are two twin hinged doors. In Sarangchae, a floored room, a detached room, a closet and an attic are arranged in a straight line. Different from ordinary gentry houses that had a separate Sadang (Shrine) inside the house, this house had not Sadang. Instead, a floored room in the northwest of Bonchae was used as a service space. This is a pointed beam house. Although Sarangchae and Anchae were connected to each other, space was divided so that husband and wife each independently used their spaces. This house reflects a typical middle-class family's house in Gyeonggi area in the Joseon Dynasty.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198번길 30-4(지곡동)
 분류 역사·유적, 주거·숙박 시설
 연도 조선 중기
 건립자 미상
 관리자 한산이씨음애공파 종중
 지정 시도민속문화재 제10호(지정일: 1997. 12. 26)

Location 30-4, Jisam-ro 198beon-gil,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Division History & Relics, Residential & Accommodation Facility
 Year Mid-Joseon Dynasty
 Builder Unknown
 Management Hansan Lee Eumaeong Clan Gathering
 Designation City & Province folklore cultural heritage No.10(Date of designation: 1997. 12. 26)



조선 후기 소규모 절의 양식을 엿보다

칠장사

Peep at the style of a small temp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iljangsa Temple



주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칠장리)
 분류 향교·서원·사찰
 연도 636년
 건립자 자장율사
 관리자 조계종
 지정 시도유형문화재 제114호(지정일: 1983. 09. 19)

Location 399-18, Chiljang-ro, Juksan-myeon, Anseong-si, Gyeonggi-do
 Division Hyanggyo-Seowon-Temple
 Year 636
 Builder Monk Jajang
 Management The Korean Buddhist Jogye Order
 Designation City & Province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14(Date of designation: 1983. 09. 19)

칠장사는 칠현산에 자리잡고 있는 절로 신라 선덕여왕 5년(636)에 자장율사가 세웠으며, 고려 현종 5년(1014)에 혜소국사가 다시 지었다. 조선 숙종 20년(1694)에 절이 불에 타 숙종 30년에 석구대사가 대웅전을 옮겼다. 영조 12년(1736)에 설영대사가 고쳤으며,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쳤다.

칠장사 대웅전은 석가모니를 모시는 법당으로 조선 후기에 세워졌다고 한다. 앞면 3칸·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기둥 위에서 지붕 처마를 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계 양식으로 각 칸마다 2개의 공포를 설치했다. 내부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불화와 연꽃무늬로 채색되어 있고, 중앙에는 불단이 있어 그 위에 석가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 후기 소규모 절의 대웅전 건물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역사가 깊은 사찰이니만큼 칠장사오불회괘불탱화(국보296호), 혜소국사비(보물488호), 안성봉업사지삼불입상(보물983호) 등 귀한 유적들을 다수 보관하고 있다.

Chiljangsa Temple situated at Chilhyun Mountain was established by Monk Jajang in 636(the 5th year of King Seondeok of the Silla Dynasty), and then rebuilt by Monk Hyeso in 1014(the 5th year of King Hyunjong of the Goryeo Dynasty). Because the temple was burn in 1694(the 20th year of King Sukjong), Monk Seokgyu moved Daewungjeon Hall in the 20th year of King Sukjong, and Monk Seolyeong repaired it in 1736(the 12th year of King Yeongjo). After that, it was repaired many times for many years.

Daewungjeon hall of Chiljangsa Temple was built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ich is composed of 3 rooms in the front and 3 rooms on side with a gambrel roof shaped like '人' viewed from the side. Gongpo(columar bracket sets) also exists between the columns, which is Dapo Gye style. There are two Gongpos per room. The ceiling is a well-shaped ceiling painted with Buddhist paintings and lotus patterns. In the center of the inside of the building, there are Buddha Triad statues on the altar. This form is usually shown in Daewungjeon hall of the small templ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are valuable relics including Painting of five Buddhas of Chiljangsa Temple(National treasure No. 296), Monument for national preceptor Hyeso(National treasure 488), Standing Buddha Triad in the site of Bongeopsa Temple at Anseong(National treasure No. 983), etc, retained.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근대건축

예전 모습 그대로 간직한 구청사

경기도청 구관

An old provincial office building remaining unchanged
Old Building,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1967년 건립된 경기도청 구관은 역사가 깊은 철근콘크리트건물이다. 신청사와 함께 지금까지 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이 곳곳에 남아 운치를 선사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원로 건축가 중 한 사람인 고 김희춘 건축가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건물의 외형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뼈대가 노출되게 하고 외벽을 유리창으로 감싸고 있다. 각 층마다 4면에 테라스를 두어 업무실에서 바로 외부공간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건물은 '口'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중정을 가운데에 두고 있다. 이러한 건물 형태는 1960년대에 남부지방에서 크게 유행하던 통풍과 채광을 고려한 개방적 디자인이다.

Old Building,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and the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built in 1967. It has still been being used with the new building, and tracks of the past few decades here and there present a quaint beauty. This building counts among major works of the late Kim Hee-chun who was a Korea-renowned architect of the twentieth century. As for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the frames of th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are exposed and the outer wall is shielded with windows. There are terraces in each floor so as to directly lead to exterior space. The building is shaped like '口' and has a courtyard in its center. This is an open-style design considering ventilation and daylight penetration, which was very popular in the southern province in 1960s.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분류 공공기관·시설
 연도 1967년
 건축주 경기도청
 관리자 경기도청(031-120)
 추천사유 1960년대 관청 건축의 특징이 잘 나타남

Location 1, Hyowon-ro, Paaldal-gu, Suwon-si, Gyeonggi-do
 Division Public Facility
 Year 1967
 Owner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Management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031-120)
 Remark It shows the features of the government office buildings of the 1960s



거룩하고 평화로운 천주교인들의 성지

구산성지

Holy and peaceful Catholic sacred place
Gusan Martyrs' Shrine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 때 순교한 김성우(안토니오) 성인의 유해를 비밀리에 운반한 뒤 1977년 다시 조성한 지역이다. 그 후 약 200년 동안 차근차근 신앙공동체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김성우 성인을 비롯해 여덟 명의 순교자가 묻힌 거룩한 성지로 천주교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성지의 중심이 되는 곳은 역시 김성우 묘역이다. 4각의 돌레석에 봉분을 조성하고 그 우측으로 묘비를 세웠다. 정방형의 비좌(碑座) 위에 비석을 세우고 다시 팔각지붕형의 옥개석을 세웠다. 봉분 좌측으로는 미사를 할 수 있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전쟁 때는 원로 신부들의 피신처로도 이용되었다. 서울대학교 미대 학생을 지낸 김세중(金世中)이 조각한 성모자상(聖母子像)은 유적지 내 잔디밭 한가운데에 있다. 교통이 편리하여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으며, 조경이 아름다워 드라마와 광고,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다. 인근에 미사리 카페촌과 조정경기장이 있다.

Gusan Martyrs' Shrine was reconstructed in 1977 since the body of Kim Seong-wu(Antonio), who was martyred during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1839, was secretly brought here. Meanwhile, this site has gradually developed into a Christian community for about 200 years. This is the sacred place where 8 martyrs including the Kim Seong-wu were buried, and Catholic pilgrims have continued to visit here. As for the Kim Seong-wu's tomb, the burial mound was made on a square shaped stone border. On its right, there are a monument and a tombstone with a half-hipped roof. On its left, there is an altar for mass.

During the Korean War, this site was used as a shelter for elder priests. There is a statue of Madonna and Child sculpted by Sculptor Kim Se-jung in the center of a lawn. Because this site is convenient for transportation, people continue to visit. And due to its beautiful landscaping, this place frequently shows up in dramas, commercial films and movies as their backgrounds. There are Misa-ri Cafe Village and Boat Race Course in the neighborhood.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99(망월동)
분류 종교·제례 시설
연도 1977년
건축주 구산성지사무실(031-792-8540)
관리자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지정 향토유적 제4호

Location 99, Misagangbyeonbuk-ro, Hanam-si, Gyeonggi-do
Division Religious & Ritual Facility
Year 1977
Owner Gusan Martyrs' Site Office(031-792-8540)
Management Catholic Church Diocese of Suwon Foundation
Designation Local relics No.4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근대건축

대한민국 근대 대표 건축가 김중업 선생의 작품

김중업박물관

구)유유산업

A work of Kim Chung-up who was a representative Korean modern architect

Kimchungup Museum
Old)Yuyu Pharma. Inc.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석수동)
분류 문화·체육 시설
연도 1959년
건축주 유유산업
관리자 안양시
수상 안양시 건축문화상,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2003

Location 4, Yesulgongwon-ro 103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Division Culture & Sports facility
Year 1959
Owner Yuyu Pharma. Inc.
Management Anyang City Office
Awards Anyang Culture and Architecture Prize, Beautiful Structure, 2003

한국 건축가로는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한 건축가 김중업의 대표적인 공장 건축물이다. 김중업은 프랑스 문화부 고문 건축가를 지내기도 했으며 프랑스 국가공로훈장, 서울시 문화상, 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우리나라 근대를 대표하는 건축가이다.

유유산업의 건물들 가운데 사무실은 2층 높이의 건물로 측면으로 돌출해 나와 건물 상부를 가로지르는 구조체에 의해 지탱되는데, 이 구조체는 힘의 전달 방향에 따른 형태를 갖고 있다. 더 이상 내력벽의 의미가 없어진 벽체는 유리로 처리되어 건물의 투명성을 높였다. 명쾌한 구조체계와 벽면 분할로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2003년 안양시 건축문화상을 수상했다.

현재 안양예술공원 부지 내에 있는 유유산업 건물은 지난 2014년 3월 28일부터 '김중업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가가 직접 설계한 건물에서 그의 건축관과 한국 근대건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안양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This is a representative factory building of Kim Chung-up who was the first Korean architect to make it to Europe. He has functioned as an advisor architect for the Ministry of Culture in France and was awarded the medal for merits in France, the Seoul culture award, the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etc. The office is a two-story building, which protrudes from the side of the building and is supported by a structure across the upper side of the building. The structure has a shape following the direction of force. A wall that did not need to exist as a bearing wall was treated with glass so that transparency of the building was improved. This building was highly acclaimed for its explicit structure system and division of the surface of a wall and was awarded the Anyang culture and architecture prize in 2003. This YuYu Pharma. Inc. Structures situated in Anyang Art Park has been used as 'Kimchungup Museum' since March 28, 2014, which is the newest cultural spot of Anyang because it shows Kim Chung-up's architectural view and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전후 시기 건축의 경향을 간직하다 농촌진흥청 본관, 도서관

Keep the trend of architecture of the post-war era
Library, Main Building,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농촌 진흥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47년 농사개발원, 1949년 농업기술원, 1957년 농사원을 거쳐 1962년 4월 농사원과 농림부 지역사회국 등이 통합해 지금과 같은 형태의 농촌진흥청이 발족했다. 청장 외에 기획조정관실,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기술협력국 등 1실 3국 21과(담당관·팀) 4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현재 건물은 1958년 한국농업진흥부사업의 일환으로 USOM(미국경제원조처) 측이 설계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원로 건축가인 김종업, 김정수, 이광노 건축가가 분담하여 설계를 맡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전체 공사는 1959년 착공하여 1962년에 완료됐다. 이 가운데 공보관은 대수선과 증축으로 원형이 없으며 강당과 교사는 철거되었다.

결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도서관은 모더니즘의 정결한 표현이 눈에 띈다. 현관 캐노피, 개구부 주변의 곡면 처리를 보면 1970년대 브루탈리즘(Brutalism: 20세기에 나타난 근대 건축의 한 방향. 기능주의, 비형식주의를 지향한다.)의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체의 배면부에 증축 흔적이 남아 있다.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ich takes charge of all the business affairs for rural development. Since it started as the agriculture improvement service in 1947, it changed its name into the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in 1949, and the agriculture service in 1957. And in April, 1962, the agriculture servi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s branches were integrated and thu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s founde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s organized a director general, 3 departments, 21 teams and 4 research institutes. The present building was designed by architects who were appointed by USOM in 1958. Thus the senior architects of the time i.e., Kim Chung-up, Kim Jeong-su and Lee Gwang-no, shared in the design. Construction started in 1959 and finished in 1962. The public information office building lost its original form because of reconstruction and extension, and an auditorium and a school building were demolished. The library building next to the main building features a neat expression of modernism. From the canopy of the front door and the treatment of a curved surface of an opening, the influence of Brutalism(an austere style of architecture appearing in the 20th century) is shown. There is evidence of extension work on the rear wall of the building.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분류 공공기관·시설
연도 1962년
건축주 농촌진흥청
관리자 농촌진흥청(031-299-2200)
추천사유 원로 건축가들의 참여, 근대 건축의 흔적이 잘 나타남

Location 126, Suin-ro,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Division Public Facility
Year 1962
Owner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Managemen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031-299-2200)
Remark Participation of senior architects. It well shows the traces of the modern architecture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근대건축

일제강점기 과도기 한옥의 건축 사례

구)대부면사무소

An example of a transitional type of the house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Old)Daebu-Myeon Office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대부북동)
 분류 공공기관·시설
 연도 1933년
 건축주 안산시
 관리자 안산시
 지정 문화재자료 제127호(지정일: 2004. 05. 06)

Location 97-9, Daebujunga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Division Public Facility
 Year 1939
 Owner Ansan City
 Management Ansan City
 Designation Cultural heritage material No.127(Date of designation: 2004. 05. 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옛 대부면사무소 건물이다. 일제강점기에 창건된 면사무소 건물로 당시 공공시설이 주로 벽돌조나 일본식 목골조로 이루어지던 것과는 달리 한국 전통건축 양식에 근대적 행정 기능을 수용한 과도기적 행정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이다.

현재는 93㎡ 규모의 단일 건물이지만 처음 지을 당시에는 사무실, 회의실, 속직실, 사환실, 욕실, 현관, 복도, 창고, 변소 등으로 구성된 총 면적 140㎡ 규모의 건물이었다고 한다. 원래는 2개 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되어 있으며 정면 중앙에 현관 1칸이 돌출되어 있다. 내부는 벽체를 모두 철거하여 변형되어 있으나 지붕가구와 기둥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볼 때 가운데 칸과 좌우 칸으로 크게 3등분되고, 가운데 칸과 서측 칸에는 전면으로 복도를 두어 사무공간과 구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면의 현관은 일본식 요소를 차용한 것으로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 현 대부동주민센터 옆에 자리 잡고 있다.



This is an Old Daebu-Myeon Office building located in Ansan-si, Gyeonggi Province, which was built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iffering from most public facilities of those days which were usually brick structures or Japanese-style wooden structures, this building shows the features of a transitional type of a government office building that admits modern administrative functionality and the traditional Korean-style house.

Currently, this is a single building 93m² in area, however, originally it was 140m² in the gross area, including office, conference room, night-duty room, clerk room, bath room, entrance, corridor, warehouse, toilet, etc. That's why this building is thought to be originally composed of two or more buildings.

The present building consists of 5 rooms in the front and 3 rooms on side, and a one-room sized entrance protrudes. Although the inside of the building was demolished and changed now, judging from the traces on the furniture of the roof and the columns, it is estimated that the interior space was largely divided into three, and there was a corridor in front of the center and the west rooms so that they could be separated from an office space. Especially the entrance was a borrowing element from Japanese style, which also shows the characteristic of the time. Currently, this building is situated next to Daebu-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김대건 신부가 물린 의미 깊은 성지 미리내성지 본당

A sacred place where Priest Kim Dae-geon rests in peace
Main Temple, Mirinai Holy Site



주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420(미산리)
분류 종교·제례 시설
연도 1906년
건축주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관리자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추천사유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의 현장

Location 420, Mirinaeseongji-ro, Yangseong-myeon, Anseong-si, Gyeonggi-do
Division Religious & Ritual Facility
Year 1906
Owner Catholic Church Diocese of Suwon Foundation
Management Catholic Church Diocese of Suwon Foundation
Remark It shows the historic site of Catholic Church in Korea

미리내성당은 1883년 왕림 본당에 속한 공소에서 시작, 1896년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며 1906년 신자들의 공사 참여로 건축하고 1976년 성당을 다시 개수한 후 활성화되었다. 본체는 돌쌓기 벽으로 전면부는 벽돌 조적조에 미장 마감 후 페인트를 칠하였다. 성지 내에는 김대건 신부의 무덤과 하악골(아래턱뼈)이 모셔져 있는 미리내성당, 김신부의 동상, 성모성당, 게세마니 동산 등이 모여 있다.

은하수라는 뜻의 아름다운 우리말인 미리내는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묘소와 그의 어머니 우르술라, 김 신부에게 사제품을 준 조선 교구 제3대 교구장 페레올 주교, 그리고 김 신부의 시신을 이곳에 안장했던 이민식 빈첸시오의 묘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의미 깊은 곳이다. 1991년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가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적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미리내수도회의 준 본당 역할을 하고 있다.

성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성지 한가운데 웅장하게 서 있는 기념성당이다. 이 성당은 천주교 103위의 사성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기념성당 뒤쪽으로 난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 고난의 길을 표현한 청동조각 15점이 서 있다.

Mirinai Catholic Church started as a branch of a Wanglim catholic church in 1883 and was raised to the status of a parish church in 1896. Its main temple was built in 1906, and repaired on a large scale in 1976. The main temple was a masonry construction and its front surface was finished with mortar and painting. There is Mirinai Catholic Church in which a tomb and the lower jawbone of Priest Kim Dae-geon enshrined, a bronze statue of Priest Kim Dae-geon, a bronze statue of the Holy Mother, Gethsemane hill, etc.

Mirinai means the Milky Way in Korean. In the Mirinai Martyrs' site, there are tombs of the first Korean Priest Kim Dae-geon, his mother, Bishop of the 3rd diocese Ferroel, Lee Min-shik who buried the body of Kim Dae-geon and Binchencio side by side. As Mirinai ordo was settled in 1991, this place began to develop as a historic site. Currently, Mirinai acts as a quasi-main church of Mirinai ordo.

In the martyr's site, the memorial church stands tall in the heart, which was built to commemorate the canonization of 103 martyrs. On the Stations of the Cross in the back of the memorial church, there are 15 bronze statues that express hardships of Jesus.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근대건축

수원 유일의 기독교 학교

삼일중학교 아담스기념관

The only one mission school of Suwon
Adams Memorial Hall, Samil Middle School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42(매향동)
 분류 교육·연구 시설
 연도 1923년
 건축주 재단법인삼일학원
 관리자 재단법인삼일학원(031-243-0041)
 지정 시도기념물 제175호(지정일: 2001. 01. 22)

Location 342, Suwoncheon-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Division Education & Research Facility
 Year 1923
 Owner Samil School Foundation
 Management Samil School Foundation(031-243-0041)
 Designation City & Province Monument No.175(Date of designation: 2001. 01. 22)

삼일학원은 1903년 미국인 선교사 스웨어러(W.swearer, 서원보)가 15명의 소년들을 모아 시작한 교회부설 학교다. 처음에는 자체 건물 없이 중포산 기슭의 교회 건물을 빌려 사용했으나 수원 지방 감리사였던 노블(W.A Noble) 목사가 이 사정을 미국 아담스교회에 알렸다고 한다. 이후 수많은 교인들로부터 건립기금 2만 엔을 기부받아 아담스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1923년 문을 열었다.

이 건물은 미국 아담스교회 선교부에서 설계하고, 공사는 중국인 왕영덕이 맡았다. 전체적으로 적벽돌을 사용했으며 지붕은 벽체 위에 목조 트러스를 올리고 널판을 깔아 함석판을 올린 구조이다. 지하층은 거칠게 다듬은 돌로 쌓았고 1층과 2층은 적벽돌로 벽체를 쌓았으며, 층간에 목조 마루틀을 설치하여 바닥을 꾸몄다.

특히 현관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비대칭적인 건물 구조로 우진각 지붕 중간에 통풍을 위해 만들어진 듯한 작은 박공 두 개가 튀어나와 있다. 반달모양 통풍창 바로 아래로는 아담스 기념관을 의미하는 영문 명판이 있고, 위로는 화강암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1999년 현관과 1층 내부에 강관 기둥을 보강했으며 2001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Samil School began as a church-affiliated school, which was opened with 15 boys by an American missionary W.swearer(1871-1916, Suh Won-bo in Korean name). He started with renting a church building located at the foot of Jung-po Mountain and used it as a classroom. And a minister W.A Noble informed Adams Church in USA about such a situation. After that, by receiving donation 20,000 yen from lots of members of the church, he at last opened a school named Adams Memorial Hall in 1923.

The building was designed by Adams Church, USA, and constructed by a Chinese Wang Yeong-duk. It is a red brick masonry structure, roofed with galvanized iron sheets. The basement was built with roughly faced stones, and the first and second floors were built with red bricks. And wooden floors were installed between the floors.

Especially it features asymmetric structure being slanted toward right, and two gables in the middle of the roof. Right under a half moon-shaped ventilating window, there is an English signboard, ornamented with granite on its top. Meanwhile, the entrance and the inside of the first floor were reinforced with steel pipe columns in 1999. This building was designated as a cultural heritage in 2001.



전통 한옥의 향기를 간직하다 신익희 생가

Keep the scent of the traditional Hanok
Birthplace of Sin Ik-hui



주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길 6-25(서하리)
분류 주거·숙박 시설
연도 1925년
건축주 신독영
관리자 신창현
지정 시도기념물 제134호(지정일: 1992. 12. 31)

Location 6-25, Seoha-gil, Chowol-eup, Gwangju-si, Gyeonggi-do
Division Residential & Accommodation Facility
Year 1925
Owner Sin Dok-yeong
Management Sin Chang-hyun
Designation City & Province Monument No.134(Date of Designation: 1992. 12. 31)

정치가이며 독립운동가인 해공 신익희(1894~1956) 선생이 태어난 곳. 신익희 선생은 해방 전후 시기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로서 광복 후 제헌국회 부의장과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가옥은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 고종 2년(1865) 대홍수로 집이 파손되어 옮긴 이 건물은 20세기 초에 다시 한 번 크게 고쳐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안채는 'T'자형 평면을 이루는데 가운데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안방, 왼쪽에 건넌방을 두었고, 안방 앞으로는 부엌을 배치했다. 바깥채는 'ㄱ'자형 평면으로 가운데에 대문을 달고 왼쪽에 2칸 사랑방을 두었다. 전통 한옥의 외관을 잘 간직한 집으로, 20세기 초 경기 지역 소지주 계층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를 보여준다.

This house is a Birthplace of Haegong Sin Ik-hui(1894~1956) who was a politician and an independence activist. He who was a representative political leader around the Liberation period served as a vice-chairman of the Constitutional National Assembly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Liberation. The house is composed of Anchae(main house) and Bakkatchae(outhouse), which was originally situated about 200m southeast of its present location. Because the original house was damaged by a big flood in 1865(the 2nd year of King Gojong), it was relocated to its present location and greatly rebuilt in the early 20th century.

'T'-shaped Anchae(main house) is composed of a 2-room sized main floored room at the center, a main room on the right, an opposite room on the left and a kitchen in front of the main room. 'ㄱ'-shaped Bakkatchae(outhouse) is composed of the main gate at the center and a 2-room sized detached room on the left. It well keeps the appearance of the traditional Hanok(Korean-style house), and shows a typical house of a small landowner in Gyeonggi reg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근대건축

서양건축과 동양건축의 아름다운 만남

안성 구포동성당

A beautiful meeting of the Western architecture and the Eastern architecture
Anseong Gupo-dong Catholic Church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구포동성당은 매우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하다. 전면부는 뾰족한 첨탑이 있는 전형적인 서양식 성당의 외관을 하고 있으나 측면으로 돌아 나가면 목조기둥과 기와, 서까래가 있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양식이 나타난다. 광무 5년(1901) 프랑스 신부인 콩베르(Gombert.A, 공인국)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시 성당으로 이용하다가, 1922년 안성군 보개면 신안리에 있던 동안강당을 헐고 그 건물의 목재와 기와 등을 가지고 새로 고쳐 지었다고 한다. 설계와 감독은 푸아넬(Poisnel.V, 박도행) 신부가 맡았다. 서양식과 동양식이 뒤섞인 이 성당의 모습은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의 절충된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

앞면 3칸, 옆면 9칸으로 되어 있으며, 종탑부에는 3개의 뾰족한 탑이 있는데, 가운데는 끝이 8각형으로 변형되었고, 양쪽의 것은 사각뿔로 되어 있다. 1955년에는 건물 앞면 입구와 종탑을 로마네스크 풍의 벽돌 성당건축으로 고쳐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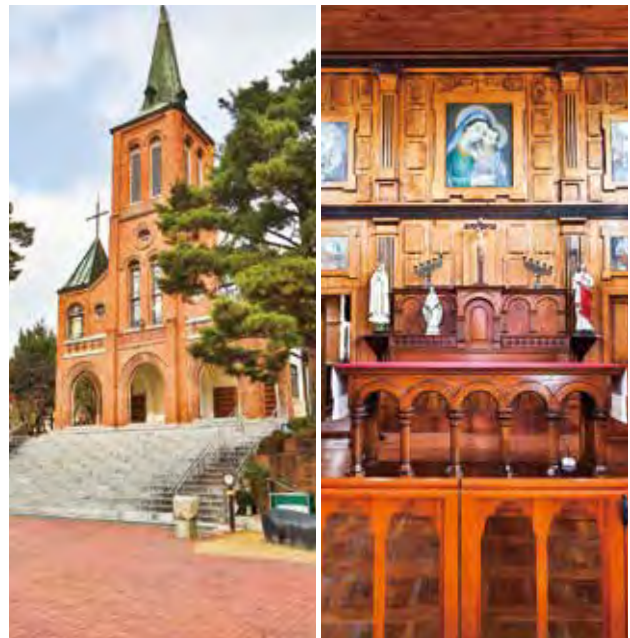
This Gupo-dong Catholic Church building with more than 100 years of history is famous for its unique exterior appearance. The façade of the building shows a typical Western-style Catholic Church with the soaring spire, whereas, the flank of the building shows a traditional Korean-style house with wooden columns, a tiled roof and rafters. The building was built by A French Priest Combert(Korean name Gong An-guk) bought a house in 1901 and used it as a temporary Catholic Church, and he reconstructed it by using building materials such as lumber, roof tiles, etc, brought from Dongan Gangdang located at Shinan-ri, Anseong-gun in 1922. Design and supervision were carried out by Priest Poisnel(Korean name Park Do-haeng). Its style of architecture that the Western style and the Oriental style were combined with each other was recorded as a valuable material that shows a compromised fusion style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construction in its early stage.

The building is composed of 3 rooms in the front and 9 rooms on side with three pointy towers. The center tower has octagonal shaped point and the both ones have quadrangular pyramid shaped points. The entrance and the bell tower changed according to Romanesque in 1955.



주소 경기도 안성시 혜산로 33(구포동)
 분류 종교·제례 시설
 연도 1922년
 건축주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지정 시도기념물 제82호(지정일: 1985. 06. 28)

Location 33, Hyesan-ro, Anseong-si, Gyeonggi-do
 Division Religious & Ritual Facility
 Year 1922
 Owner Catholic Church Diocese of Suwon Foundation
 Designation City & Province Monument No.82(Date of designation: 1985. 06. 28)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난 산업화의 주역

SK네트웍스

구)선경직물

The leading role of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post-war era

SK Networks
Old/Sunkyung Textile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79번길 23(평동)
분류 업무·생산 시설 / 주거·숙박 시설
연도 1959년
관리자 SK케미칼(031-240-8107)
추천사유 1950년대 말의 건축 기술을 살펴볼 수 있음

Location 23, Pyeongdong-ro 79beon-gil,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Division Office & Production Facility / Residential & Accommodation Facility
Year 1959
Management SK Chemicals(031-240-8107)
Remark It shows architectural technology of the late 1950s

SK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의 출발점으로 1953년 고 최중건 초대 회장이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곳에서 고철을 팔아 첫 생산을 시작한 이후로 1년 만에 제1공장을 복구했다고 한다. 1962년에는 국내 최초 인조 견직물을 수출해 세계 3위의 대형 그룹으로 성장했다.

본관 1층 현관에는 방풍실이 마련되어 있고, 중앙의 넓은 업무실 주변에 응접실과 별실이 있다. 2층에는 사장실과 별실, 중앙에 업무실이 있고, 현관 상부를 발코니로 사용하였다. 현관 출입구 바닥의 먼지 처리 장치, 각 부분의 디테일 등 1950년대 말의 건축 기술을 짐작할 수 있다.

This place was the starting point of Sunkyung Textile(later SK Networks), the matrix of SK Group Co., Ltd. The founder of the company, Choi Jong-geon, opened his business at this place in 1953. After the Korean War, he restored the first factory in a year since he sold scrap iron. The factory exported artificial silk fabrics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in 1962, and has developed into the conglomerate ranked the number three in financial circles.

On the first floor, there are the reception room and special guest room in the center of a wide office, and on the second floor, there are the president's room, special guest room and office. The upper side of the entrance was used as a balcony. The dust treatment unit on the floor of the entrance and other details show the construction techniques in the late 1950s.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현대건축

휴게소에서 감동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덕평자연휴게소

Have you got any impression from a resting place?
Deokpyeong Eco Service Area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만나는 휴게소는 운전자들에게 오아시스와 같다. 2007년 개장한 덕평자연휴게소는 기존 휴게소의 통념을 뛰어넘은 새로운 유형의 복합휴식공간을 선보여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아울렛 매장, 러브가든, 강아지체험공간, 덕평숲길 등 곳곳에 즐길거리, 볼거리가 가득하다.

덕평자연휴게소의 디자인은 자연, 특히 숲속의 나무 형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위계를 갖춘 건축물은 친근감과 편안함을 선사한다. 바위를 상징하는 중앙 건물은 형태와 표면의 재질감이 그대로 내부로 관통되고 주변의 지붕과 천창으로 빛이 분절되어 밤과 낮, 밖과 안이 서로 교감한다. 내부는 돌과 나무의 색상과 패턴이 반복되며 수직기둥과 창호에 설치된 목재 수직 루버에 의해 외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화장실에는 한가운데 중정을 도입하고 거울이나 창문 틈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숲속의 화장실을 구현했다.

이 밖에도 주차장에서부터 중정까지 건물을 관통하며 흐르는 리기다소나무 숲은 숲속에서 휴식을 보낸다는 상징성, 건물의 재질감과 패턴이 자연의 일부로 느껴지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휴게소 건물에서 반복되는 수직기둥과 창문의 수직 루버는 이를 통해 보이는 수직 소나무 숲과의 조화를 의도했다.

Resting places are like oasis for those who are driving vehicles on highways. Deokpyeong Eco Service Area was opened in 2007, unveiling a new realm of composite resting place. The resting place has a wealth of attractions, including outlet, love garden, puppy experiencing space, and forest paths.

The resting place has a design rooted in nature, especially after the shapes of trees in the woods, in harmony with nature, and in cozy ambiance. The structure has a middle section that symbolizes a figure of rock, where lights reflect onto roofs and ceiling, creating a variety of images that are changing day and night, as if the outside exchanges with the inside. The interior is decorated with colorful patterns of stones and trees, and wooden louvre on vertical pillars and windows, in harmony with scenery outdoors. There is a courtyard in the middle of resting rooms in which nature is reflected onto mirrors and windows.

The resting place is neighbored by rigida woods which stretch from parking lot through courtyard, serving as another resting place for users in natural ambiance.



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154번길 287-76(각평리)
 분류 도로·교통 시설
 연도 2006년
 설계 인의식, 연미건축
 건축주 덕평랜드㈜
 수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 대상, 2007

Location 287-76, Deogi-ro 154beon-gil, Majang-myeon, Icheon-si, Gyeonggi-do
 Division Road & Transportation Facility
 Year 2006
 Design Ihn Ui-sik, Yunmi Design Co., Ltd.
 Owner Deokpyeong Land Co., Ltd.
 Awards Korea Architectural Culture Grand Prize in 2007



동서양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주거공간

르 씨뜨 빌모트

Residential space with western and eastern beauty
Le Site Willmotte

르 씨뜨 빌모트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 루브르박물관 실내 디자인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의 작품이다. 그는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우리나라 건축 디자인 문화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

유럽형 저층 공동주택인 르 씨뜨 빌모트의 기본 콘셉트는 '자연 속 미니멀한 건축'이다. 첫 인상은 매우 심플하고 모던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동양적인 멋스러움이 함께한다. 흑벽돌이 깔린 바닥에 정갈한 정원수가 심어진 길, 따스한 햇볕을 받아들이는 정원과 시원한 녹음은 거주민들에게 늘 자연과 호흡하는 기분을 선사한다. 건물 주변의 연못과 징검다리에서는 한가로운 멋이 느껴진다.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유리 매스는 빛과 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고, 밤과 낮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기능한다.

각 세대 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동간 외부공간에 대나무 숲을 조성해 호젓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내부 창호는 한지 목재 창으로 꾸였고, 내부 가구 또한 색상을 단순화하여 거주자의 다양한 실내장식에 순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하였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그 삶터 역시 자연과 호흡하며 영위해야 한다"는 장 미셸 빌모트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르 씨뜨 빌모트는 국내에 새로운 주거 개념을 제시한 창의성 넘치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Le Site Willmotte was designed by world famous architect Michel Willmotte who designed Louvre Museum and Champs Elysees Street in Paris, and contributed to improving architectural culture in Korea while in service at Hongik University.

The townhouse features a 'minimal structure in the nature' in European style, creating a simple and modern image added by oriental beauty. There is a garden lined with trees on black brick-paved ground, serving as a resting place for residents. In the neighborhood, pond and bridge are arranged for leisure in cozy ambiance. On the part of elevators, glass mass is a reflection of light and scenery, creating ever-changing images day and night in a symbolic way.

Bamboo woods are in place outside between building sections for privacy of household units, the interiors of which are decorated with Korean paper and wooden-framed window and furniture in simple colors to suit their different tastes.

Jean Michel Willmotte says, "Human beings belong to nature, and should keep their houses to live in harmony with nature." The townhouse is well received for a creative structure that presented a new concept of residence in Korea.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351번길 9(운중동)
 분류 주거·숙박 시설
 연도 2005년
 설계 장 미셸 빌모트·임상관, 건축사사무소 테트라아키텍트
 건축주 다수(집합건축물)
 추천사유 공동주택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프로젝트

Location 9, Haogae-ro 351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Division Residential & Accommodation Facility
 Year 2005
 Design Jean Michel Willmotte - Lim Sang-gwan Design Tetra Architect
 Owner Multiple(collective structure)
 Remark Project of presenting an alternative for residence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현대건축

예술과 사람 그리고 소통

백남준아트센터

Art, people and communication
Nam Jun Baik Art Center

하늘에서 바라본 백남준 아트센터는 마치 피아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경기도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과 이웃하고 있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아트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가족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시관으로서의 독특하게 내부 촬영이 자유롭게 허락되어 관람자들이 이 안에서 한명의 사진작가 혹은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백남준 아트센터의 첫인상은 주변을 반영하는 검은색의 스트라이프와 쇼윈도이다. '스크린 파사드(facade)'라고 불리는 이 입면은 각기 다른 반사율을 갖는 인쇄유리를 여러 층으로 겹쳐서 구성한 것으로 담당 건축가는 백남준이 작품에 사용한 초창기의 흑백텔레비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이야기한다.

외부공간이 편안하게 아트센터를 감싸고 있다면, 내부공간은 긴장감 있는 미디어 아트의 연속으로 밀도감 있게 구성되어 있다. 내부 공간 모두가 백남준의 작품을 테마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은 단순히 작품을 대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 관람객들은 미로와 같은 전시 공간을 따라 이동하며, 백남준의 생애와 작품을 체험하게 된다.

로비는 전시의 처음과 끝이 만나는 곳으로 인포메이션에서 가방을 맡긴 뒤 자유롭게 감상을 시작할 수 있다. 내부로는 전시장과 라이브러리가 연결되어 있고 외부로는 카페테리아와 이어져 있어 선택적인 감상이 가능하다.

Nam Jun Baik Art Center is reminded of a figure of piano when looking downward from the sky. The center is neighbored by Gyeonggi Province Museum and Children Museum, so a throng of visiting families can be noticeably seen. Unusually, visitors are allowed to take pictures within the exhibition hall. There, they become photographers or media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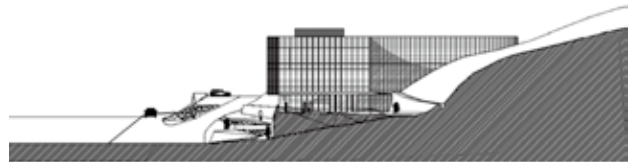
First, visitors are greatly impressed by black strips and show windows. The screen facade is comprised of multilayer printing glass with different reflection ratios. An architect in charge said that Baek Nam-jun had been initially inspired by black TV sets.

The art center's exterior appears to be in cozy ambiance, while the interior is decorated with a continuum of media art in a refined way, and is packed with his works arranged in thematic categories, so visitors are ensured not to appreciate them as objects but to do acts within them. Spectators move along exhibiting spaces in labyrinths, only to experience his life and works. Lobby is at start and end points in the course of exhibition. The exhibition hall is connected to library inside, leading to cafeteria outdoors.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상갈동)
 분류 문화·체육 시설
 연도 2010년
 설계 크리스텐 쉐멜-마리나 스타코비치-김병현,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주 경기문화재단
 수상 경기도 건축문화상 14회, 은상, 2009 /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2008

Location 10, Paiknamjun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Division Culture & Sports Facility
 Year 2010
 Design Kristen Schemel Marina StanKovic-Kim Byung-hyun, Changjo Design Group Co., Ltd.
 Owner Gyeonggi Culture Foundation
 Awards Gyeonggi Province Architectural Culture Prize, silver prize, 2009
 Korea Architectural Culture Grand Prize, 2008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아이들의 공간

이우학교

Space for children where nature coexists with civilization
Ewoo School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막로 287(동원동)
 분류 교육·연구 시설
 연도 2007년
 설계 강원필·김승희, ㈜경영위치 건축사사무소
 건축주 학교법인 이우학원
 수상 한국건축가협회상, 본상, 2005

Location 287, Dongmak-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Division Education & Research Facility
 Year 2007
 Design Gang Won-pil·Kim Seung-hoy, KYWC ARCHITECTS
 Owner Ewoo Academic Foundation
 Awards Korean Architects Association Prize, 2005

성남시 분당구 산자락에 있는 이우학교는 '자연과 문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를 이루어 낼 인재를 기른다'는 교육목표에 걸맞게 소나무 군락과 맑은 시내가 함께 있는 29,750m² 부지에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지어졌다. 태양열과 자연 환기를 이용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 녹색통로의 확보 등 '친환경' 하면 흔히 거론되는 레퍼토리뿐 아니라, 우수와 오수의 활용, 실개천을 이용한 세 단계의 수변 공간 조성,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재료 사용 등 마스터플랜·설비 방식·시공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고려했다.

건물과 마당을 이어줄 뿐 아니라 성장의 바탕이 될 다릿길, 마당과 길의 성격을 함께 지닌 길마당, 건물에 접속되는 열린 계단, 외피에 붙은 발코니와 차양, 정자들과 연결되는 오솔길 등, 여러 가지의 중간 영역들이 학교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대부분의 이우학교 시설들은 지역사회에 개방된다.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설들은 다릿길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체육관, 도서관 등 여러 장소들이 주민들과 공유되면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축과 교육은 '벗과 함께'라는 의미의 교명 이우(以友)와도 일맥상통한다.

Ewoo School is located at the foot of a mountain in Bundang, Seongnam City, with an aim to nourish talents who will contribute to building a world in which nature coexists with civilization in peace. Ewoo School was built in an eco-friendly manner on a land site of 29,750m², neighbored by pine colony and clear stream. Consideration was taken into sustainable ecosystem, including the use of solar energy and good quality and waste water, and natural ventilation, three-staged waterside spacing, and recycling construction materials and use, ranging from master planning through until installation stages.

Ewoo School has an array of bridge road, open stairways accessed to buildings, balcony and sunshades, and trails in link with arbors, all of which are ensured to lead school life better.

There, most of facility are opened to share with the community. A network is built via bridge road. Ewoo School does not simply serve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but also as hub of local community, while sharing gymnasium and library with residents. A new paradigm of architecture and education is in line with the name of the School 'Ewool(with friends)'.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현대건축

연천의 고고학 문화명소

전곡선사박물관

A spot of archeological culture at Yeoncheon
Jeongok Prehistory Museum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전곡리)
 분류 문화·체육 시설
 연도 2011년
 설계 Nicolas Desmaziere(기본설계), ㈜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실시설계)
 건축주 경기문화재단
 수상 국제설계공모(국제건축가연맹 UIA)

Location 2, Pyeonghwa-ro 443beon-gil, Jeongok-eup, Yeoncheon-gun, Gyeonggi-do
 Division Culture & Sports Facility
 Year 2011
 Design Nicolas Desmaziere, France(preliminary design)/SAC International Co., Ltd.(detailed des
 Own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wards International Design Subscription(UIA)

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돼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 세워진 선사박물관이다. 사적 제26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전곡리 선사유적은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밝혀 줄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구석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4월 25일 개관한 이 박물관은 국내 선사 박물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약 80만 m²에 달하는 전곡리 선사유적을 배경으로 한 이 박물관에는 전곡에서 출토된 석기 유물들을 중심으로 추가령 지구대의 자연사,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 및 인류 모형,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확산, 동굴벽화 재현 등의 주제로 전시가 이뤄진다.

건물이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고 자연환경 속으로 스며들어 그 위에 산책로를 만들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여 현대적인 느낌을 간직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조명으로 멋진 분위기를 연출한다.



It was Asia's first surprising event that Acheulean hand-axes were first excavated in Yeoncheon-gun, Gyeonggi Province, resulting in keeping Jeongok Prehistory Museum in place. The site of relics of 800,000 m² is designated as Historic Site No. 268 as it is deemed a material which evidences the history of dwellers' life in the Old Stone Age, and is referenced for studies of the Paleolithic Age in Korean peninsula and the East Asian areas.

The museum was opened in April 2011, largest in size among local museums. The establishment holds a variety of exhibitions that focus on excavated relics from the Stone Age, fossils and anthropological archetypes that evidence the natural history and evolution of mankind, environmental adaptation and proliferation, and replicas of mural paintings from caves.

The museum has buildings not protruded above ground but absorbed in natural environment, on which a walk is arranged for visitors to freely use. The museum features its facade made of stainless steel materials, generating modern images and more spectacular mood at nighttime.



녹지에 둘러싸인 친환경 주거단지 타운하우스 '웰가'

Eco-friendly residential complex neighbored by green area
Townhouse 'WellGa'

고급 타운하우스 웰가는 '배산임수'의 지형으로 기존의 경사지형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존하면서 동측의 조망 축과 남측의 일조 축을 고려했다. 단독주택 필지 계획과 단지중앙의 오픈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중앙공원의 배치 계획은 개방감 있는 오프닝을 통해 공간의 쾌적함과 시각적 만족도를 최대한 표현했다.

3967m²의 중앙 오픈스페이스는 단지의 중앙에 형성되어 모든 필지에서 산책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수공간과 퍼팅그린, 잔디광장, 야생화 정원, 생태연못 및 산책로, 데크 및 목재 정자 등의 휴양, 편의시설과 단순히 조망을 위한 녹지공간이 아닌 실제 거주자들의 체험과 생활중심의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는 중앙공원이다.

웰가는 비도시지역의 전원주택이 갖는 가장 큰 문제인 냉난방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열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또한 단지 전체가 목조주택으로 지어지고 있어서 단열효과도 좋은 편이다.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이처럼 웰가는 삶의 구체적인 행위의 장소이자 다양한 삶의 욕구와 친환경 주거단지를 실현하려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The premium Townhouse WellGa is situated based on a theory of geomancy, 'facing waters against mountains,' while naturally preserving existing slope at maximum and regarding the right to view on the east and sunshine on the south. A central park was planned to sit on an open space in the middle of the complex, while maximizing spatial comfort and visual satisfaction.

The central open space of 3967m² was allotted to be in the middle of the planned land site, within easy access through a walk from everywhere. The park is housed by an array of resting and convenience facility and green areas, including water space, putting green, turfs, wild flower garden, ecological pond and walk, deck and wooden arbor.

The WellGa introduces terrestrial conditioning system to minimize heating/cooling expenses borne by households in non-rural areas. The residential area includes household units in wooden materials overall, so resulting in better insulation effects. The lower the thermal conductivity, the higher the insulating effects. Cooler in the summer, warmer in the winter. The WellGa positions itself as a residential area which is intended to meet the needs of living styles in an eco-friendly way.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로219번길 70-36(문촌리)
분류 주거·숙박 시설
연도 2012년
설계 김종기, 남호건축사사무소
건축주 이한석
추천사유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건축적 배려

Location 70-36, Munchon-ro 229beon-gil, Wonsam-mye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Division Residential & Accommodation Facility
Year 2012
Design Kim Jong-ki, Namho Architectural Design
Owner Lee Han-seok
Remark Architectural considerations for residents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현대건축

내일의 길을 비추주다

플라리온스퀘어

Light the way toward future
Polarion Square

플라리온이라는 조명업체의 사옥 건물로 마치 레고 블록을 쌓아올린 것 같은 독특한 구조가 돋보인다. 플라리온스퀘어는 바로 옆에 인접한 행복공원을 도시적인 차원에서 공공성을 배려하고자 대지의 중앙을 비우고 대지의 양측에 건축물을 별개의 2개동으로 분리하여 세웠다. 중앙의 개방된 공간으로 공원의 전경을 항상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이다. 2개의 건축물 사이에는 공중 브리지를 연결해 서로 왕래할 수 있다. 대지와 건축물 사이의 외부공간에는 조경 공간, 수공간, 다양한 열주의 배치 등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생기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도록 고려했다. 특히 수공간의 경우 바닥이 투명유리로 구성되어 자연 채광이 지하 업무공간과 주차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도 노렸다. 별개의 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A동과 B동 사이의 최상층에서는 다시 대지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는 공중필로티가 형성되어 있다. 중앙의 공중필로티 사이에 오픈된 띠 모양의 형상이 있는데 이는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별 궤적을 선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건축주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상품인 '서치라이트'를 상징한다. 회사의 조형에 은유가 스며드는 순간 건축물은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읽어내고 사유하는 공간이 된다.

Polarion Square, a building of lighting company, features a unique structure that appears to be piled with Lego blocks. Considering the publicity of Happiness Park nearby in terms of urbanity, Polarion Square leaves the middle of the land site unoccupied, on both of which two building sections are separately placed, in order for Happiness Park to be viewed outside.

There is an overpass installed between the two. Landscaping and water spaces and pillars were arranged outside between the land site and building sections. Especially, transparent glass was put on the bottom of water space, so that natural lights may reflex onto offices and parking lot below ground, leading to energy-saving effects.

On the topmost floor between two buildings, a suspended piloti was placed in a shape of land. In between the middle of the piloti, a figure of an opened trap was placed, which is a linear expression of traces of Polaris and the Great Bear, symbolizing 'search lights' that are sold by the building owner. Metaphorically, a building structure serves even as a place where reading and thinking activities take place.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자성로 314(반월동)
분류 업무·생산 시설
연도 2011년
설계 삼정환경건축사사무소
건축주 주식회사 플라리온
수상 제7회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 건축물부분(업무시설), 우수상, 2011년

Location 314, Dongtanjiseong-ro, Hwaseong-si, Gyeonggi-do
Division Office & Production Facility
Design Sanjeung Environment & Design
Owner Polarion Co., Ltd.
Awards Korea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al Technology Grand Prize, architectural structure sec(alffice facility), Honor Prize, 2011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할렐루야교회

People meet God
Hallelujah Community Church

분당 할렐루야교회는 커다란 돔형의 본당이 눈에 띄는 독특한 디자인의 교회 건축을 보여준다. 예배와 최소한의 부속시설만을 위한 기존의 교회 건축에서 탈피하여, 선교·문화·청소년·가족 센터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교회의 완성된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의외로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우러지는 교회 형태는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고 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종교 건축물 특유의 채광 효과를 엿볼 수 있다. 정적인 공간을 비추는 정제된 자연광은 마치 적당한 리듬을 불어넣어주는 듯하다. 특히, 타원형 평면의 상부 천장에서 만곡된 3차원 벽면을 따라 떨어지는 빛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풍부한 변화를 보여준다. 할렐루야교회는 2006년 경기도 건축문화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교회 건물로 대상을 받은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자연과 건물이 조화를 이뤄 방문객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고 총평했다.

Hallelujah Community Church has a large-domed chapel that represents a unique structural design, away from existing buildings for worship and auxiliary facility in place only at minimum, and is well received for its complete model of modern church which performs multiple functions for mission work, culture, teenagers and family.

The Church features a shape that symbolizes Noah's ark from the bible, in harmony with the neighborhoods. When entering inside, visitors can get a religious impression through natural lights reflected onto static spaces or falling down along curved 3D walls from upper ceiling of an oval plane. The Church was awarded Grand Prize at Gyeonggi Province Architectural Culture in 2006, the first case in the Province. Jurors commented that "the Church was built in a design in which nature is in harmony with building, so visitors can feel familiar with the structure."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368(아탑동)
분류 종교·제례 시설
연도 1995년
설계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주 할렐루야교회
수상 경기도 건축문화상 11회, 대상, 2006

Location 368, Yatap-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Division Religious & Ritual Facility
Year 1995
Design Junglim Architecture Co., Ltd.
Owner Hallelujah Christian Church
Awards Architectural Culture Prize by Gyeonggi Province, Grand Prize, 2006



아름다운 경기건축 역사전

현대건축

안보의식의 바른 이해

해군2함대 안보전시관

(서해수호관)

Understanding of security consciousness

Unification Security Exhibition Hall, Republic of Korea Navy 2nd Fleet(ROK Navy Museum)

연평해전과 천안함 침몰 사건은 우리나라 소중한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가슴 아픈 상처로 기억되고 있다. 이들의 희생을 오래도록 되새기고 애도를 표하기 위한 서해수호관이 2011년 개관했다. 해군2함대 영내에 위치한 서해수호관은 연평해전과 천안함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하고 서해 NLL과 관련된 크고 작은 분쟁에 대한 사료들을 전시함으로써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서해수호관은 첨단 BIM 기법을 통해 건축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전체 골격을 금속 외피가 감싸 안으며 해군 전함과 파도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독특한 외관을 지니고 있다. 전시관은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는 'NLL과 해전실', 2층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실'이 각각 마련되어 제1·2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당시 각종 전투물품을 전시하고 있다.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할대길 122(원정리)
 분류 문화·체육 시설
 연도 2011년
 설계 ㈜간삼건축
 건축주 국방시설본부
 추천사유 다면체의 외형으로 역동적인 파도를 형상화

Location 122, 2hmdae-gil, Poseung-eup, Pyeongtaek-si, Gyeonggi-do
 Division Culture & Sports Facility
 Year 2011
 Design Gansam Architects & Planners
 Owner Facility Divis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mark Figuration of dynamic waves in multifaceted forms



주차 공간에 이런 매력이? 헤르마 주차빌딩

What an attraction in parking space?
Herma Parking Building

'주차빌딩도 잘 만들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헤르마 주차빌딩.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독특한 디자인의 4층 건물로, 인근 카페거리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1층에 6개의 상업시설이 있고, 2~4층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주차장 건물의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1층 상가 면적을 극대화하고 하천에 면한 전면부의 조경 공간을 테라스로 꾸몄다. 아침에는 직광을 받아 표피의 빛깔이 미세하게 백색을 띠게 되고, 정오에는 간접광으로 보라빛을 드러낸다. 석양이 지는 오후에는 노을을 반사해서 황금빛으로 변모하게 되고 저녁에는 내부의 조명과 외부의 네온사인을 반사해서 이색적인 풍광을 연출해낸다. 대지의 또 다른 특징은 사면이 다른 건물과 이웃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열려 있다는 점이다. 5겹 필름으로 구성된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은 외부 광원을 빛의 반사로 드러낸다. 이와는 반대로 야간에는 내부의 조명들에 의해서 외부로 광원들을 굴절시킨다. 즉, 주간에는 빛을 표피에 머금고 내부공간을 감싸 안지만 야간에 내부공간을 외부로 굴절시켜 투사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고정된 이미지란 없다.

Herma Parking Building is a representative case that 'a parking building can be a landmark only if it is well designed.' The four-storied building has a unique design to attract our eyes, serving as gateway directed toward cafe street nearby, including six commercial facility on the first floor, and parking spaces from the second through the fourth floor.

In order to overcome actual constraints with parking building, the commercial areas were maximized, and decorated with landscaping terrace in the facade. The building displays a panorama of lighting shining in white color in the morning, in violet and golden at noon or late afternoon and in neon sign color in the evening. The land site features opened four-sides that are independent from, not bordered by other building sites.

Fivefold-filmed polycarbonate panels are reflected by lighting sources outside. Lighting fixtures indoors reflect lights onto outside at night time. Here, recurrent images do not remain constant but changeable.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15번길 8-19(보정동)
분류 도로·교통 시설
연도 2010년
설계 이정훈, 조호건축
건축주 락손희
수상 젊은 건축가상, 2010

Location 8-19, Jukjeon-ro 15beon-gil,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Division Road & Transportation Facility
Year 2010
Design Lee Jeong-hoon, Joho Architecture
Owner Gwak Sun-hee
Awards Young Architect Prize, 2010



2017 경기건축문화제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제11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 대상 롤링네트 _ 박관근
- 금상 O:N _ 김시원
- 금상 Able _ 류지현, 이정훈
- 은상 이음 _ 박진수, 백종윤
- 은상 G-cart _ 신혜진, 김수연
- 은상 도담등 _ 박소연, 조희진
- 동상 바람大路 _ 송민진
- 동상 세라프 _ 권효재, 하지혜
- 동상 유니버설 버스 정류장 _ 김유선, 유은지
- 입선



2017년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



대상 롤링네트

박관근

롤링식 편리한 네트

이슈탐구

근처 체육공원에 도착했는데 배드민턴장에 네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진감이 떨어지고 흥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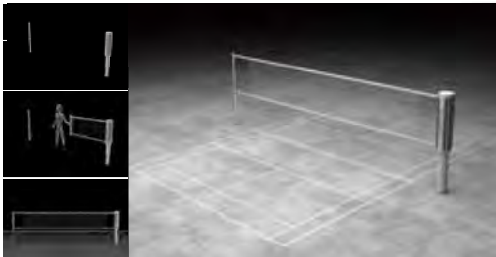
네트는 빗물과 또 내리 쬐는 태양의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게 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해결

설치가 쉽고, 해체가 쉬우며, 보관할 수 있어 유지관리가 쉬운 네트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디어 구체화

롤링네트의 특징은 네트가 항상 이 기둥안에 감겨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기둥 측면에서 네트를 잡고 잡아당겨 맞으면 기둥에 걸기만 하면 네트 설치가 끝납니다. 또 네트가 기둥 안에 보관되기 때문에 빗물과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슈탐구

"내가 당신이 임신부인지 어떻게 알아?"- 교통 약자식을 이용하던 임신부에게 시비를 건 30대 남성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임신부의 배를 치고 지항하자 별을 수차례 때렸다.- 2015년 4월 석계역 부근 1호선 내

문제발견

교통 약자식 자리 디딤에 관련한 민원 건수 2008년 62건에서 2012년 500 여건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교통 약자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해결

무조건 비워두는게 상책일까요? 더 효과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 반쯤로 양보를 지칭하고 강제하기 보다는 신상이 담긴 나눔을 유도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구체화

상대적이고 넓은 개념인 교통 약자의 본질적 의미 전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정 교통 약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교통 약자식을 편하게 이용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 초기 임신부나 성리부나 성리 혹은 두통, 장리 등으로 힘든 여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금상 O:N

김시원

교통약자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금상

Able

류지현, 이정훈

카드 단말기를 결합한 버스
하차 벨 디자인

이슈탐구

강기도는 다른 도시와의 높은 인접성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 시내버스 이용률이 높습니다. 높은 인접성 특히 연평이 높아질수록 자가용보다 버스나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발견

중공경제의 미실시로 인한 버스 기사들의 노동여건 열악해진다 보니 난폭운전으로 이어서 승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해결

노약자석 뒷면에 부착하는 단말기를 결합한 하차 벨 을 통해 노인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고 출구 열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 감소시키고 기존 하차벨의 인지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버스 운행 시간 단축 / 교통 체증 해소 / 버스기사 휴식 확보 / 안전 사고 감소 / 승객 피해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은상

이음

박진수, 백종운

전통 시장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화재 방지 및 정보 알림 복합 시스템

이슈탐구

해가 지날수록 점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 전통 시장의 시장 노후화로 인해 앞으로 화재 발생 확률은 더욱 올라갈 것. 앞으로의 대책 및 개선 방안 강구 필요

문제발견

- 화재 취약한 구조 : 시장 내 좁은 길의 좁은 간격, 인접 점포로 화재 확산이 쉬운 구조
 - 혼잡한 시장 환경 : 난잡한 건물들과 인접 점포 혼란, 천도가 명확한 종류별로 분류되지 않아 지면상이 낮은 시장 내부, 관리 유지가 힘든 시장 환경
 - 관리에 취약한 소방 시설 : 체계적인 소방 시설의 부재, 소방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
- 이런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혼잡한 시장을 정리해 줄 체계의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문제해결

- 모듈식 화재 방지 시스템 : 시장의 기존 구조에 맞춰 설계된 모듈식 방화 시스템으로 편의에 맞게 설치 및 관리 가능
- 피신 개념의 워터카튼 : 구획별로 설치되어 시장 내부로 방수되어 커튼을 형성해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스프링클러 시스템
-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앱 시스템 : 시장 이용자들을 위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시장의 혼잡한 정보들을 정리해 명확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앱 시스템
- 전통 시장의 화재 문화를 해결에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앱 시스템과 결합된 변화 시스템 제안

아이디어 구체화

- 시장 고객 : 쾌적해진 시장 내부 환경과 정리된 시장 정보를 통해 편한 시장 이용 가능
- 시장 상인 : 보다 편리해진 시장 이용으로 인한 고령의 증가로 정리된 시장 내부 환경으로 고객들의 신뢰도 획득
- 관할 소방서 : 화재 시 초기 화재 진압을 도와 수고 절감, 지속적인 소화시설 점검으로 안전성 증대
- 지자체 : 시장 구획별로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정체성 형성으로 전통 시장의 홍보 효과 증가



은상 G-cart

신혜진, 김수연

경기도 전통시장 카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이슈탐구

경기도 내에는 200개나 되는 전통 시장이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발견

전통시장 특성상 험난하고 좁은 시장길에 비해 덩치도 크고 다루기 힘든 카트 때문에 불편합니다.

문제해결

- 전통시장 특성에 맞춘 전통시장용 전용카트
- 시장 내 스마트 길재부터 카트 대여와 배송시스템 업

아이디어 구체화

- 고령화 된 시장 이용객들을 위한 보행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카트
- 좁고 험난한 시장 길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작은 카트
- 시장에서 쓰이는 비닐 봉지들을 쉽게 갈 수 있는 후크 달린 카트



은상 도담등

박소연, 조희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신호등

이슈탐구

어린이 횡단중 사고 가 51.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가 30.5%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의 돌발적인 행동과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 안전운전 의식만 높여도 사고를 5%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발견

- "주행중 60km/h 가 갑자기 30km/h로 바뀌었어요"
- "밤 12시에 과속으로 걸렸어요"
-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해요"

문제해결

어린이 교통 안전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이디어 구체화

최적하는 투명패널 LED패널이 신호에 따라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의 방향, 초록불일 때는 횡단보도 건너는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운전자, 일반시민들도 어린이 사고 다발지역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동상 바람大路

승민진

교통약자를 위한 경기
도 버스 정류장



이슈탐구

저상버스 보급이 더 활성화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도블럭을 버스 내리는 턱에 맞춰 높이만 줄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보도블럭을 뜯어내기 때문에 그때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발견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은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표시하고 뭐 하러 유모차를 가지고 왔는지 물어보는 분도 계십니다. 유모차를 갖고 버스를 타려다 승차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해결

태양열 전지판을 이용한 자체 전력 공급하며 다양한 신호를 위한 LED 글라스 설치를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경자 블록을 만들고 바닥 센서를 통해 조명 효과 가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구체화

LED MEDIA FACAE를 이용해 교통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바람대로 신호를 보내어, 저상버스 기사님께 교통약자가 대기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등 위험 신호를 알릴 수 있습니다.

동상 세라프

권효재, 하지혜

시민안전진을 위한 드론 방범시스템



이슈탐구

경기도의 공목장은 협소하고 사적지대가 많아 강력 범죄에 취약합니다.

문제발견

협소한 공목과 턱 없이 부족한 CCTV로 안전을 위협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해결

아름리케이션을 통한 드론 순찰 서비스 제공해 문제 발생 시 현장 출동이 가능합니다.
1. 경각 순찰
2. 동행 서비스
3. 경고 및 모니터링

기대효과

범죄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차안을 증대하여 경찰 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슈탐구

경기도 버스 이용률은 높은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저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버스 정류장(환승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발견

무질서, 휠체어 탑승 어려움, 의자 부족, 도착 정보 안내 부족, 버스와의 인도간 거리, 접지 블록 훼손, 도로 훼손, 노선도 확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해결

접지 블록 설치/ 승차홈 분류와 키오스크 설치/ 의자 간격 및 갯수 조정, 대기라인 및 맨스 설치, 저상버스와 맞는 단 높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장애인 승차홈으로 질서 유지를 돕고 시각장애인에게 청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맨스의 단 높이를 조정해 도로 쪽으로부터 오는 위험요소를 막고 인도 안에서 안전한 버스 탑승을 이룹니다. 대기라인은 모든 이용자들의 질서 있는 탑승을 돕습니다.



동상
유니버설
버스 정류장

김유선, 유은지

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유니버설
버스 정류장

작품명	출품자
횡단보도 스몸비 사고 예방 방안	강민준, 최기현
전통시장 핸드카트 쉐어링	정종학, 김동현
Boundary	김영채, 문다슬
Multi Function Product Service Design	김은재
경기아이패스	박홍규, 이경연
움 뜰	고은지, 이종은
Water Drop	임윤영, 정보은
HANDRAIL U.V STERILIZER	전유민
COD B	조준혁
easy way AIR INJECTOR	전하건
BIO WALL	최다빈, 이초원
신도시에 적용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이용한 쓰레기통	허지웅
XCrosswalk System	한 용
SOLAR RECHAREABLE STAND	홍 욱

입선

2017 경기건축문화제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제5회 경기 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





대상	창작부문 - 도자기향기	장려상	창작부문 - 으뜸용접
은상	창작부문 - 책 읽는 사람들	장려상	창작부문 - 가위 든 남자
은상	창작부문 - 시계 고치는 집	장려상	창작부문 - 이집저집 공인중계사
은상	기존부문 - 동행	장려상	창작부문 - 가까운 동물병원
은상	기존부문 - 럭키친	장려상	창작부문 - 수원을 보다
동상	창작부문 - 옷수선의 새로운 변화	장려상	기존부문 - 오빠네아구
동상	창작부문 - 생각나무 공부방	장려상	기존부문 - 술도둑
동상	기존부문 - 종하씨 닭갈비	장려상	기존부문 - 자연애공방
		장려상	기존부문 - 일품축산

제5회 경기 으뜸옥외광고물 공모전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외국인 제외)
- 기존광고물의 출품자격은 광고물제작업자, 건물주, 광고주

공모분야

- 기존·창작광고물 2개 부문
- 기존 광고물은 경기도 내 설치된 광고물

접수방법

- 1차접수(온라인): 2017. 6. 1.(목) ~ 6. 30.(금), 30일간
- 접수처 :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design.gg.go.kr
(참여하는 디자인-경기 으뜸옥외광고물 공모전)
- A3 세로 사이즈 72dpi, JPEG포맷(RGB 컬러, 5MB이하 압축 저장)
- 본선접수 : 2017. 7. 17.(월) ~ 7. 28.(금)
- e-mail 접수 (입선자에 한해 추후 통보)
- A1세로 사이즈 200dpi, JPEG포맷(CMYK 컬러, 10MB이하 압축 저장)

선정 및 시상

- 수상작 발표 : 2017. 8월(예정)
-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design.gg.go.kr)에 게재
- 시상내역 : 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 수여
- 대상 1점(500만원), 금상 2점(150만원), 은상 4점(100만원)
동상 4점(25만원), 장려상 10점(옥외광고협회장상)

문의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031-8008-3518



제5회 경기 으뜸옥외광고물 공모전은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광고물과 창작 광고물 2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자기향기 SIGN DESIGN

도자기 문채 가게 부속공간을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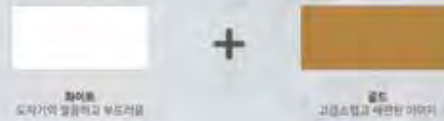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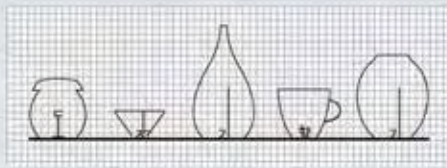


대상
창작부문

도자기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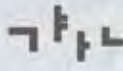
메인 타입 _ 벽면간판(가로형)

선반에 올라가져 있는 도자기들을 형상화하여 멀리서도 무엇을 취급하는 가게인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도자기향기라는 타이포는 도형미를 극대화 하여 도자기에 새겨진 무늬로 느끼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도자기에서 느껴지는 울드한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랜디한 라인아트를 이용하여 실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도자기의 형태 중 다섯가지를 단순화 시켰습니다. 타이포(글씨) 또한 자음과 모음의 도형미를 극대화 하여 글자 뿐만 아니라 도자기에 새겨진 무늬같은 느낌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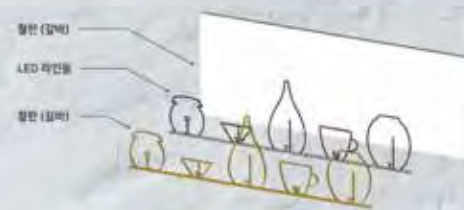
또한 간판을 한눈에 보았을 때 선반에 올려진 도자기들을 보는 것 같아 멀리서도 무엇을 취급하는 가게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도자기의 전통적인 골격

자음과 모음 (라인아트)

문면에서는 화이트를 이용하여 백자의 깔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 하였고 자칫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포인트 컬러-골드를 활용하여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로 해결하였습니다.



응용 타입 _ 테코스티커

간판의 실재함과 달리 면재의 느낌을 주어 창문이나 벽면에 데코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응용 타입 _ 돌출간판

간판의 형상을 응용하여 가게의 제품(도자기)에 어이던티티를 부여할 수 있는 투고형 간판입니다.



은상
창작부문

책 읽는 사람들

책 읽는 사람들

벽화가 간판이 되다

DESIGN VIEW



방안 (여간)

책 모양의 벽면 간판이 벽화이라는 인자성을 더해 노형벽의 급제도 불리는 시간성을 준다.

방안 (여간)

여간에는 벽토그림 책모양의 불을 간판의 노형에 LED조명인 후박성을 적용어 본다.

BACKGROUND

책방의 간판을 통하여 간판에 살아 있는 불의 불꽃 연꽃의 유사한 지각의 간판이 되도록 하였다. 유사한 지각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책 모양으로 벽토를 그려서 벽화 제작이 간편이 되도록 하였다.

DESIGN CONCEPT



은상
창작부문

시계 고치는 집

시계고치는 집

치는 법

디자인 도면 Design Drawing



디자인 컨셉 Design Concept



시간을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시계는 우리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다. 현대 사회생활에서의 시간 약속은 기본이자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는 시간을 확인하는 불도행만 아니라 패션의 아이템으로도 사용된다. 시계를 고치는 시계방의 디자인 간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일문채 슈프의 손목시계는 모든 남성들이 꿈꾸는 자상인의 패션의 요소 중 하나이다. 고품질 슈프의 손목시계를 멋차리로 시계방의 간판을 형성화하였다. 간판 속 시계를 통해 시계방이라는 시간성을 높이고 고객의 방문에도 간판을 보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시간의 간판을 간판에 적용하였다. LED 재질을 이용하여 야간에 시간의 간판의 시간성을 높였다.

간판 이미지 Design Image



시계슈프의 상징을 담은 패턴을 형성해 현재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와 분침.

최정수슈프의 손목시계를 무리무리한 디자인.

야간 조감도 Simulation - Night





은상
기존부문

동행



작 품 명 럭키:친

부 문 기존광고물

광고물종류 가로형간판

재 질 갈바, 불투명아크릴 LED조명



피자와 분위기의 만남
시각과 후각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곳 럭키친!!

럭키+키친=럭키친

1.광고주의 요청으로
분위기를 먹는 컨셉디자인 진행.
2.주 메뉴인 피자판과 피자조각을
형상화하여 마크를 구상

벽면의 아치구조를 100% 살려
건물과의 일체감을 주어
광고의 집중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설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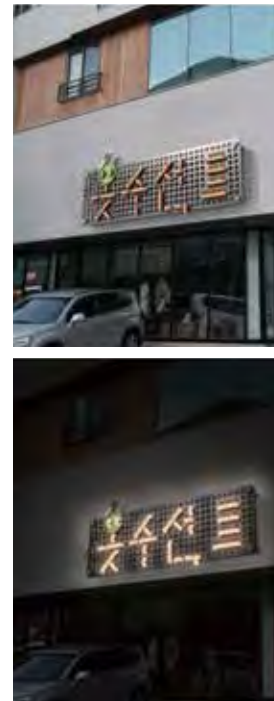


은상
기존부문

럭키친

동상
창작부문

옷수선의 새로운 변화



동상
창작부문

생각나무 공부방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마을이
나무와 같이 자라기를 바라는 뜻의
'생각나무 공부방'

생각나무 공부방의 디자인 컨셉은 전통의 느낌을 유지하되 젊은
후반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이러지만으로도 명교를 만들 수 있으며
대중의 인정을 위한 디자인의 요소로도 쓰일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동상
기존부문



종하씨 닭갈비

Design Concept

용접을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특징적인 이미지인 불꽃과 용접면을 포인트로 잡아 원거리에서도 용접소임을 알 수 있게 표현하였고, 불꽃의 느낌을 살리고자 네온사인으로 디자인 하였다.

Point Of The Sign

- 아크, CO2용접 시 발생하는 스패터를 글씨에 표현
- 네온사인 프레임은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분체도장하여 제작
- 차광유리 및 부분에 LED 조명을 달아 간접조명의 역할



장려상
창작부문



이뎡양점

장려상
기존부문



오빠네아구

아귀의 모양을 모티브로
뭉텅기고 거친 디자인과 독창성과 창의성을 표현하였다.

오빠네아구



장려상
기존부문



술도둑



2017 경기건축문화제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수원공업고등학교 건축디자인과
단독주택 프로젝트수업 작품





Le Grand Bleu

AAA

BEE

풍수지리

옹기종기

안다미로

온새미로

2017 경기건축문화제
수원공업고등학교 건축디자인과
단독주택 프로젝트수업 작품

Le Grand Bleu

수원공업고등학교 -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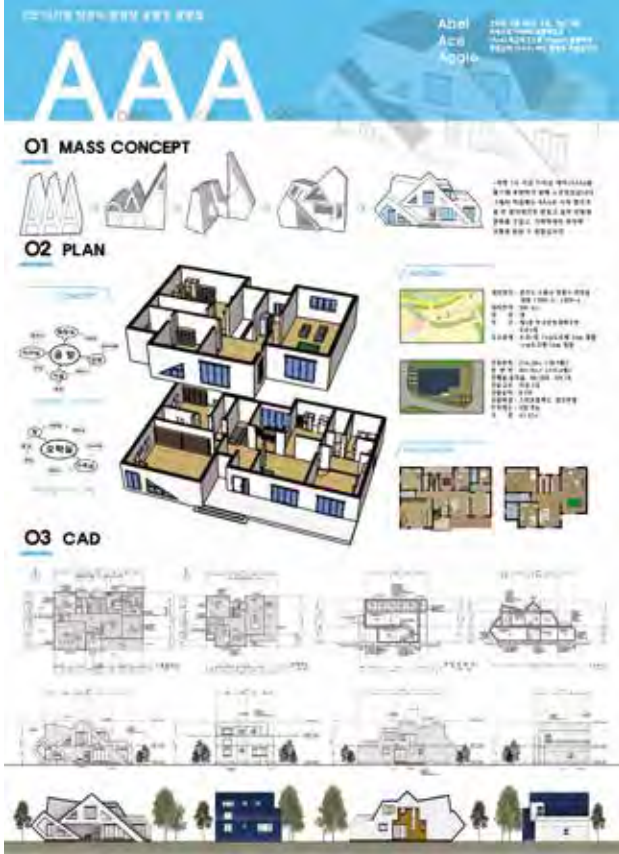
강동우(조장), 손현우(부조장)
배휘연, 최준수, 진선웅



AAA

수원공업고등학교 - 2조

이기영(조장), 양승미(부조장)
염성채, 홍준표, 우동호



BEE

수원공업고등학교 - 3조

길배호(조장), 이 슬(부조장)
용석민, 최현웅, 정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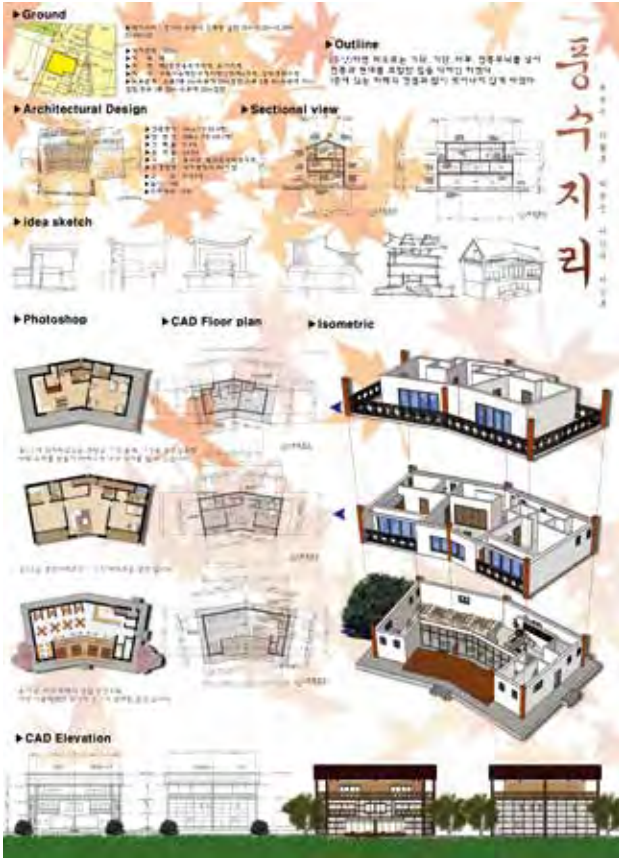


2017 경기건축문화제
수원공업고등학교 건축디자인과 단독주택 프로젝트수업 작품

풍수지리

수원공업고등학교 - 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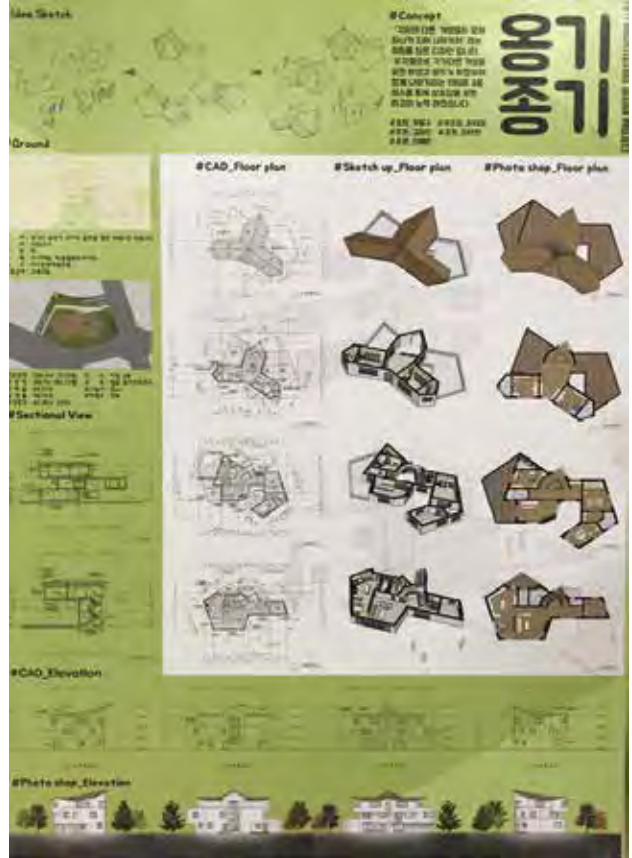
유은수(조장), 이인애(부조장),
박관순, 이한주, 이민주



용기종기

수원공업고등학교 - 5조

우동규(조장), 이태정(부조장)
김영찬, 양태현, 이에린



안다미로

수원공업고등학교 - 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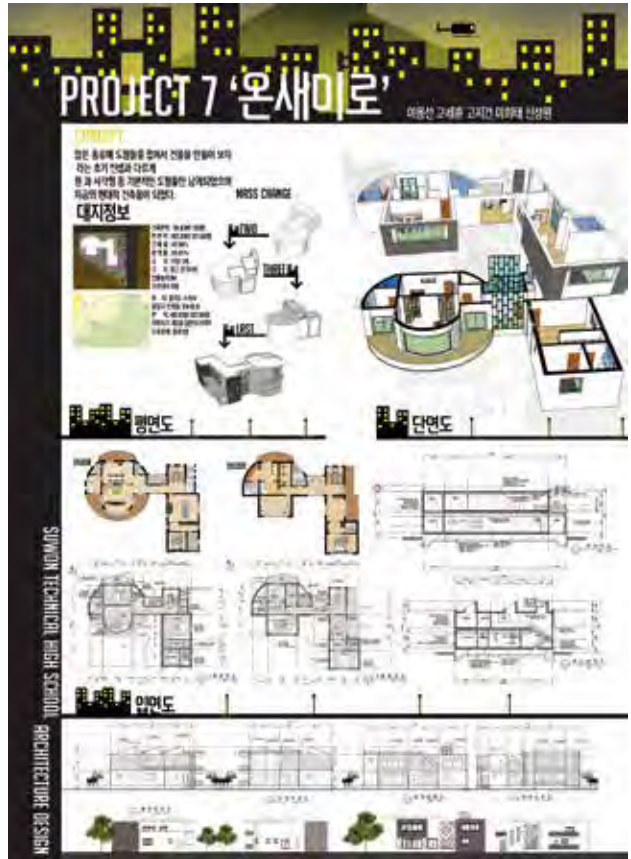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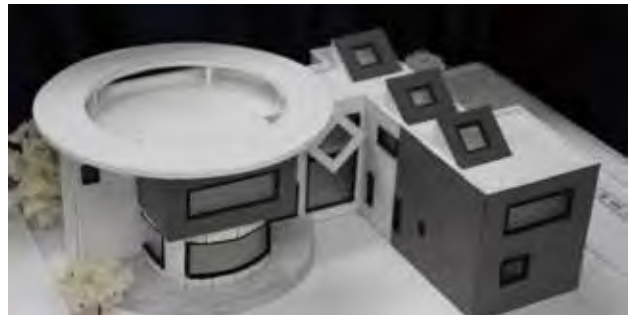
허유진(부조장), 임지찬(조장)
정지은, 이재희, 배서연



온새미로

수원공업고등학교 - 7조

길배호(조장), 이 슬(부조장)
용석민, 최현웅, 정찬양



2017 경기건축문화제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2017년 친환경 건축 축제





2017 경기건축문화제
2017년 친환경 건축 축제

2017년 친환경 건축 축제



🌿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녹색건축 체험수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홍보

개 요

- **기간/장소** : '17년 10월 13일 ~ 15일 /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 **사 업 비** : 20백만원
- **주최·주관** : 경기도, 시흥시, (사)국토환경지속성 포럼¹⁾
- **참여기관** : LH(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한국감정원(녹색건축센터), 한국에너지공단(건물에너지실), (재)꽃과어린이왕자(찾아가는 에너지학교)
 ※ 전시참여 업체 : LG 하우스, KCC
- **참여인원** : 약 2,400명('16년 1,850명)
 - 세미나 120명, 체험 2,280명 (체험수업 180, 짓기체험 100, 모형만들기 2,000) 등
- **프로그램** : 12개 운영 (세미나 3, 전시 5, 체험 4 / '16년 11개)

구 분	시간/ 주요내용	참여대상	주관(참여)	비고
세 미 나 10.13(금) 10~17시 초록배곧 2층	1세션 · 시간 : 10:00~12:00 · 내용 : 녹색건축 사례발표	도 및 시·군, 포럼관계자, 도민	경기도	
	2세션 · 시간 : 13:00~15:00 · 내용 : 발표 및 토론		(사)국토환경 지속성 포럼	
	3세션 · 시간 : 15:00~17:00 · 내용 : 녹색건축 설계기준, 녹색건축 정책 영상 상영		경기도	
전 시 10.13(금)~10.15(일) 야외부스	그린리모델링 사례 및 사업 안내	도 민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1개 부스
	녹색건축 관련 정책 안내 및 전시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절약 교육동영상 상영, 녹색건축모형(에너지사용량조회 등), 어린이 에너지절약 교재 배부		한국감정원	"
	친환경 건축 자재 전시		LG하우스, KCC	2개 부스
체 험 10.13(금)~10.14(토) 초록배곧 2·3층, 야외부스	제로에너지하우스 짓기 체험(10일)	도 민	시흥시/(사)국토환경지속성 포럼	
	에너지학교 에코통롱(2일)	초등생	(재)꽃과어린이왕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실험
	에너지 투머로우(1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관련 진로체험
	녹색건축물 모형 만들기(2일)	도 민	경기도	

¹⁾ 녹색성장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비영리 법인(회장 : 아주대학교 이규인 교수)

주요내용

세미나

- 일시/장소 : 10.13.(금) 10:00 ~ 17:00 /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2층 중등교육실
- 참석대상 : 120명 (도 및 시·군 공무원, 건축사 등)

① 녹색건축 사례발표

- 사례발표 :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적용기술 및 사례(노원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 강 의 :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건축센터 이응신교수



② 발표 및 토론회

- 진행방식 : 발제 - 주제토론 - 질의응답 (주제 : 도시재생과 친환경건축)
(발제) 아주대학교 이규인교수, W Architects 이원석대표, 서울시립대학교 이승일교수
(토론) 세명대학교 이태구교수, 중앙대학교 송하엽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유석연교수



③ 경기도 녹색건축설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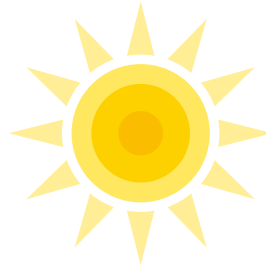
- 내용 : 추진배경, 설계기준, 질의응답 사례 등
- 강의 : 도 건축디자인과 황학용 녹색건축팀장



2017 경기건축문화제
2017년 친환경 건축 축제

전시

- **일시/장소** : 10.13.(금) ~ 15.(일) /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외부 부스
- **부스운영** : 5개소(기관 및 업체)
 -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감정원, LG하우시스, KCC
 - ※ 참여업체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5년)
-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사업 상담
공공 및 민간 그린리모델링 시공사례, 그린리모델링 공모전 수상작 등 전시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지원사업 홍보, 녹색건축 정책 안내 등
-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을 통해 주택 에너지사용량 조회 및 비교 시연,
어린이 에너지절약 교재 배부 등
- (녹색건축 자재 전시) LG하우시스, KCC 자재 등 전시 및 에너지 사용량 시연



체 험

- 일시/장소 : 10.13.(금)~ 10.15.(일) / 시흥시 에코센터 내 강의실 및 외부 부스
- 참석대상 : 2,280명 (체험수업 180, 짓기체험 100, 모형만들기 2,000) 등

① 제로에너지 짓기체험

- 체험내용 : 제로에너지 주택 짓기 체험/시흥시와 (사)국토환경지속성포럼 추진
- 참여대상 : 10.12(목) ~ 22(일)까지 10일간 100여명 참여(1일 20명-대학생, 도민 등)
※ 시흥에코센터 내에 제로에너지 주택체험관으로 활용예정



② 청소년 체험수업 운영

- 체험내용 : 신재생에너지 실험 및 에너지관련 진로체험
- 참여대상 : 초등학교 180명 (2과목 6class, 사전접수 140명/현장접수40명)



③ 녹색건축물 종이모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 참여대상 : 초등, 유아 현장참여 2,000명 (시흥갯골축제 사전홍보 1,000부 배부)



2017 경기건축문화제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유치부

대상	이윤지
최우수상	박서연
최우수상	김소이
시흥시장상	임세민
우수상	허지안
우수상	김연주
우수상	노유주
우수상	편다희
우수상	장현우
우수상	이찰스
우수상	민규현

초등부 저학년

대상	나하양
최우수상	김하랑
최우수상	박미경
시흥시장상	김효준
우수상	정가연
우수상	김소정
우수상	변서정
우수상	지혜인
우수상	장윤솔
우수상	이하준
우수상	서아린

초등부 고학년

대상	원하은
최우수상	박건욱
최우수상	전주희
시흥시장상	장재은
우수상	이하은
우수상	김도훈
우수상	김나연
우수상	신태근
우수상	이예나
우수상	박수미
우수상	곽정윤

중등부

대상	송진우
최우수상	김다예
시흥시장상	박시은
우수상	오찬용
우수상	전혜림
우수상	강주은
우수상	박찬모
우수상	진성진
우수상	이나영
우수상	이현지

특선 수상자
 가작 수상자
 입선 수상자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대상

경기도지사상

- 유치부



바닷속 2층 고래집

이윤지

새예술어린이집 사랑주는하나반



최우수상
경기도지사상
- 유치부

구름궁전
박서연
크레용어린이집 들꽃반



최우수상
경기도교육감상
- 유치부

우주아파트
김소이
새예술어린이집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시흥시장상

— 유치부



배위의집

임세민

해외달기앤주미술학원 블루반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상

— 유치부



즐거운도시

허지안

성체유치원 모세반



우수상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장상

- 유치부

비행기마을

김연주

해와달키앤주미술학원 블루반



우수상

경기도시공사장상

- 유치부

공주왕자우주성

노유주

배곧유치원 꿈별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상

- 유치부



나의상상의집

편다희

해외달미술음악학원 블루반

우수상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유치부



빛의도시

장현우

서촌병설유치원 한아름반



우수상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유치부

이찰스

해찬숲키즈어린이집 노을빛반



우수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유치부

케이크동산집

민규현

배곧유치원 다솜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대상

경기도교육감상

- 초등부/저학년



환상의 도시

나하양

배곧초 2학년 7반



최우수상

경기도지사상

- 초등부/저학년

우주에 있는 나무집터

김하랑

송운초 3학년 7반



최우수상

경기도교육감상

- 초등부/저학년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건물

박미겸

곡관초 2학년 3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시흥시장상

— 초등부/저학년



대나무집

김효준

반월초 3학년 5반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상

— 초등부/저학년



해저도시

정가연

정왕초 3학년 2반



우수상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장상

- 초등부/저학년

마당이 있는 아파트

김소정
고강초 1학년 4반



우수상

경기도시공사장상

- 초등부/저학년

하늘 집

변서정
서촌초 1학년 2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상

- 초등부/저학년



바다친구들과 살아요

지혜인

배곧초 1학년 3반

우수상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초등부/저학년



신발마을

장윤솔

매홀초 3학년 1반



우수상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초등부/저학년

움직이는 로봇 집

이하준

포리초 3학년 2반



우수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초등부/저학년

만능척척박사토끼집

서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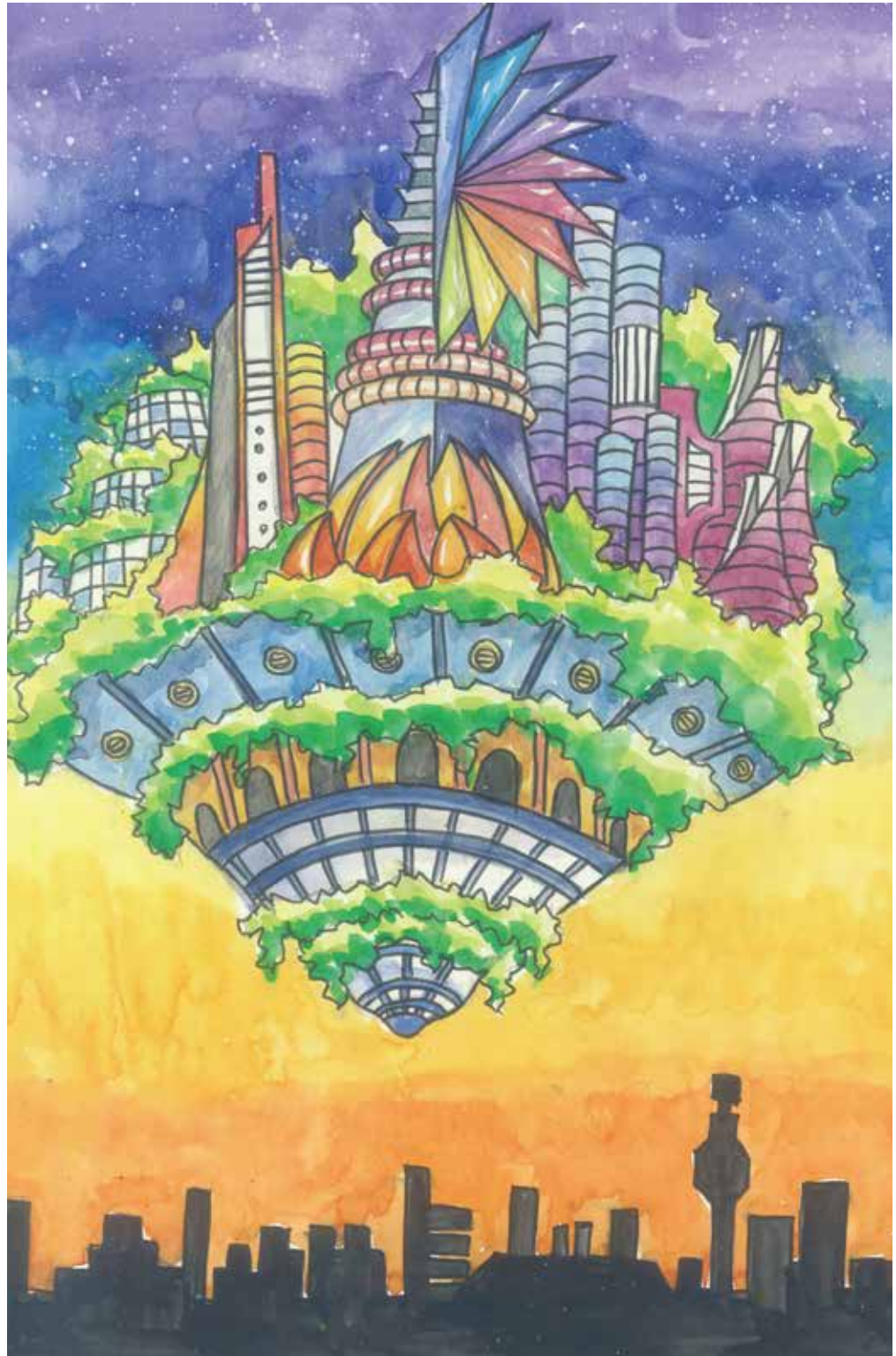
청옥초 2학년 2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대상

경기도교육감상

- 초등부/고학년



미래를 보는 건강한 공중도시

원하은

오현초 6학년 3반



최우수상
경기도지사상
- 초등부/고학년

자연과 함께하는 미래
—
박건욱
중일초 5학년 주황반



최우수상
경기도교육감상
- 초등부/고학년

연못도시
—
전주희
부양초 5학년 2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시흥시장상

— 초등부/고학년



환경도시

장재은

서해초 4학년 1반

최우수상

경기도시사상

— 초등부/고학년



미래건축가로서
달나라를 건설하다

이하은

포리초 5학년 2반



우수상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장상

- 초등부/고학년

캡슐마을

김도훈

부평초 4학년 2반



우수상

경기도시공사장상

- 초등부/고학년

곰돌이마을

김나연

동백초 5학년 3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상
- 초등부/고학년



트레인하우스
신태근
매원초 6학년 1반

우수상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초등부/고학년



내가 꿈꾸는 미래도시
이예나
중일초 4학년 파랑반



우수상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초등부/고학년

대한민국경기도우주정거장

박수미

하중초 4학년 4반



우수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초등부/고학년

미래의 물속세상

곽정윤

하중초 4학년 4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대상

경기도지사상

- 중등부



태양열로 이루어진 해양도시

송진우

연현중 3학년 9반



최우수상
경기도지사상
- 중등부

미래도시, 혁명을 꿈꾸다
—
감다예
조남중 1학년 1반



시흥시장상
- 중등부

연꽃도시
—
박시온
송운중 3학년 1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상

- 중등부



GALAXY ISLAND

오찬용

서해중 3학년 8반

우수상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장상

- 중등부



水中花

전혜림

문시중 2학년 6반



우수상
경기도시공사장상
- 중등부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다세대 주택

강주은
송운중 3학년 1반



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상
- 중등부

정왕 언더 시티

박찬모
연성중 1학년 4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우수상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중등부



우주속집

진성진

초지중 1학년 8반

우수상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중등부



바다와 도시와 물고기

이나영

시화중 3학년 4반



우수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중등부

수중도시

이현지

남수원중 1학년 9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특선

- 유치부



차예림	예다원유치원	초롱이슬반
한희을	예성유치원	믿음반
남해나	해와달키앤주미술학원	블루반
이서을	바나유치원	은혜반
손재이	보람유치원	즐거우반
이채민	시화리자유치원	꽃누리반
박정규	하담어린이집	산새반
정효찬	보람유치원	즐거우반
배수예	메이플베어평촌점	
이윤준	프라이미유치원	하버드반
김나연	메이플베어평촌점	7세반

박진아	시립진접어린이집	초록바다반
김나현	지혜와꿈의세상어린이집	해맑은1반
박하을	매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송이반
설고은	글로벌아름나라어린이집	
이다은	밀알유치원	인내반
박유나	세리숲유치원	하늘반
최수빈	보람유치원	행복한반
권하영	칼비테어린이집	캐티나반
홍예을	호원어린이집	하늘반
장채원	엄지어린이집	우주BEST반

특선

- 초등부/저학년



오원용	서해초	1학년 4반
김희주	시흥호	1학년 4반
이우민	매홀초	1학년 1반
김민결	새빛초	1학년 4반
임정민	배곧초	1학년 6반
부선우	배곧초	1학년 12반
장지우	서촌초	1학년 4반
장시훈	귀인초	1학년 6반
박세연	명당초	1학년 2반
오윤아	송운초	1학년 3반

황주하	포리초	1학년 2반
김하빈	부곡초	1학년 1반
성준우	정왕초	1학년 6반
김지원	생금초	2학년 2반
이은재	대야초	2학년 1반
박하은	매원초	2학년 1반
이보현	매원초	2학년 1반
원하음	매화초	2학년 3반
김영현	상원초	2학년 3반
김예은	정평초	2학년 4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특선

- 초등부/저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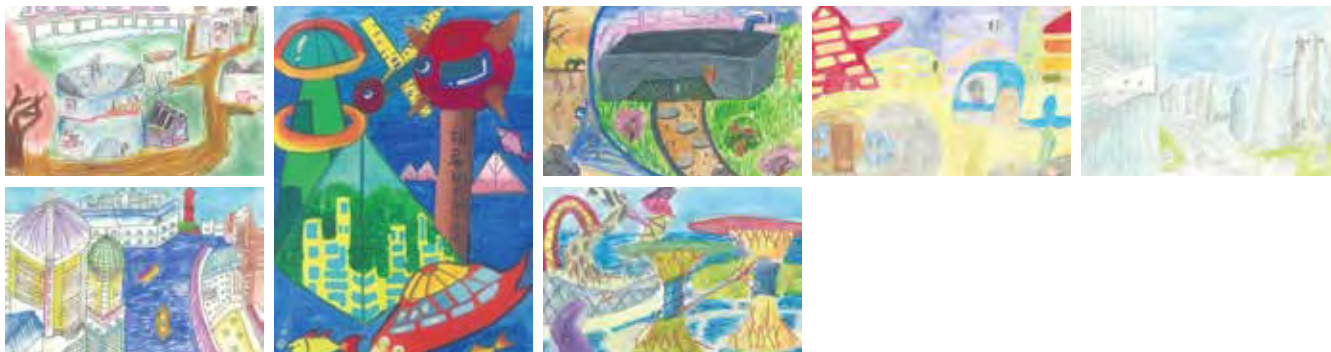


박수영	서촌초	2학년 4반
송승은	팔달초	3학년 2반
정영희	매홀초	3학년 3반
박이서	대일초	3학년 4반
이소윤	갈곡초	3학년 4반
유아림	송운초	3학년 4반
김태현	배곧초	3학년 6반
유진서	갈곡초	3학년 4반
심지우	금모래초	3학년 4반

이은유	승지초	3학년 1반
편진희	서해초	3학년 3반
최예랑	서촌초	3학년 5반
박은서	신안초	3학년 2반
정지원	정왕초	3학년 2반
김가현	화성반월초	3학년 3반
이시은	신안초	3학년 3반
장서윤	안일초	3학년 2반

특선

- 초등부/고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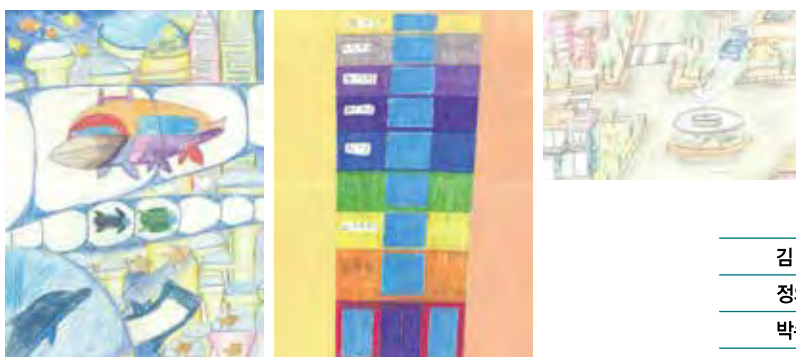


김현지	연성초	5학년 4반
이보람	기산초	4학년 1반
박은서	효천초	6학년 1반
오예림	정왕초	4학년 6반

서보훈	승지초	5학년 3반
이시우	곡정초	5학년 4반
한지옥	신일초	5학년 2반

특선

- 중등부



김진	초지중	1학년 4반
정의민	능곡중	3학년 5반
박수연	서해중	2학년 6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가작
- 유치부



장유주	해외달키앤주미술학원	오렌지반
정가윤	지혜와꿈의세상어린이집	
심예진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빛반
이주영	해찬숲키즈어린이집	노을빛반
허재형	해찬숲키즈어린이집	노을빛반
김선우	성은유치원	모란반
유하영	해외달미술음악학원	
구주원	룸비니유치원	목련반

김현수	미리내유치원	해맑은반
진연우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솔반
윤채현	시립목감복지어린이집	가은빛길반
임한익	안산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배승혜	배곧유치원	다솜반
이시훈	성원유치원	7세 하늘반

가작

- 초등부/저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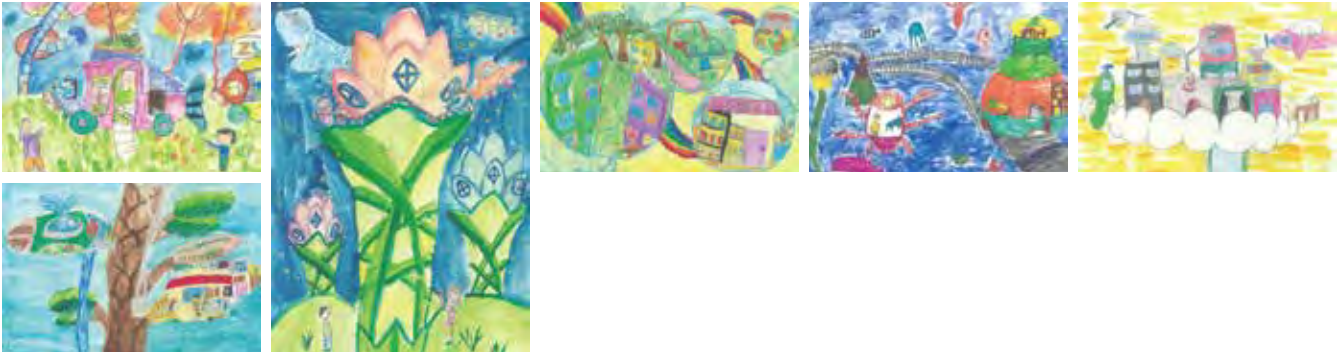


서진주	송운초	1학년 3반
라희락	목감초	1학년 3반
장우진	안일초	1학년 1반
윤지후	송운초	1학년 3반
정수호	상동초	1학년 5반
서보영	승지초	1학년 3반
임나영	승지초	1학년 4반
박울립	대일초	1학년 3반
이승아	서촌초	1학년 2반
김도아	화성반월초	1학년 8반
한승이	서촌초	1학년 1반

김지유	배곧초	1학년 8반
김효주	서촌초	1학년 1반
김상희	화성반월초	1학년 5반
최서울	산의초	2학년 4반
박재원	승지초	2학년 3반
박지울	신천초	2학년 2반
정재연	은행초	2학년 4반
백승주	심석초	2학년 3반
이태희	팔달초	3학년 1반
박지민	석곶초	3학년 1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가작
- 초등부/저학년



박진설	매홀초	3학년 2반
김초의	송운초	3학년 7반
임아진	서촌초	3학년 2반

이서진	배곧초	3학년 8반
김하경	도원초	3학년 2반
박주형	부평초	3학년 2반

가작

- 초등부/고학년



김유진	정평초	4학년 4반
김서연	귀인초	6학년 10반
김한비	정왕초	5학년 1반
조현준	비산초	5학년 1반
채정민	흥덕초	4학년 6반

원류진	오현초	4학년 2반
신재근	매원초	6학년 1반
김경현	은계초	5학년 2반
전승호	필봉초	5학년 1반
박건형	부평초	6학년 1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입선

- 유치부



이제선	행복유치원	한울반
박가원	사회유치원	지혜1반
장윤성	해와달기앤뮤미술학원	블루반
류다현	궁전유치원	꽃들반
안시울	배곧유치원	누리반
윤다솜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초롱꽃반
박소윤	지혜와꿈의세상어린이집	지혜2반
엄유정	또래또래어린이집	푸른하나들반
김주하	서해병설유치원	한들반
조유빈	배곧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빛반

이세아	양문어린이집	목성반
강민성	메이플베어평촌점	FOX반
한성민	메이플베어평촌점	cougar반
최연우	렘콘유치원	밤비반
박주원	강남큰빛유치원	무지개반
박유미	세라숲유치원	
김민아	ABC몬테소리유치원	지구반
정지호	에아뜨유치원	솔비반
이준서	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련반

입선

- 초등부/저학년



김지윤	목감초	1학년 3반
김하린	덕천초	1학년 3반
이소이	매화초	1학년 1반
김시후	배곧초	1학년 5반
남현수	옥길산들초	1학년 1반
김정수	서해초	1학년 1반
서한용	배곧초	1학년 7반
나현서	배곧초	1학년 채움반
양희원	배곧초	1학년 틈움반
윤연진	화성반월초	1학년 8반

김채린	시흥초	1학년 5반
장소영	서촌초	2학년 5반
황인서	월포초	2학년 1반
정아형	배곧초	2학년 3반
심소희	부평초	2학년 2반
김혜지	배곧초	2학년 1반
정재욱	서촌초	2학년 3반
김은우	서해초	2학년 1반
박시연	포리초	2학년 1반
정가을	장현초	2학년 3반

2017 경기건축문화제
제5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입선

- 초등부/저학년



김예건	중앙기독교초	2학년 2반
권민지	진말초	2학년 3반
진선우	배곧초	2학년 9반
김하윤	덕천초	3학년 5반
김서연	신천초	3학년 4반

홍서영	서촌초	3학년 2반
노한승	송운초	3학년 3반
김찬울	연성초	3학년 1반
이승연	배곧초	3학년 9반

입선

- 초등부/고학년



나재욱	냉정초	4학년 5반
정민지	능곡초	5학년 5반
박찬혁	냉정초	5학년 1반
임한아	안산서초	4학년 4반
조연희	배곧초	4학년 6반

김홍찬	늘푸른초	4학년 7반
임세희	팔달초	4학년 6반
서상훈	냉정초	5학년 3반
이지인	곡정초	4학년 7반
조민지	신일초	4학년 2반

심사평





2017년 제 5회 경기학생건축물그리기 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꾸는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사기준은 주제에 알맞게 표현 되었는지,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있는지, 구도 및 구성이 알맞게 짜여졌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답게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린 작품들이 많아 심사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한정되지 않은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기 대회 행사를 위해 애쓰신 경기도 건축사회 임원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활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발전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사위원장 **김정숙**

2017 경기건축문화제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Enjoy 전통건축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건축문화답사

시흥건축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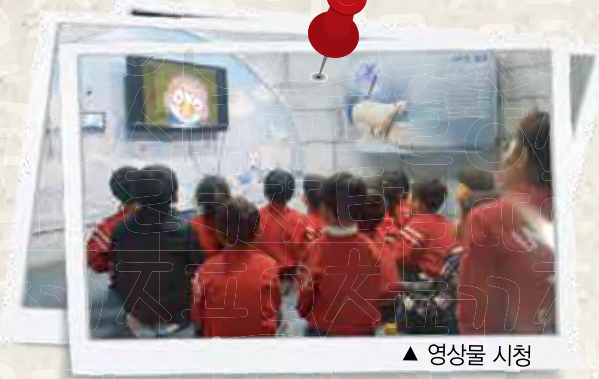
Enjoy 전통건축

내 찾아가는 박물관

- 전시 전통지붕재료, 기와·벽돌 유물, 한옥모형, 이음맞춤, 공포 - 전연령
- 체험 대패체험 - 전연령
공포모형 목걸이 만들기 - 전연령
전통한옥 만들기(5량가 만들기) - 초등학교생
성곽 만들기 체험 - 유아, 초등학교생
경기도 대표 전통건축유산 360° VR체험 - 청소년, 성인용
전통건축 팝업카드 만들기 - 유아, 초등학교생
- 영상상영 경기도 대표 건축유산 3D상영(남한산성, 파주 해음원지 등)
뽀로로가 도시에 갔어요



▼ 성곽만들기



▲ 영상물 시청



▲ 한옥 모형 및 전통 지붕재료 체험



▲ 전통건축 팝업카드 만들기



▲ 한옥 모형 및 전통 지붕재료 체험



▲ VR 체험



▲ 대패 체험



짓 — 다

살의 터를 일구고 집을 잘 짓던 LH 경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입주민의 삶의
 LH 경기지역본부는 집만 짓지 않습니다



사람과 도시가 웃음

짓습니다

상의 터를 일구고 집을 잘 짓던 LH 경기지역본부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라이프스타일을 깊이 고민합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며,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집만 짓지 않습니다.
 사람과 도시의 행복을 함께 짓습니다.



짓
—
다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건축가협회는 2017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2기”를 개최합니다.
서울, 부산, 경기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답사 등의
체험을 통해 건축과 함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7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2기

Architecture School for Happiness



일시
9월 16일(토) ~ 11월 18일(토) 총7회(서울, 광주, 경기)
9월 23일(토) ~ 11월 18일(토) 총7회(부산, 울산)

장소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역술인센터
부산: 남구 유엔문화기념관
광주: 남구 관동대학교
경기: 시흥시 서동역문화센터
울산: 남구 울산문화예술회관 외

참가대상
어린이 113: 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 1416: 중·고교 1~3학년
청소년 719: 고등학교 1~3학년

모집 정원
지역별 모집원: 각20명씩
(단, 울산지역은 어린이113, 청소년1416 두교급만 운영)

참가신청 및 문의
내선(이메일: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http://call.naver.com/toyoarch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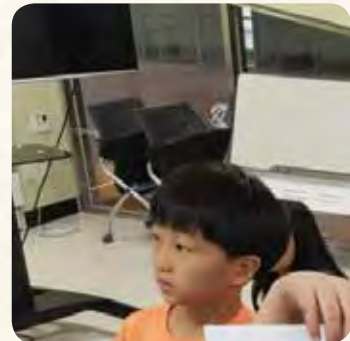
서울				
강좌	날짜	어린이113	청소년1416	청소년1719
1	9/16	내가 발견하는 집 정현정	공공시설과 환경을 지역주민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신호섭	동네 지도그리기 문정석
2	9/23	동물의 집, 사람의 집 박소람	일상 속 우리 동네, 미래의 일상과 공간 김형우	상상하고 발견하는 집(답사) 전진한
3	10/14	나무로 만든 집, 벽돌로 만든 집 이덕중	모이는 장소, 머무르는 장소 김유진	생각하고 만드는 집 전진한
4	10/21	학교 가는 길 서상하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는 건축(답사) 윤창기	사람이 모이는 동네(답사) 문정석
5	11/4	우리 주변 사물과 집 이야기 김윤수	우리 동네, 우리 길 윤창기	우리 동네의 숨은 보물 임수현
6	11/11	자연과 함께 하는 집 임지택	생활하는 공간을 사물로읽어보자 김수미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이준열
7	11/18	건축가와 함께 생활 속의 건축을 말하자 김기환	경험의 건축, 세월의 미학 김수미	내가 건축가 강승현, 김나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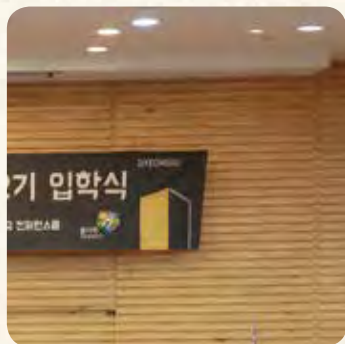
경기				
강좌	날짜	어린이113A	어린이113B	청소년1416
1	9/16	우리가 사는 집을 잘 알고 있나요? 정순철	건축가는 누구일까요? 무엇을 할까요? 박진숙	생활하는 공간을 사물로 읽어보자 김창수
2	9/23	자연과 사람이 만든 것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최인영	우리가 사는 집을 잘 알고 있나요? 정순철	공공시설과 환경을 지역주민의 눈으로 다시 보기(답사) 김창수
3	10/14	내 친구의 집, 그리고 그 친구가 모여, 우리가 사는 집을 이야기 합니다. 김재정	자연과 사람이 만든 것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최인영	일상 속 우리 동네, 미래의 일상과 공간 정창호
4	10/21	건축가는 누구일까요? 무엇을 할까요? 박진숙	내 친구의 집, 그리고 그 친구가 모여, 우리가 사는 집을 이야기 합니다. 김재정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는 건축(답사) 정창호
5	11/4	우리가 사는 집 주위엔 무엇이 있을까요? 임상인	동물의 집과 사람의 집은 어떻게 다를까요? 김영신	우리 동네 우리 길 김남현
6	11/11	동물의 집과 사람의 집은 어떻게 다를까요? 김영신	우리가 사는 집 주위엔 무엇이 있을까요? 임상인	모이는 장소, 머무르는 장소 김남현
7	11/18	집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중숙	집은 어떻게 만들까요? 김철환	경험과 기억의 상자 김동훈

부산				
강좌	날짜	어린이1113	청소년1416	청소년1719
1	9/23	우리가 사는 집을 잘 알고 있나요? 정지영	일상 속 우리 동네, 미래의 일상과 공간 정동원	동네 지도그리기 강영훈
2	10/14	동물의 집과 사람의 집은 어떻게 다를까요? 배현숙	우리 동네, 우리 길 (답사) 박소윤	상상하고 발견하는 집 (답사) 강영훈
3	10/21	집은 어떻게 만들까요? 신성호	모이는 장소, 머무르는 장소(답사) 박소윤	생각하고 만드는 집 조재득
4	10/28	우리가 사는 집 주위엔 무엇이 있을까요? 정희웅	생활하는 공간을 사물로 읽어보자 고수정	사람이 모이는 동네 (답사) 조재득
5	11/4	내 친구의 집, 그리고 그 친구가 모여, 우리가 사는 집을 이야기 합니다. 배현숙	공공시설과 환경을 지역주민의 눈으로 다시 보기 (답사) 추동엽	우리 동네의 숨은 보물 윤종진
6	11/11	자연과 사람이 만든 것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신성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는 건축(답사) 정동원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이주영
7	11/18	건축가는 누구일까요? 무엇을 할까요? 서혜민	경험과 기억의 상자 (답사) 추동엽	내가 건축가 강주연

광주				
강좌	날짜	어린이1113	청소년1416	청소년1719
1	9/16	내가 발견하는 집 박종호	일상 속 우리 동네, 미래의 일상과 공간 김기준	동네 지도 그리기 오상목
2	9/23	동물의 집, 사람의 집 위소연	공공시설과 환경을 지역주민의 눈으로 다시 보기 최재영	상상하고 발견하는 집 이원규
3	10/14	나무로 만든 집 벽돌로 만든 집 김재웅	모이는 장소, 머무르는 장소 강동영	생각하고 만드는 집 이형주
4	10/21	학교 가는 길 김동하	경험과 기억의 상자 신용주	사람이 모이는 동네 박정은
5	11/4	우리 주변 사물과 집 이야기 김정선	우리 동네, 우리 길 정영범	우리 동네의 숨은 보물 박정은
6	11/11	자연과 함께하는 집 정관성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는 건축 최재영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이상준
7	11/18	건축가와 함께 생활 속의 건축을 말하자 조성호	생활하는 공간을 사물로 읽어보자 정영석	내가 건축가 이원일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건축문화답사



답사 일정

- 굿모닝하우스
- 네이버그린팩토리
- 판교아브뉴프랑



NHN Green Factory

Location Seongnam, South Korea
 Program Offices
 Area 101,661m²
 Floors 28 Stories and 7 Basements
 Year 2010
 Collaboration NBBJ
 Awards Excellence Award, Korean Architecture Award, 2011
 Architecture of the Year Best 7, 2014

판교아브뉴프랑

LOCATION: Pangyo, Gyeonggi-Do
 PROGRAM : Facade
 MATERIAL : POLY-CARBONATE + STEEL FRAME
 BUILDING SCOPE : B2, 18F
 COMPLETION : 2013(due to)
 AREA : 69,825.00 m²

Goodmorning House & Cafe

Location: 43-7, Hwaseo-dong,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168,Paldal-ro)
 Use: tourism accommodation facility, general restaurant
 Site Area: 9,225.00㎡ / Building area: 1,738.80㎡ (18.85%) / Gross floor Area: 2,692.90㎡ (25.22%)
 Structure: RC
 Building scope: Goodmrrning House - B1, 2F / Goodmorning Cafe - B1, 1F
 Height: Goodmrrning House - 6.1m / Goodmorning Cafe - 4.45m
 Design Team: Choonglyeol Lee, Jinchul Choi, Junghune Kim, Soojung Gwon
 Structure: THEKUJO Engineering Inc.
 Machine electricity: Global Korea Engineering Co., Ltd
 Landscape: SOLTOS Associates Inc.
 Constructor: MiRae Engineering & Const Co., Ltd
 Photographer: YONGKWAN KIM



Photographer: YO



Photograp





경기가 즐거워지는 상상!

즐거운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City Designer 경기도시공사



택지개발

- 광교신도시
- 남양주 다산신도시
- 동탄2신도시
- 고덕국제신도시
-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주택사업

- 분양주택
- 임대주택
- 가평 달전 전원주거단지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재건축 매입임대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따복하우스





산업단지

판교창조경제밸리(판교제로시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평택고덕(고덕국제화)
안성제4일반
파주LCD
김포양촌
안성원곡물류단지



위·수탁사업

과천시식경보타운
판교테크노밸리
용인하수슬러지시설
영덕하수종말시설
연인산도립공원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



2017 시흥건축 아카데미



2017 시흥건축 아카데미

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주택설계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한 시흥시 건축사사무소를 소개해 주실 경우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 2017.08.01 ~ 2017.08.31)
 신청기간: 2017.08.01 ~ 2017.08.31
 신청처: 시흥시 건축사사무소 (시흥시 대곡동 111-1번지)
 문의: 031-310-1111

셀프 인테리어

건축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한 시흥시 건축사사무소를 소개해 주실 경우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 2017.08.01 ~ 2017.08.31)
 신청기간: 2017.08.01 ~ 2017.08.31
 신청처: 시흥시 건축사사무소 (시흥시 대곡동 111-1번지)
 문의: 031-310-1111

2017 시흥건축학교 셀프인테리어

SketchUp 스케치업 매뉴얼

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솔잠골

강성일



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행복한 하우스

구미정



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안나하우스

김경희



ANN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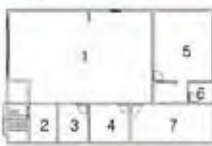
-바식과 함께 하는 삶-

■ SITE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247-5번지



■ PLAN



1. 거실
2. 창고
3. 화장실
4. 작업방
5. 연방
6. 화장실
7. 서재

■ CONCEPT



■ ECOSYSTEM



■ STRUCTURE



■ DETAIL



■ ELEVATION



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은가비

김숙영



은가비

-노년의 사색과 지은 생활상황을 위하여-

■ SITE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460-118번지



■ CONCEPT



■ PLAN



1. 거실
2. 화장실
3. 방
4. 거실
5. 작업방
6. 부차

■ Eco system



■ STRUCTURE

ROOF



■ DETAIL



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히게하우스

김순자



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둔내농장집

김진수



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마옥당

서미숙



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빨간 등지

위명환



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따뜻한 나의 집

윤점욱



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햇살 가득 바람 좋은 집

이미정



나만의 전원주택 설계

천세만세 하우스

허오봉



셀프인테리어

Antique Interior design

윤점욱



셀프인테리어

Luxury Interior design

김숙영



셀프인테리어

Modern Interior design

안혜지



셀프인테리어

Provence Interior design

김순자



셀프인테리어

Romantic Interior design

이미정



셀프인테리어

Simple Interior design

김경희



셀프인테리어

Unique Interior design

이연이



2017

**GYEONGGI
ARCHITECTURE
CULTURE
FESTIVAL**

편집후기 및 행사사진

편집후기



2017년 경기건축문화제의 시작은 시흥시라는 중소도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최장소 선정상의 논의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용인시와는 달리 시청광장의 협소로 ABC센터 및 에코센타를 대상으로 답사와 토론을 거쳐 에코센타로 선정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집행위원회에서 수행해 나갔습니다.

금년에 진행된 주요프로그램으로는 경기도건축문화상, 시흥시건축문화상, 도시건축사진공모전, 공공디자인공모전, 옥외광고물공모전, 경기건축역사전 등의 건축전공 학생이나 건축전문가의 공모를 통한 수상작을 전시하는 프로그램과 Enjoy전통건축, VR체험, 친환경관련체험, 3D건축모형프린팅체험, 건축모형아키텍체험, 과자건축물만들기체험, 에너지관련진로체험, 크로마키포톤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일반관람인들에게 건축의 기초적인 이해와 지식을 함양하

고, 녹색건축세미나,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시흥도시건축세미나 등의 교육 및 세미나와 여러장르의 버스킹공연, 케리커처, 푸드트럭 및 키다리빠에로 등의 부대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의 흥미를 돋구게 기획하여 관람인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유도하여 3일간의 문화제 기간동안 6천여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한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요 전시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상작품 전시는 내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관 및 로비에서 진행하였으며, 친환경건축축제 및 시흥시자체 프로그램은 에코센타 이면도로를 활용하고 각종 체험관련 프로그램을 주진입로상에 배치하여 관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흥미를 유도하였으며, 개막식 및 시상식도 예전의 식순과는 달리 행사장 입구에서 VIP 영접과 동시에 개막테이프 커팅과 아울러 취타대의 선도에 맞추어 메인행사장으로 입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행사장에는 250인치 모니터에 1년간의 준비사항을 영상에 담아 상영하고 시상시에는 수상자의 작품을 모니터에서 시의적절하게 상영하는 등 시상식이 그간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도록 기획하여 본상 수상자외의 시상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단상수상자의 숫자를 대폭 줄이도록 하고 주요 수상자와 VIP가 자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하는 등 문화제의 개막식이 수상자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김윤식 시흥시장님의 남다른 건축문화에 대한 애정이 2017경기건축문화제를 한층더 빛나게 하였으며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원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이 커다란 성과라 사료되어 그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금년이 두 번째 건축문화제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성과로 지자체 및 지역건축사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협조가 더욱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안산시에서도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의 유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7 경기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경기도청, 경기도건축사회, 시흥시청 및 시흥지역건축사회 등 여러 관계자님의 노고가 절대적이었다고 사료되어 그간의 관심과 협조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경기건축문화제 집행위원장
신 만 석







기타 행사









